

원근가

2026년 여름 · 제41호

원근가회의

여는 글

시대의 균열과 문학의 성찰

이병길 편집주간

인류의 진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인간의 합리성 일 것이다. 근대 이후 경험과 이성의 시대를 거치며 인류는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 수많은 비극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참혹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으며, 그 결과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적 규범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는 각국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승되며 현대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2026년 2월 말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은 6월 초인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전쟁은 과거의 대규모 지상군 침공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AI 기반 군사기술과 정밀유도무기,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원격 타격을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도부 제거 작전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미국의 중동 동맹국을 대상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위협함으로써 국제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

결의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는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협력보다 국가주의와 진영 논리, 정치적 극단주의가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대 이후 인류가 축적해 온 보편적 가치와 상식 역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패권 경쟁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성, 경제적 양극화,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인류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공통의 규범과 질서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세계 질서는 균열과 재편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동하는 과도기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 번 형성된 사고방식과 정치적 신념은 거대한 충격을 받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의 퇴행은 영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식과 판단이다. 시민들이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비상식적 정치와 사회적 퇴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인,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직면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의 기능을 재확인해야겠다. 문학은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시대의 모순과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문학인들은 현실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작품을 형상화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울산작가』 41호는 크게 두 개의 특집과 회원들의 신작, 그리고 비평과 논평, 문학상 수상 기념 지면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특집 I 「다시 읽는 울산작가상 수상 작품과 신작 작품」에서는 2004년 제정된 울산작가상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울산작가회의는 2004년 제1회 수상자인 조덕자 시인을 시작으로 2025년 제20회 수상자인 나정욱 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2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울산작가상 역대 수상자 현황과 운영규약을 함께 수록하고, 수상 당시의 대표 작품과 더불어 현재의 문학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작 작품들을 함께 실었다. 안타깝게도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작가들도 계시지만, 수상 작가들이 흔쾌히 신작을 보내주어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집 II 「전쟁과 평화」는 오늘의 세계가 직면한 전쟁과 폭력, 그리고 평화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과 분쟁의 확산 속에서 울산의 문인들은 시와 산문을 통해 전쟁이 인간과 사회에 남기는 상처, 평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다. 나정욱, 이태영, 이한열, 정성희, 김시민, 임운, 송은숙, 조숙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은 전쟁을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작품을 보내 주신 모든 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특집에 이어 「울산작가 신작시」는 울산 문단을 지키고 있는 시인들과 아동문학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폭넓게 수록하였다. 청춘 같은 열

정으로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시는 곽구영, 이한열 시인을 비롯하여 최근 울산작가회의 회원이 된 김근태, 손영순 그리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는 여러 회원들의 다양한 시편과 김시민, 우덕상의 동시 작품은 오늘의 삶과 시대를 바라보는 울산 문학의 다채로운 시선을 보여 준다. 또한 올해부터는 「울산작가 작품상」이 신설되어 회원들이 발표한 작품들이 그 심사 대상이 된다. 한 편 한 편의 작품은 작가들이 치열한 사유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빚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천천히 정독하며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란다.

이번 호에도 산문과 소설도 함께 수록하였다. 「울산작가 산문」에서는 조정숙, 최경호, 조숙, 장하영, 곽구영 등의 글을 통해 삶과 문학, 지역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제7회 울산작가상을 수상한 박종관 소설가의 신작소설 「송고한 슬픔」을 소개한다. 타지역에 있으면서 『울산작가』에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투고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울산작가 평&론」에서는 올해 상반기 출간된 회원들의 저작을 중심으로 비평 지면을 마련하였다. 노효지 시인의 시집 『나는 말 없는 꽃들이 좋다』에 대한 평론과 시평을 비롯하여 김윤삼의 산문집 『무늬 뒤의 무늬』, 장하영의 『독서로 쓰다—책은 나를 다시 쓰게 했다』, 이소정의 소설집 『우리의 차와 미래의 문장들』에 대한 서평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오영애 작가의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 대한 서평도 함께 실어 문학 읽기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번 호에 다 담지 못한 신간들에 대한 서평은 하반기에도 계속 게재할 예정이다. 다른 작

가들의 시 읽기를 쓴 송은숙, 조숙 시인의 글은 시 작품을 보는 눈을 확장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병길의 논평 「한반도의 비무장화는 반전과 평화의 이정표이다」를 통해 전쟁과 평화의 공존 공간인 한반도의 문제를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편, 울산 문단의 큰 경사도 있었다. 백무산 시인이 시집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로 2026년 5월문학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과거의 사건으로 고정하지 않고 오늘의 노동과 생명,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장하여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5.18이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는 시대적 요청임을 상기시키며, 그 요청이 노동과 생명의 현재적 문제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묵직하게 보여준다”고 평하였다. 울산작가회의 회원들은 광주에서 열린 5월문학제에 함께 참가하여 백무산 시인의 수상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나누었다. 이에 이번 호 말미에는 수상작과 심사평, 수상소감, 그리고 5월문학상 시상식 소감문을 함께 수록하여 그 뜻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문학은 시대를 기록하고 인간의 삶을 증언하는 일이다. 『울산작가』 41호에 실린 작품들 또한 저마다의 언어로 오늘의 현실과 인간의 내면을 비추고 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 작품들과 함께 울산 문학의 현재를 만나고, 우리 시대가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II 여는 글

시대의 균열과 문학의 성찰 이병길 편집주간 2

III 특집 I. 울산작가상 20년

울산작가상 역대 수상자 현황과 운영규약 14

다시 읽는 울산작가상 수상 작품과 신작 작품 17

제1회 울산작가상 조덕자 시인 17

제2회 울산작가상 박종석 평론가 19

제3회 울산작가상 이궁로 시인 22

제4회 울산작가상 조숙 시인 25

제5회 울산작가상 최장락 시인 27

제6회 울산작가상 김시민 아동문학가 30

제7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박종관 소설가 34

제8회 울산작가상 임정옥 시인 35

제9회 울산작가상 성환희 시인 37

제10회 울산작가상 김이삭 아동문학가 39

제11회 울산작가상 이숙희 시인 41

제12회 울산작가상 조숙향 시인 44

제13회 울산작가상 강현숙 시인 47

제14회 울산작가상 송은숙 시인 50

제15회 울산작가상 도순태 시인	54
제16회 울산작가상 이한열 시인	57
제17회 울산작가상 광구영 시인	61
제18회 울산작가상 손인식 시인	64
제19회 울산작가상 정성희 시인	67
제20회 울산작가상 나정욱 시인	70

II 울산작가 신작시

세계의 기분 외 2편 강현숙	76
12월의 비 외 2편 광구영	80
숯못 외 2편 구명자	85
나이테 외 1편 구태연	88
귀신 고래의 회유 외 2편 김근태	92
자맥질 외 1편 김윤삼	100
다시 그날을 기억한다 외 2편 김종원	104
시인의 초상 외 2편 나정욱	112
나비 숲 외 1편 도순태	118
오솔길에서 외 1편 노효지	122
흐려지는 방 외 1편 서경	125
심미안 외 2편 손영순	128
선에 대한 단상 외 2편 이규원	132
슬도의 저녁 외 2편 엄하경	137
거울을 보며 외 1편 손화람	142
망해사 벚꽃 외 1편 송은숙	146

동바람 외 2편 이노형	150
해방보다 통일의 길은 더 멀었다 이병길	154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외 1편 이수진	163
낙화는 설화처럼 외 2편 이숙희	166
신발 외 2편 이제향	170
탈각 외 2편 장상관	173
가슴 뻥뻥한 집 외 2편 이태영	176
붉은 마음 일천사백예순세 송이 외 2편 이한열	182
봄은 저만치 물러서서 지켜본다 외 1편 임윤	188
하현달의 허세 외 2편 정성희	192
꽃자리 외 2편 임경희	197
안간힘을 보았다 1 외 2편 정소슬	202
바닥에 드러누워 외 2편 조덕자	207
검은 백팩 외 2편 조숙	211
태화강을 읽다 외 2편 조정숙	215
아프리카의 후예 외 1편 최병해	218
제로 시대 외 2편 한정미	222
우리도 꽃들처럼 외 2편 조유환	228
덕하역 2018 외 2편 황주경	233

II 울산작가 신작 동시

공생과 천적 외 2편 김시민	240
비밀 친구 외 2편 우덕상	243

II 특집 II. 전쟁과 평화

- 장대한 분노 나정욱 248
글로우 이태영 250
러시안롤렛처럼 이한열 251
파란 바닷길 우덕상 253
노킹 (Knocking / No kings) 정성희 255
눈물 맛 김시민 256
버튼과 겨울 사이 서경 258
사라진 카피라이터 임윤 260
팔레스타인을 위한 기도 김연민 261
인류세 반란 이병길 263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놀이 송은숙 264
나에게 전쟁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조숙 266
봄날의 포성 최경호 269
봄날에 조정숙 273
『울분』을 읽으며 오영애 276

II 울산작가 산문

- 노송 조정숙 282
은빛 비늘의 시 최경호 285
한 번쯤은 하루키처럼 조숙 291
울산살롱을 꿈꾸며 장하영 293
냉정한 측은지심 장하영 299
일기 광구영 302

II 울산작가 신작 소설

- 승고한 슬픔 박종관 308

II 울산작가 평&논

- 노효지 시집 『나는 말 없는 꽃들이 좋다』 이기철 336
시집 속의 시 읽기 송은숙 351
기저귀 시 두 편 읽기 조숙 359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오영애 362
김윤삼 산문집 『무늬 뒤의 무늬』 박제영 365
장하영의 『독서로 쓰다-책은 나를 다시 쓰게 했다』 369
이소정의 『우리의 차와 미래의 문장들』 372
한반도의 비무장화는 반전과 평화의 이정표이다 이병길 375

II 백무산 <5월문학상> 수상

-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 384
2026년 5·18문학상 본상 심사평 386
2026년 5·18문학상 본상 수상소감 389
백무산 시인의 오월문학상 식장 소감문 391
시인 백무산 393

II 2026년 상반기 울산작가회의 활동 394

II 울산작가회의 회원 396

특집I. 울산작가상 20년

■ 울산작가상 역대 수상자 현황과 운영규약 14

■ 다시 읽는 울산작가상 수상 작품과 신작 작품 17

제1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조덕자	17
제2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박종석	19
제3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이공로	22
제4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조 숙	25
제5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최장락	27
제6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김시민	30
제7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박종관	34
제8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임정옥	35
제9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성환희	37
제10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김이삭	39
제11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이숙희	41
제12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조숙향	44
제13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강현숙	47
제14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송은숙	50
제15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도순태	54
제16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이한열	57
제17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곽구영	61
제18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손인식	64
제19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정성희	67
제20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나정옥	70

울산작가상 역대 수상자 현황과 운영규약

■ 울산작가상 역대 수상자 현황

제1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조덕자 시인(2004년)
제2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박종석 평론가(2005)
제3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이궁로 시인(2006)
제4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조숙 시인(2007)
제5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최장락 시인(2009)
제6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김시민 아동문학가(2010)
제7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박종관 소설가(2011)
제8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임정옥 시인(2012)
제9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성환희 시인(2013)
제10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김이삭 아동문학가(2014)
제11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이숙희 시인(2015)
제12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조숙향 시인(2016)
제13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강현숙 시인(2017)
제14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송은숙 시인(2018)
제15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도순태 시인(2019)
제16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이한열 시인(2020)
제17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곽구영 시인(2021)
제18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손인식 시인(2022)

제19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정성희 시인(2023)

제20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나정옥 시인(2025)

■ 2004년 제정 <울산작가상 운영규약>

“태화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수도 울산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게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문학은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제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작가회의는 지역문학인들의 작품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울산작가상을 제정합니다. 이 상이 작가들에게는 물론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에게도 우수한 작품과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울산작가상은 작품상입니다.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 아니라 우수한 문학작품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언제나 공정하게 운영하여 울산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문학상으로, 시민들의 찬사를 받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울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은 <울산작가상>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울산지역 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 본 상의 운영 및 관리는 (사)울산작가회의 이사회에서 한다.

제4조(대상) 본 상은 울산작가회의 회원의 창작집이나 발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자격)

1 등단이나 입회 5년 이상의 작가에게 수여한다.

2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 발간된 작품집과 주요 문예지 및 매체에 특집으로 발표된 작품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6조(시상) 본 상의 시상은 12월 송년 문학의 밤에 한다.

제7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3~5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위촉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8조(상금 및 부상) 상금 및 부상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기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0조(시행) 본 상은 2004년 12월부터 수여한다.

* 위와 같은 취지로 규약에 따라 울산작가상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20회 동안 20명의 작가에게 수여하였다. 올해부터 울산작가상과

작품상을 분리 수상하여 기념으로 특집을 마련했다.

수록 작품은 수상 당시 게재된 대표작과 신작을 실었다. 연락이 되지 못한 작가의 신작은 게재하지 못했다

- 울산작가 편집위원회



▲ 제1회 울산작가상 심사 모습

다시 읽는 울산작가상 수상 작품과 신작 작품

제1회 울산작가상 (수상 2004년) 조덕자 시인

- 수상 작품집 : 시집 『가구의 꿈』
- 심사위원 : 김춘복·김태수·남송우·오인태
- 발표지 : 『울산작가』 4호(2005년)
-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광역시지회 회장 정일근

대표 수상작 **가구家具의 꿈** 조덕자

불을 끄면 방 안의 나무들이 숨을 쉰다.
 똑, 똑, 하루의 노곤함을 내뱉으며
 숲에서 태어난 나이트들이 숨을 쉬고 있다.
 사람의 지붕 밑에서도 새로이 들어앉은
 생명들이 무늬결에 와 박힌 채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을 나는 듣고 있다.
 점, 점, 뚜렷하게 숲의 내음이 스며들고
 나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천정 위로 뻗어오는
 물소리를 듣는다.
 계곡 따라 돌다 들어온 바람 한 자락도
 어느새 내가 기대어 앉은 장롱 속으로

스며드는지 빠근한 몸을 풀고 있다.
 장롱은 푸른 숲의 그림자로 늘어나고
 그 그늘에서 나를 잠들게 한다.
 다리 펴는 것이 부끄러운 듯

고백해야지
 만첩홍도 그늘 아래
 눈 더 붉어져 눈물이 흐르기 전에
 내가 더 사랑한다고.

 신작 시 **칠십이 되면** 조덕자

붉은 겹 만첩홍 그늘에 앉아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 보고 있었지
 봄 햇살 등에 지고
 지나온 길 위 흔적 남기지 않으려고
 온 힘 다해 기어가는 달팽이와
 걸어온 길 무수히 찍힌 내 발자국이
 아지랑이로 흔들리고 있었지
 칠십이 되면
 걸어온 길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고 다짐했는데
 흔적 가득한 길 위에 서서
 못한 말이 남아 자꾸만 뒤돌아본다
 칠십이 되면
 세월에 주름 진 내 손
 꼭 잡고 같이 걸어 온 남자에게

조덕자 경남 하동 출생. 1997년 《심상》신인상으로 등단했다. 한국작가회의, 울산작가회의, 심상시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시집 『가구의 꿈』 『지중해 블루 같은』 『길, 묘연』 등이 있다.

제2회 울산작가상 박종석 평론가

- 수상 작품집 : 『현대시 분석 방법론』
- 심사위원 : 남송우(문학평론가, 부경대학교수), 오인태
(시인, 경남작가회의 회장), 정일근(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제5호 2006년

 심사평과 수상소감

심사평 중에서

박종석의 「현대시 분석 방법론」은 현장 비평에서 제일 먼저 과제로 다가서는 텍스트 선정의 문제에서부터 시 작품의 분석 방법론, 그리고 현대시 분석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표절 시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실제비평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현장 비평이 안고 있

는 실질적인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실제비평에서 언제나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텍스트를 선정할 것이냐가 일차적인 과제이다. 박종석은 이 평론집에서 우선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텍스트 선정에 있어, 시인 수의 팽창에 따른 작품 수의 증가, 인맥의 문제, 시류에 편승하는 경향 등이 제대로 된 텍스트를 선정하는 데는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인식하고 이를 넘어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오늘의 비평단을 향한 자기반성이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실제비평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사항은 선정된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느냐 하는 점이다. 선정된 텍스트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없다면, 온전한 비평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비평가는 이 분석 방법론의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박종석 평론가가 제시하고 있는 시 분석모형은 기존의 시작품 분석 방법론들을 토대로 하면서도 자기식의 방법론을 모색해 보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다. 그것은 선택, 선행, 종합적 방법, 그리고 이론 접목의 방법인데, 이 네 가지 분석 방법을 나름의 시 분석 모형으로 체계화시키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제 시 작품 분석에 적용해 보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이 지니는 장점이다. 비평의 완성은 이론 비평의 제시와 그 이론비평이 실제비평에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종석의 실제비평 속에서 이론비평이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앞으로 더 깊고 메워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종석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텍스트 선정 과정 속에서 나타

나는 현상 중의 하나로 표절 시비를 문제 삼고 있다.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의 하나이면서도 창작과 표절 사이의 기준을 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요즈음처럼 패러디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오세영의 「서울은 불바다 2」와 이대흠의 「봄」을 두고, 이 두 작품 속에 나타나는 소재, 제재, 연의 형태, 지배소, 주제, 창작기법이나 소재 제재 등의 인용 혹은 패러디의 허용 정도 등을 두고 논의함으로써 창작과 표절 사이의 경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창작 작품의 진정성을 해명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현장 비평가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비평단의 과제에 민감한 의식을 지닌 비평가라면 앞으로도 문제적인 비평작업이 가능하리라고 평가하여 제2회 울산작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축하와 함께 정진을 바란다.

수상소감 중에서

문학이 담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문학 연구와 비평적 글쓰기를 감행했었다. 지금껏, 그러나 필자가 쓴 한 편의 글도 문학의 정체성을 밝히는 글쓰기를 못 했을뿐더러 변변한 비평문 하나 없는 것 같아 스스로 부끄러움만 안고 있다. 물론 문학에 관한 연구의 안목이나 비평에 관한 통찰력의 부족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중략> 필자는 아직도 문학 비평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문학 이론서나 좋은 작품들이 꽃힌 서가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런 맴동의 행위가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

한 한 도정이었다.


- 『비평과 삶의 감각』의 〈머리말〉에서

박종석 『송옥 문학 연구』, 『현대시 분석 방법론』, 『비평과 삶의 감각』, 『박종석의 글 쓰기 기술』, 『우리 시대의 독자』, 『바로 써먹는 수업의 기술』, 『정릉으로 온 편지』, 『조연현 평전』 등을 펴냈다.



제3회 울산작가상 이궁로 시인

- 수상 작품집 : 『만질 수 없는 삶의 안쪽』
- 심사위원 : 남송우(문학평론가,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오인태(시인, 경남작가회의 회장), 정일근(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7호(2007 상반기)

 **자선 대표詩 언젠가, 오래도록, 누군가를** 이궁로


내 숨소리만 기억하는 적단풍나무 잎은
가지 끝에서 눈시울 붉히며 서 있다
녹색으로 가득한 팔월 공원 빈 벤치
나도 한 때
오래도록 누군가를 기다린 적은 있었다

낮선 청년이 말 걸던 공원에서

구두코 끝으로 떨어지는 한숨 소리 들리던 거리에서
푸른 옷소매를 적시는 음악 소리 들리던 찻집에서
기다림은 내 마음에 깊은 우물을 만들었다
한낮의 습기 찬 공명으로 텅, 텅, 텅
몸에 와 닿는 울림, 나는 그 끝을 알지 못했으니

그의 입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벽을 타고 길게 자라기 시작했던 어둠의 넝쿨
음습한 냄새 쪽으로 넝쿨손은 뻗어갔다
죄의 길을 묻지 마라
상처의 가시를 발라내고 나는 서둘러 가슴을 봉합했다

눈물이 깊어지면 가시의 뿌리가 돌는가 보다
만질 수 없는 마음의 안쪽이 자꾸만 아파왔지만
있이 돌아 뜨거운 초록 불길 오래도록 타올랐지만
견딜 수 없는 아픔은 없었다
견뎌낸이란 오래도록 상처를 보듬는 일이었으니

 **신작 시 밤** 이궁로

묵직하게 가라앉는 어둠이 길을 막고 있다
통과해야 하는 어둠의 절벽

끝은 알 수 없는 무저갱
 신경이 살갓을 뚫고 솟아오른다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가라앉지 않고
 새처럼 펄럭이며 한없이 부유한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출렁이는
 블랙홀이다
 어두워...
 혼자만 아는 속삭임이 두려워
 허방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추락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미 밤이어서
 검은 물이 흐르는 개천에 떨어져도
 검게 물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시는 회고 검은 것을 논하지 않고
 검은 것을 잊었다

이궁로 2001년 농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제3회 울산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시집 『만질 수 없는 삶의 안쪽』, 『웃음꽃 한 송이』, 『어둠은 밤의 너머에서
 뜬다』 등이 있다.




제4회 울산작가상 조속 시인

- 수상 작품집 :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 심사위원 : 구모룡(부산작가회의 회장), 김태수(시인), 이한열(시인, 울산작가회의 회장), 남송우(문학평론가), 오인태(시인, 경남작가회의 회장), 정일근(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9호(2008년 상반기)

자선 대표詩 **알루미늄 창과 종이꽃** 조속

태백산보살집이 된 옥상 집에서
 노루모산 털어 놓으며 진저리 치던 젊은 엄마
 난전에 앉아 목장갑과 화투를 팔고
 옆집은 칠후 같은 연탄에 붉은 불을 붙여 팔았다
 무엇이든 팔아야 살았던 시장통
 1번 국도 자동차 소리에 세 든 사람들
 드르륵 드르륵 빈 도시 두드리며 셔터 내리는 자정이면
 빌딩과 빌딩 사이 징징징 어둠을 울리며
 쌍시옷 격음 흐느낌 한 판 찢득찢득 올라왔다
 고단한 새벽은 첫차 휘발유 냄새로 알루미늄 창에 스며들고
 도시까지 끌고 온 엄마의 향아리
 시멘트 마당에 엎드려 빈속으로 아침 맞았다
 찌지직거리는 아크릴 간판 뒷면 같은 집으로
 꿈, 망할 놈 계단을 오르던

부도난 회사로 반신불수 된 아버지
 10. 26이 지나가고
 밤새 한강다리 넘는 탱크 지나가고
 80년 5월 통행금지와 야간등화관제 지나가는 동안
 교복 칼라에 풀 먹이고 무거운 책가방을 썼다
 자춧빛 커튼 사이로 훑쳐보던 흑백 화면
 검은 아스팔트에 대나무 이파리 같던 얼룩무늬 군인들
 시멘트벽 뚫고 총알이 날아올 것 같은 밤이 지나면
 날마다 최루가스과 서울대생들이 지나가고
 방직공장 여직원들이 발가벗겨졌다는 소문도 지나갔다
 무엇이든 팔아야 살 수 있는 시장통
 알루미늄 창에 붉은 태백산보살 모시고
 꿈, 망할 놈의 계단 오르내리는 늙은 엄마 집에는
 붉고 하얀 종이꽃 화투장처럼 피어있다

 **신작 시 신전의 계곡** 조속

윤석렬은 체포되고 날씨는 화창했다
 계곡으로 가는
 기차는 정시에 움직였다
 기원전의 도시
 부서진 것들을 지키는 장소

삼월 하얀 꽃이 피고 축제가 열릴 때까지
 아몬드 나무도 부서진 것을 흉내 내고 있었다
 신전들을
 푸른 들판과 부드러운 언덕
 짙푸른 바다가 함께 있었다
 다른 종교적 건물이 되었다가
 사람들의 무덤이 되었다가
 적들을 방어하는 기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밥해 먹던 마을이 되기도 했다는
 황톳빛 신전 기둥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신전의 계곡 아그리젠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그곳에 남아 있었다
 내 안에 부서진 것들도 그 속에 남겨 두었다


조속 충남 조치원 출생, 2000년 경남신문 신춘문에 당선으로 등단하였다. 시집 『금니』, 『유쾌하다』, 『문어의 사생활』 등과 글쓰기 책 『오늘은 글로 써요』 등이 있다.

제5회 울산작가상 최장락 시인

- 수상 작품집 : 『와이키키 브라더스』
- 심사위원 : 김태수(시인), 최영철(시인), 조속(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11호(2010년)

모퉁이를 돌다 살짝 다른 차와 부딪힌다. 가벼운 충격. 문을 열고 내리는 아름다운 여자는 앞 범퍼를 보더니 눈초리가 치올라간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든다. 쌍방 과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동차 사고는 여자의 목에 핏대를 세우게 하고 가장 냉혹한 적으로 만든다. 어디로 전화를 거는 걸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여자는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한다. 저 여자의 남자는 올까? 여자의 고급차는 고양이가 손톱을 살짝 감추고 할퀴 것처럼 살짝 흠이 나 있었다. 차량용 파우더로 지우면 될 것 같았다. 여자는 내게 명함을 요구한다. 점점 가해자가 돼 가고 있다. 만만치 않다. 적은 아름다움 속에 감춘 비수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잠시라도 여자의 미인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남자가 오기 전에 끝을 내는 것이 좋다. 167 정도의 미끈한 여자라면 남자의 체격이 상상이 간다. 차를 세워두고 여자는 당당하게 담배를 꺼내 핀다. 여유를 부리는 것이 고단수다. 내가 먼저 피워야 하는데 선수를 빼앗겼다. 담배 냄새가 향기롭다. 몽환계를 쓰는 것 같다. 점점 의식이 흐려진다. 쌍방 과실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 같다. 가입한 보험사가 어딘지 순간 잊어버렸다. 몸이 서서히 굳어간다. 담배 연기는 이미 폐 속 파리마다 가득 찼다. 몽환의 물질을 제거할 해독제가 필요했다. 여자의 작은 입술에서 내 뿜어져 나오는 담배연기가 참 맛있어 보인다. 내 주머니를 뒤진다. 담뱃갑이 만져지지 않는다. 점점 손이 마비되면서 여자의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만 쳐다본다. 숨이 막히고 정신이 몽롱해진

다. 내 차에서 경적소리가 환청으로 들린다. 다 핀 담배가 내 앞으로 떨어진다. 하이힐로 비벼 끄는 여자의 곱게 뺨은 다리가 내 사타구니 쪽으로 향한다. 피해설 수가 없을 정도로 마비된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여자의 입술에서 자랑하듯 거만하게 타오르던 담배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짓이겨졌다.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신작 시 **화천에서 연천까지** 최장락

두 아들 입대한 4월과 7월
모두 비가 내렸다.
훈련소 들어가는 우산 속 아들의 얼굴
그늘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군인으로 빛날 얼굴을
먼발치에서 더듬어 본다.

강원도 인제에서
경기도 연천에서

생의 한 부분 조국의 아들로
살아갈 고귀한 유전자들

경기도 파주 금성리

그 푸른 내 젊음과

강원도 화천군

아버지의 청춘이

아직도 분단의 슬픈 강물 위를


소금쟁이처럼 맴돌고 있다.

최장락 포항에서 태어나 울산에서 성장하고 1999년 『문학세계』로 등단하였다. 한 국작가회의 회원, 울산작가회의 이사, 울산매일신문사에 근무하였다. 시집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늘집』 등이 있다.



제6회 울산작가상 김시민 아동문학가

- 수상 작품집 : 『아빠 얼굴이 더 빨갛다』
- 심사위원 : 조숙(시인), 이규원(시인), 김이삭(시인, 아동문학가)
- 발표지 : 『울산작가』 12호(2011년)

 **자선 대표詩 책 속에 사는 할머니** 김시민

옛날이야기 책 속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지금도 저 산 너머 마을에
행복하게 살고계신대요


그 할머니 보고 싶어
“토요일에 할머니 뵈러 가요!”
줄랐더니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내 기다리던 토요일이
내일인데
아빠는 아무 말이 없어
아빠에게 여쭙었어요

“내일 할머니 만나러 가지요?”
“그럼
그런데 오늘 전화 드렸더니
서울 아들 집에 가셨대
몸이 불편하시다 는데 …… ”

말꼬리를 감추며 걱정하는 아빠를 보며
할머니 걱정애 눈물이 나
옛날이야기
다시 펴 읽는 밤,

그래도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 보며
한결 마음이 놓이는 밤이었어요

 **신작 시** **눈물 맛** 김시민

소금에 절인 배춧잎같이 숨죽은 나를 엄마가 요리한다

양푼이에 가득 푼 고춧가루 같은 빨간 얼굴로,
짜디짠 멸치액젓 새우젓 입안 가득 머금은 듯한
두 눈 사이의 주름살,

아리고 매운 생강 마늘같이
톡 쏘는 말을 엄마가 비비고 버무리면

찜끔 한 방울의 눈물이 내 눈에 맺히는데,

그래도 엄마는 심심하고 멍멍한지
살살 고개를 저으며 혀끝을 톡톡 차고
갈갈한 까나리액젓 같은 눈총을 넣으며

나를 휘젓는다

나는 코끝이 얼얼해지며 이내 붉은 눈물을 쏟아 내는데
내 눈물 맛을 보는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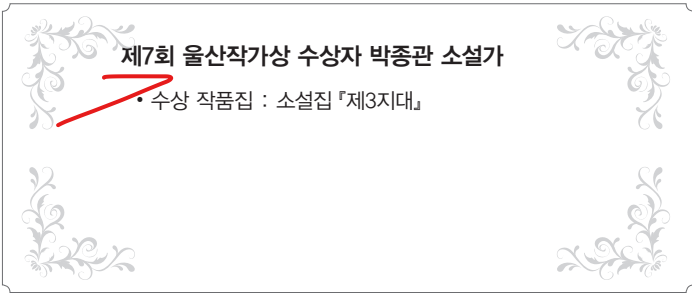
간이 너무 세었을까
엄마는 얼른 설탕과 매실청, 참깨를 솔솔 뿌리며
풀 죽은 나를 토닥토닥 재우고 달래며 긴 요리를 마무리하고

나도 내 불을 타고 내린 눈물을 살짝 짝어 맛을 본다

아, 짜다

김시민 경남 합천에 있는 황매산 자락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채집과 농사일하며 보냈다. 자연 속의 생명들과 함께 지냈던 경험 덕분에 부산MBC 아동문학 대상을 받게 되었고 동시 쓰는 일을 시작했다. 제6회 서덕출 문학상을 받았으며, 2020년 아르고 창작기금을 수혜했다. 지금은 어린이들과 함께 글 쓰고 책 읽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동시집 『아빠 얼굴이 더 빨강다』, 『자동차 아래 고양이』, 『별표 다섯 개』, 『공부 뷔페』, 『엄마를 딱 마주쳤다』, 『금메달이 뜬다』, 『교문 앞이 환하다』 등이 있다.





☞ 당시 신문보도 자료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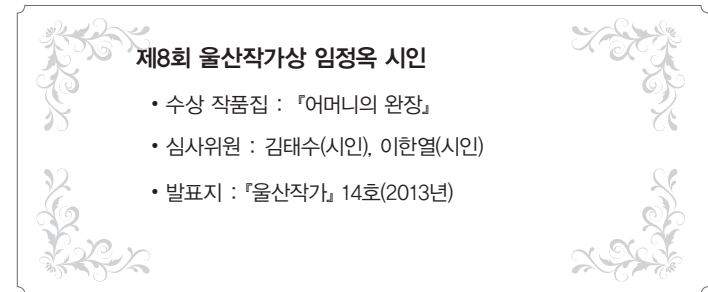
수상작 「제3지대」는 자살미수자, 장의사, 탈북자, 베트남 결혼여성, 농민, 불법 체류자, 치매노인, 청부업자 등 온갖 하류 인생들이 연출하는 ‘조난자의 삶’을 기꺼이 껴안으면서 자기 앞의 생과 사의 문제라는 존재론의 영역을 관계론적으로 사유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을 통해 “작가가 살아가면서 만난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생의 운명과 하류 인생, 죽음에 대한 성찰 등을 흥미롭게 풀어냈다”라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문학에 대한 진정성과 삶의 깊이를 더욱 깊게 사유할 수 있게 만든 소설 집이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신작 소설은 <울산 작가 신작 소설>에 있습니다.

박종관 충북 충주 출생으로, 1993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첫 소설집 『길은 살아있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2006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었다. 단편소설 「생의 조건」이 2007년 ‘문예지 게재 우수문학작품’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제3지대』로 통영문학상(김용익 소

설문학상) 소설부분을 수상하였다. 한국작가회의 및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울산소설가협회 회장(2010~2012년), 울산작가회의 회장(2014~2015)을 지냈다. 《소설21세기》와 《소설뒤편》 동인, 성인 고등학교 국악교사로 활동하였다. 작품집 『길은 살아있다』, 『제3지대』 등이 있다.



자선 대표詩 **어머니의 완장** 임정옥

종갓집 맘머느리로 평생 시집살이하신 내 어머니, 햇볕 좋은 날이면 별도 아깝다며 훌쩍 뜬어 이불 빨래하셨다

폭폭 삶아 뺏뺏하게 풀 먹이고 자근자근 밟아 다듬이질해 놓고 짜리나무잎이 노랗게 물드는 앞산 바라보며 외가에서 배워온 찬송가 낮게 부르셨다

아이는 행여 불심 깊은 할머니 들으실까 안채 대문에 귀 대고 서

서 어머니 노래 끝나길 콩닥콩닥 뛰는 가슴으로 기다리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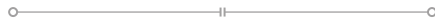
기왓가루 묻혀가며 반질반질 닦은 돛그릇 그 빛이 서산에 걸린 놀
빛보다 고와지면 널모레 제사에 아버지 오신다고 어린 손가락 접어
가며 좋아했다

웃자란 봄이 성급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남루해져 흰옷을 꺼입는
동안 하루 세 끼 불 피워 눈물 밥 지어내던 어머니 시집가는 막내딸
에게 전기밥솥 먼저 사주셨다

그 아이 두 아이의 어미가 되고 떠나보내는 일이 더 익숙해진 나
이 되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어머니에게서 내 팔로 옮겨진

낮익은 완장

임정옥 1958년 경남 양산 출생으로 2003년 《시사사》로 등단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 고래를 사랑하는 시인들 회원, son art gallery 회원으로 활동했다.



제9회 울산작가상 성환희 시인

- 수상 작품집 : 『궁금한 길』
- 심사위원 : 우덕상(동시인), 김시민(동시인), 김이삭(동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제16호 (2014년)

 자선 대표 동시 **담배 연기** 성환희

농협 입구 화단 앞
오늘도 어김없이
뱀들이 출몰했다

쉬익 쇠
혀를 낼름거린다

내 코를 노리고 있다

나는, 손가락으로 코를 짹고 뺏다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도
길 건너 골목길에도
뱀들이 우글거린다

거리에

금연 표지판 가로수를 심으면 좋겠다

마음 놓고 숨 좀 쉬고 싶다

 신작 시 **고양이 말 좀 배워라, 야옹** 성환희

나는 고양이

네 마음만 훔치는 도둑고양이

예뻐 어머머 예뻐

저 고고한 표정 좀 봐

애애, 가만 있어 멋지게 찍어 줄게...

나는 고양이 배 고프 고양이

나에게 필요한 건

네 마음이 아니야

넌 언제나 네 맘대로 날 사랑해

내 마음 몰라 관심도 없어


먹을 것 좀 달라는데 언제나 판청이야

기막혀! 울고 있는 나보고 섹시하대

성환희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으며 2000년 《문학세계》 시, 2002년 《아동문예》 동시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제4회 청림문학상, 제9회 울산작가상, 제10회 울산아동문학상, 제1회 농어촌 디카시 공모전 등을 수상했다. 첫 동시집 『궁금한 길』이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었고, 제9회 울산작가상을 받았다. 시집 『인기 많은 나』, 『행복은 라면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너라는 책』, 『바람에 찢리다』, 『저 혼자 피는 아이』, 등을 출간했다.

제10회 울산작가상 김이삭 아동문학가

- 수상 작품집 : 『고양이 통역사』
- 심사위원 :**
- 발표지 : 『울산작가』 제18호 (2015년)


 자선 대표 동시 **우리 동네 문제아들** 김이삭

골목대장이 된 바람 따라

온 동네 휩쓸고 다니는

우리 동네 문제아들

비닐봉지
신문지
음료수
캔

 신작 시 **구름 당나귀** 김이삭

다그닥다그닥
하얀 구름 떼가 달린다.

고양이구름
기린구름
사자구름
구름 떼 신났다.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

우르릉 광!
방금 따라서 온
번개구름도 뒤따른다.

다그닥다그닥
당근밭에서 놀던
당나귀구름도 달리고
나도 따라 달린다.

김이삭 1967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으며, 2005년 『시와 시학』에 시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8년 『경남신문』과 2010년 『기독교신문』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었다. 동시에 제9회 『푸른 문학상』을 받았고, <어린이와 문학>에 추천되었다. 2011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을 받았고, 동시집과 동화집이 <세종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었다. 제10회 울산작가상, 제13회 우리나라좋은동시문학상, 제5회 시와 창작 문학상, 제3회 울산아동문학상을 받았다. 서울문화재단과 아르코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동시집 『바다 탐험대』 『바이킹 식당』 『고양이 통역사』 『여우비 도둑비』, 『길 고양이 릴리 아가씨』, 청소년시집 『마법의 샤프』 등이 있다.



제11회 울산작가상 이숙희 시인

- 수상 작품집 : 『옥수수밭 옆집』
- 심사위원 : 소래섭(문학박사), 이규원(시인), 임윤(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제20호 (2016년)



사람들이 살아 간다를 말할 때
 인간 외에 모든 것은 배제된다.
 양은 그릇에 먹다 남은
 비스킷을 두고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
 개미떼가 그릇을 덮고 있다.
 끄찍함이 자식 등판을
 빨고 있는 거머리 떼를
 보는 것 같다.
 천도쯤 끓인 물을 양은 그릇에
 핵폭탄 터트리듯
 투하하고
 온몸을 타고 오르는
 스멀거림 때문에
 수천의 생명을 죽이고
 공포감에 살았다.
 옥수수밭 촌집의 낭만은
 죽임도 태연해야 살 수 있다.



아들은 셀쪽해서
 방문을 닫아걸고
 다시는 문 열지 않을 것처럼
 등을 보인다

창밖 황매화 꽃잎은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현관에 팽개쳐진 운동화는
 뒤축이 구겨진 채
 나뒹굴고 있다

저놈이 질투 때문인가.
 벽찬 사회생활 때문인가.
 부족함을 깨닫는
 열등감 때문인가

아버지는 핸드폰을 들고
 아들 방 앞에서 서성이다
 빨래 비누와 칫솔을 챙기고
 분풀이로 내팽개쳐진
 운동화 끈을 푼다.

이숙희 경주에서 출생하여 울산에서 성장하였다. 1986년 <한국여성시> 등에 시 발표로 등단했으며, 울산에서 김종원, 안성길, 이광희, 류윤모 시인 등과 1987년부터 <신시대의 시> 동인을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한국 작가회의, 울산작가회의 회원이다. 2015년에 제11회 울산작가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 <울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다. 공예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시집 『옥수수밭 옆집』, 『바라보다』, 『마가렛』, 『비워진 집』, 『검은 트랙 위 청개구리』 등이 있다.



제12회 울산작가상 조속향 시인

- 수상 작품집 : 『도둑 고양이 되기』
- 심사위원 : 소래섭(문학박사), 이한열(시인), 김시민(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22호(2017년)

대표詩 **젓빛 두루미가 섰던 자리** 조속향

1
 발목 감아 도는 물살을 딛고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섰던 젓빛 두루미 한 마리

가끔 그 자리에서 물살을 휘저으며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다가, 후두둑

강물을 감싸듯 차오르던 날갯짓을 본 적이 있는데

두루미가 섰던 그 자리
 거센 황톳물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한 마리 두루미가 되어
 강물을 오래오래 굽어보고 있는 것이다


2
 마흔일곱 해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버린 강가에서
 두루미의 긴 목을 빼고서야 나는
 마흔일곱 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먼 길 떠난 아버지를 본다

그해 나는, 황톳물 보다 붉은 가난에 밀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떠다녔는데
 긴 목을 빼고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기별 없는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시기만 했었는데

강물의 흐름을 찬찬히 읽게 된 이즈메야 그 모습이
 어른어른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살았던 시간보다 나를 더 오래 살게 하는 강물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대표詩 **목성을 찾아다니다** 조숙향

물빛 감도는 강둑에
천체망원경을 설치한다
물의 흔들림 때문일까 자꾸 초점을 놓친다

내 정신은 때로 지쳐
망원경 속에서 쉬기도 하지만
목성의 줄무늬 빛을 찾기까지는
이 지독한 불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아이피스 배율을 조정하자
목성이 먼저 걸어와 신기한 빛으로 응답한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데도
지상의 필라멘트 빛보다 왜소해 보인다

태양계의 서열을
빛의 서열로 풀이해 왔던
내 마음의 검은 무늬를 본다

빛의 서열은
내 열등의식일 뿐이라고
나는 천체망원경을 옆으로 밀쳐두고
가까운 하늘에 떠 있는 행성을 바라본다

어쩌면 목성은
흔탁한 우주 가스를 제 몸에 받아들여
붉은갈색 줄무늬빛을 마음에 그렸는지 모른다

목성을 찾아다니다 문득, 나는
빛에 반응하는 내 안의 어둠을 본다

조숙향 강릉 자조와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스무 살쯤 강릉을 떠났고, 울산에서 살면서 독서 교육하였다. 제12회 울산작가상을 받았다. 2003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시집 『도둑고양이 되기』, 『오늘의 지층』과 동인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등이 있다. 2024년 11월 지상을 떠났다.



제13회 울산작가상 강현숙 시인

- 수상 작품집 : 『물 속에 비치는 집』 등
- 심사위원 : 문영(시인, 비평가), 조숙(시인), 김이삭
(아동문학가), 이규원(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제24호 (2017년)



대표 수상작 **물 속에 비치는 집** 강현숙

거리의 정물화처럼 서 있을 것,
 가끔 말을 한다
 정체성 잃은 꽃들처럼,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볼에 홍조를 띠며
 짝 별리지 않은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너는
 밤에만, 불빛이 드는 나무 아래
 청동 조각처럼 비치고,
 너의 말들은
 비석에 새긴 글귀처럼 이미 무심하다
 움직이지 않는 말들이
 떠날 수 없이 묶인 발이
 어차피 어디를 떠나고 돌아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무를 바라보는데
 땅이 나를 붙들고 나는 잠시 흔들릴 수 있을 뿐
 갈 수 있다면 멀리 떠난다는 것이고
 돌아올 수 있다면 역시 여기이겠지만
 애초 자취는 없는 이곳,
 어제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누가 어디로 떠난다 하더라도
 물속 비친 집처럼, 그림자처럼

안녕이란 인사를 나누진 않을 것, 그렇게 오래
 살던 집과 흐르는 불과 물 속
 비치는 집, 거꾸로 매달린 창문 아래에서
 영원히 길을 떠나는 체위로 길을 잃어버린 체위를 말하고
 솟구치던 목을 떨구겠다
 꿈속 동강 난 집이 물에 떨어지더라도
 꿈같은 혼란쯤이야 일상처럼 지나가는 것을 그리하여
 나는 믿는다, 늘,
 땅속 뿌리를 내리고 떠난 적도 없으며 거기에서 꿈을 꾸며
 별다른 기대도 없이 눈을 뜨면
 아침에 떠 있는 멀건 낫달이 내려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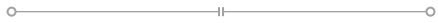


신작시 **사물의 시간** 강현숙

사물에 눈을 뜬다면
 사물이 온다
 사물이 미리 와 나를 기다린다
 내가 사물을 낯설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거리에 이미 와 있다
 사과 한 알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미리 와
 수천의 방법으로 있다
 길 위 사과 한 알이 무연하게 있다

사과의 바닥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세계로부터 걸어 올린
사과의 여러 방법이다

강현숙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자랐다. 부산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울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시안』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변방> 시동인으로 활동중이다. 시집으로 『물소의 춤』 등이 있다.



제14회 울산작가상 송은숙 시인

- 수상 작품집 : 『얼음의 역사』
- 심사위원 : 김경복(문학평론가, 경남대학교 교수) /
예심 _임윤(시인), 강현숙(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제26호(2018년)

 대표詩 **죽은 새를** 송은숙

죽은 새를 가방에 넣고 다닌 적이 있지
죽은 제비를, 미끈한 검은 날개와
고요히 감긴 눈꺼풀을
궁륭 같은 늑골을
왜 그랬는지 몰라

버려두기엔 너무 작고 가벼웠을까
애처로운 울음을 환청처럼 듣고
햇살 잘 드는 한 뼉 땅을 찾으려 했을 거야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던져버렸지
해를 향해 날아가던 새는
한 줌 재가 되어 부서졌네

매일매일 만나는 수많은, 수많은
날개 찢긴 잠자리
다리가 모두 꺾인 풍뎅이
반쯤 파 먹힌 곤충박이
개구리와 쥐와 잠든 것처럼 누워있는
꼬리를 잃어버린 얼룩 고양이와
꽃잎처럼 스스로를 장사 지내지 못하는 것들
도르르 제 몸을 말지 못하는 것들엔
개미와 구더기가 들끓지
부지런히 자르고 저미는 동안
움찔움찔, 마치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지
바람까지 싹싹 혀를 핥는 만족한 식사가 끝나면
진초록 갑옷의 날개 한 장 남았네
나는 그걸 갖고 싶었어
이빨을 박을 수 없는 강철로 된 무지개를



신작시 다섯 개의 손잡이가 달린 문 송은숙

외투 단추를 차례차례 풀다가, 십 년 전인가
김범준 작가의 개인전에서 본 손잡이 다섯 개가 달린 문이 떠올
랐다

세로로 나란히 매달린 다섯 개의 둥근 손잡이는 한꺼번에 돌려야
열린다고 했다

임종 자리에서 넘겨준 하나의, 둘의, 셋의, 그리고 다섯 개에서 비
로소 부러지지 않는 회초리 이야기처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전언이지만
그보다 호기심이 앞서서 다섯 명의 친구를 불러와
열려라 참깨, 하며 정말 열어보고 싶었던 문

이제는 다섯 개의 단추를 풀다가 갑자기
다섯 중에 누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는 걱정
아프거나, 버스가 늦게 오거나, 재수 없게 맨홀에 빠지거나

문 앞의 네 사람은 머리를 맞댈 것이다
양손을 이용해 봐
누군가는 왼손을 오른쪽으로 힘껏 비틀며
아하, 그래도 세 명이 필요해
운이 나쁜 날 두 명이 모여 문 앞에 망연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

린다

그럴 리가 없다, 문을 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늘 넘쳐난다
손잡이를 향해 뻗은 손은 유월의 덩굴손처럼 절박하다
검은 손, 흰 손, 큰 손, 작은 손, 검버섯이 핀 손
손잡이가 다섯 개가 아니라 열 개라도
필사적이다 뱃전에 매달린 보트 피플의 손처럼
소금에 절여진 어느 날이 빨랫줄의 오징어처럼 매달려있다
검은 눈물을 흘리며

저 문 뒤에도 손잡이가 있다
다섯 개의 여윈 손들이 오십 개의 손가락들이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 잔털이 부송부송 난 손, 거친 손, 부드
러운 손, 손톱 밑이 까만 손, 돌처럼 단단한 손
유월의 덩굴손처럼 절박하게
뱃전에 매달린 보트 피플처럼 필사적으로
마침내 문이 열리고 스무 개의 눈이, 서른 개의 눈이, 마흔 개의
눈이
대낮에 켜진 서치라이트처럼 어리둥절해서, 백 개의 눈이
다섯 개의 손잡이가 달린 문 앞에서

송은숙 대전에서 태어나 2004년 《시사사》 신인상을, 2017년 《시에》 수필 부문에 등
단하였다. 시집 『돌 속의 물고기』, 『얼음의 역사』, 『만 개의 손을 흔들다』, 『열두
개의 심장이 있다』 등이 있고, 산문집 『골목은 둥글다』, 『십일월』 등이 있다.



제15회 울산작가상 도순태 시인

- 수상 작품집 : 『난쟁이 행성』
- 심사위원 : 양문규(시인, 문학박사)
예심_임윤(시인), 강현숙(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제28호(2019년)



대표 수상작 장엄한 비행 도순태

4대가 대를 이어 4500km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비의 일생이 있다
 모나코호랑나비의 긴 여정이 그렇다면
 암 병동 702호에 누운 저 노인의 마지막도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호랑나비다
 그의 날개는 이마의 굽은 주름으로 잡혔지만
 초점 잃은 눈을 껌벅, 껌벅거릴 때마다
 종이처럼 구겨진 몸 종이비행기처럼 접어서
 서서히 노인의 영혼을 날게 한다
 노인이 정신의 날개를 접은 지 오래다
 유언처럼 웅얼거렸던 기억의 마지막은
 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젓날뿐이었지만
 그건 가족사가 날아온 거리마다 세워진

등불 같은 이정표여서, 거기서 부터
 모나코호랑나비는 돌아갈 숲이 있고
 노인은 다시 날아가야 할 처음이 있는 것이다
 비록 숨 쉬는 고통의 육신이 여기 남아 있어도
 이미 다른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노인의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워질 노인의 이정표에
 이륙의 등불이 환하게 켜질 것이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저 편대비행
 모나코호랑나비도 노인도
 존재의 이유에 풀리지 않는 답을 찾기 위해
 지금, 장엄하게 날아가고 있다



신작 시 오후의 시간 도순태

가끔 우연에서 정신이 잠시 흐려질 때
 기억이 먼저 움직인다

 창 너머 여름이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고
 뜨겁고 소란한 오후를 내려놓는다

 언제나 오후가 길어서

얼굴이 곱치고 어깨가 이어졌다
모달리아니 그림처럼 목이 길었던 너
빛의 방향 따라 우아한 슬픔으로 보였던,
유연한 푸른색이 투명하게
서 있던 시간

포장된 그 오후가, 왔다

너를 알아본 순간

나는 그림의 유려한 목선을 보았고
아주 오래된 시간의 안쪽을 생각했다

오후가 우수와 고요의 감정이라면
너의 내면은 신비롭게 붉었는지도

눈이 흔들리고 목과 얼굴의 비례가
조금씩 길어지는 순간
아무 말이 필요 없었는지도

오후를 사는 일
이 시간을 함께 통과하는 일

내밀한 마음이 간결해지는 우리

도순태 2009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으로 등단하였으며 《봄시》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시집으로 『난쟁이 행성』이 있다.

○—————||—————○

제16회 울산작가상 이한열 시인


- 수상 작품집 : 『아내는 아직도 흥정하고 있다』
- 심사위원 : 공광규(시인)
 예심_임윤(시인), 강현숙(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제5호 2006년

 **자선 대표詩** **너무나 추상적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한열

콩깍지나 흑싸리 쪽정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실상이
비로소 드러난다
달빛이 그물처럼 얹는 호수,
나르시스의 일렁이는 허상에 빠져
허우적거린 것이다
새장 안에 갇힌 새인 줄도 모르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착각이 비웃는 것이다
절망의 늪이 깊어 갈수록
내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버리지 같은,
일회용 욕망에 파닥거리는
하루살이 나르시시스트
그림자 하나 찾아오지 않는
식물인간처럼 죽어가는 시간이,
우주를 억누르는 철학 같은 초조함이
나를 되돌아본다.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 동물적인 삭신을 이끌고 왔다
새장 안의 내가
바람을 느끼고 햇살로 눈을 떴을 때
X-Ray 사진 속에 으깨어진
내 뼈가 드러난다
한 치 앞의 허방도 모르고
대책 없이 살아온 취기가,
속이 비어 있음을 허울로 채우려는
빈 감정 같은 허우대가,
아무에게나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서 폰짜리 과시욕이

너무나 추상적이었다는 걸
그리고 아무 것도 아니었다는 걸

 신작 시 **탈옥을 꿈꾼다** 이한열

목을 조여 오는
도시로부터 밤마다 탈출하는 꿈을 꾸다

밤 열차를 탄다
종착역 없는 편도 광속열차를 탄다
목적지는 망각의 우주 블랙홀
칼바람 부는
사람의 향기 사라진 삶에서 탈출 시도한다

어제를 잊은 열차의 장막
낮익은 불편한 군상들이 쉽게 지워진다
내가 걸쳤던 누더기 편력
목을 매던 비굴한 자리도 말끔히 잊어버린다
발길 닿는 대로 이어지던
속셈이 스민
연緣이라는 포장된 갈고리 가볍게 끊어진다
미소로 포장한

거미줄에 칭칭 묶여 있는 먹이사슬도 증발한다

깨닫지 못한 과오가 차창에 비처럼 스쳐간다
가식으로 차려입은 마음 속 수의를 벗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벽찬 희열의 물결이 사유의 화폭에 넘실거린다

자유를 갈망하는 열차 궤도 따라 유성처럼 흐른다
탈옥의 설렘 태우고 미리내 건넌다
죽쇄 채우던 도시로부터
죄 없는 죄 걸쳐 입은
탈옥수 태운 망각열차는 마침내 블랙홀로 진입한다

이한열 마산 출신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중삼 시의 죽음 의식에 관한 연구』이 있다. 1997년 《시와 시론》으로 등단했다. 시집 『사랑이란 함께 낯선 풍경을 바라보는 일이다』, 『누구나 한 편의 영화를 품고 산다』, 『아내는 아직도 흥정하고 있다』 등이 있다. 울산국어교육연구회 창립 및 연구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작가회의 이사, 울산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작가회의, 울산작가회의 회원으로 울산무거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후 노인상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의 자서전 집필을 돕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17회 울산작가상 광구영 시인

- 수상 작품집 : 『그러나 아무 일 없이 평온한』
- 심사위원 : 유홍준(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올해의 대표작』(2021년)

 **자선 대표작** **칫솔통엔 칫솔이 두 개 있지** 광구영

일테면 외출한 때 꼭 서너 걸음 앞서 걷는다느니
명절이나 기일때 때 고향 가면 시어머니 편만 든다느니
아파트 단지 이웃 여자들에게 너무 공손하다느니
아내와 사소한 일로 가끔 다투는데
이런저런 시시결령한 투정이 끝내 싸움이 되고
에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 이제 따로 살자 하다
배고파지니 싸움도 기운이 있어야 한다며
밥 몇 숟갈 함께 뜨고 양치하려 칫솔 꺼내는데
오모모, 콜럼버스 신대륙을 본 듯 아내는 놀라는데
한통속 두 칫솔이 붉고 푸른 몸 세우고 하나처럼 서 있다
아내 것과 내 것이 붙어 입은 맞추고 있다

주름진 사랑도 엉뚱한 속, 가끔은 꽃이 되는가
둘이 하얀 꽃거품 물고 뜨겁게 바라보는 중이다

 신작 시 **너의 권리** 광구영

너는,

머리를 맡긴 부부 이발소에서 줄임에 들 권리가 있고
재래시장 한켠, 시래깃국과 막걸리를 즐길 권리가 있다

너는,

하얀 오메가에 산 몸을 엮고 질 좋은 커피를 마실 권리가 있고
누오란 떡가래를 하릴없이 내려 보며 끽끔 앓을 권리가 있다

빠에서 낫선 이와 입술에 와인을 적실 권리가 있고
먹고 뱉히는 눈흘래를 할 권리가 있다

너는,

이별에 취해 운전할 권리는 없지만 아아, 있을 수 있고
후우~후우 알코스캔*으로 면취의 당연한 권리가 있다

너는,

박수근의 여자를 볼 권리가 있다
고무신 신고 물동이를 인 아낙,
적삼 밑으로 빠져나온 오디 알을 탐해 볼 권리가 있다

너는,

꽃무릇처럼 어이없는 세월에 기댈 권리가 있고
푸른 그를 두고두고 아끼고 밍고 우러릴 권리가 있다

너는,

그를 위해 노래를 배워 두어야 할 권리가 있고
정작 그의 요청에 한 줄 노래도 어려울 권리가 있다
그의 목소리만 들으면 사금파리 위의 햇살처럼
챙챙 눈이 부시고 콩당거릴 권리가 있다

너는,

그의 목언이나 무심에 어두울 권리가 있다
때론 아무렇지도 않다는 자세로 피식 웃을,
웃지 못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다랑쉬 오름 같은 가슴 저მ,

아,

너는 문득 모든 경계의 밖이고 싶을 권리가 있다
날개도 없으면서 허공에서 공허한,
보리쌀만 한 호랑거미가 될 권리가 있다

어느 날, 그가 테줄의 영양을 없애면,

너는,

금방 수직으로 떨어져 흔적 없을 권리도 있다

*음주측정기

곽구영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다. 1974년 《현대시학》 등에 시를 발표 후, 35년여 절필했다가 2008년 《열린 시학》으로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열린시학상〉을, 2020년 제17회 울산작가상을 받았다. 시집으로 『그러나 아무 일 없이 평온한』, 『햇살 속에서 오줌 누는 일이 이토록 즐겁다니』, 『가을 계수나무 앞에서 달고나 냄새를 듣다』 등이 있다.



제18회 울산작가상 손인식 시인

- 수상 작품집 : 『갈대꽃』(2018, 푸른고래) 등
~~(심사위원:)~~
- 발표지 : 『울산작가 올해의 대표작』(2022년)

 대표 수상작 **여나산곡** 餘那山曲 손인식

입암 망성 중리 지지 지나
못다 이룬 사랑 찾아 가파른 산길
아으 어디 있을까 나의 여나산 餘那山은

서석곡에서 은편으로 으스름 달빛 도와

곱디고운 그녀 찾아 힘든 줄 모르고
꿈에서나 그랬던 그의 집 찾아가는 길

잊지 못해 이제나저제나
석 삼 년을 견디고 또 봄이 되어도
부역 갔다 했지만 답답 혼담은 오가고
아으 어찌란 말이나 어찌란 말이나

•
치마끈 불끈 잡은 그녀 부동켜안고
꿈이런가 마당에는 관솔불 밝다
사흘 밤낮 은편 하늘 미친 듯 떠돌며
만날 때마다 불렀던 그 노래
서석곡에서 아부레미까지 걷고 또 걷고

 대표 수상작 **하얀 오월** 손인식

하마 어떤 조짐이 있었지
어두워지게 어여 집에 가자 이잉?
엄마 말씀 마다하고
시민들 폭도로 만들 순 없어
충기 반납
긴 굴 빠져나가기 어찌 이리 더덜까

두 주먹 불끈, 다짐을 놓고
기다린다 모두

아직도 어둔 새벽녘
크르릉 멀리 서울 가는 기차가
번쩍 우르릉 광 멩해진 순간 고약한
냄새 끈적끈적한, 쿨럭쿨럭
어머니 어머니
하얀 이팝꽃 지천이네

밤새 뒤척뒤척 눈 뜬 아침
사십 년 몸에 박혀 옥신옥신
해묵은 탄흔
눈앞에서 총 맞고 쓰러진 그
광수로 명명되어
가족도 시신도 무덤도 없고
혼자 살아남아 부끄러운 시민군 김 씨
그날 그 자리 막걸리로 음복한다
아픈 마음 삼키듯 눈을 감고
제발 있는 그대로 좀 보쇼 속 뒤집덜랑 말고요 잉
전남도청 전일빌딩 금남로여
아아 하얀 그날의 오월
이팝꽃 피면

이팝꽃 피면

손인식 1990년 《충무문학》, 1999년 《울산작가》에 작품발표하며 활동하였다.
2005년 《시사사》 신인상을 받았고 《봄시》동인을 하였고, 초등학교 교사로
복무하면서 '바른 가르침'이 몸에 밴 사람으로 퇴직하였고 2022년 10월 이
승을 떠났다. 시집 『갈대꽃』이 있다.



제19회 울산작가상 정성희 시인

- 수상 작품집 : 『사라진 말씀들』
- 심사위원 : 문영(평론가)
- 발표지 : 『울산작가』36호(2023년 겨울)

자선 대표詩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성희

신발 속에 발을 집어넣는 순간
튀어 오르는 귀뚜라미 한 마리
서로 피하려 하다가 밟았고 밟혔다

나는 가해자가 되었고
귀뚜라미는 피해자가 되었다

한 죽음이 내 발바닥에 깔려 있다
송곳 끝에 선 것같이 심장이 조여 온다

밟지 않으려고
발가락 끝으로 비틀비틀 댄 나
밟히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팔딱팔딱 댄 귀뚜라미

밟은 것도
밟힌 것도
찰나였다

피비린내가 나를 옥 졌다
이 기억 희미해질 때까지
구슬픈 가을 울음 하나 영겨
나를 훑고 비틀겠다

 신작 시 **꽃을 세수시키다** 정성희

길게도 추웠던 시간을 기다렸을
흉살을 열고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을
가늠하기란

꽃이 입을 열고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돌아서서 보니
꽃들이 거름을 뒤집어쓰고 흙이 튀어
꼬질꼬질 웃는다
첫걸음마 댄 아가가
보드라운 대로 보드라워진 봄 흙을
만지작거리다가 얼굴을 부빈 듯
아가,
목욕하자. 세수시켜 줄게
꽃이 놀라지 않게 아프지 않게
물조리로 살살 꽃을 씻겼다
꽃이 콧구멍으로 물풍선 불며
배시시 웃는다

폐경한 지가 언젠데 젖이 불어 아프다

정성희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2005년 《모던포엠》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 6인 동인지 『한 그루 나무를 심다』, 『궁궁이』 등이 있다. 현재 <비익조> 동인과 울산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사라진 말썽들』이 있다.



제20회 울산작가상 나정옥 시인

- 수상 작품집 : 『얼룩진 유전자』
- 심사위원 : 이한열(시인), 서경(시인), 이태영(시인)
- 발표지 : 『울산작가』 40호(2025년 겨울호)



수상 대표詩 **니체에게 묻는다** 나정옥

가족이 뭐냐고
형제가 뭐냐고 형제 중에 동생
동생 중에 여동생이 뭐냐고
사랑에 취약한 니체에게 묻는다
연애가 뭐냐고
철학도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랑이 뭐냐고
사랑에 빠져 사랑에서 헤어 나오는 것이 사랑이냐고
사랑에 빠져 사랑에 익숙하는 것이 사랑이냐고
평생을 경계했던 동정에 빠져 익숙한 니체에게 묻는다
동정은 사랑이냐고
동정은 사랑이 아니냐고
사랑에 빠진 철학자 니체에게 묻는다
사랑하여 미친 당신은 행복하냐고

미친 당신이 그리운 밤 니체에게 묻는다
당신이 사랑한 별은 그 밤의 어떤 별이었느냐고



신작 시 **노래야 먼지야 모래야** 나정옥

모래밭에 발자국이 없으면 모래밭이 아니듯이
먼지에 붙은 기침이 없으면 먼지가 아니듯이
노래에는 모두 먼지와 모래가 묻어 있다

사막이 모래밭인 것은 모래에 찍힌 발자국 때문이며
모래가 먼지가 될 때까지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모래에 묻은 입김 때문이며 먼지에 묻은 기침 때문이며

노래가 노래일 수 있는 것은
먼지가 먼지일 수 있는 것은
모래가 모래일 수 있는 것은
모래밭에 찍힌 누구의 발자국 때문이다

먼지에 묻은 누구의 기침 때문이며
노래를 타고 나온 누구의 입김 때문이다
노래와 먼지와 모래와 함께 살아온 누구의 발자국 때문에
모래와 먼지가 외롭지 않다

>

노래와 함께한 발자국이 여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나정욱 1990년 《한민족문학》 창간호에 「실습시간」 외 2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 시작. 한국작가회의, 울산작가회의, 울산민예총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시집 『머칠 전에 써 두었던 내 문장에서 힘을 얻는다』, 『눈물 너머에 시(詩)의 바다가 있다』, 『라퐁젤 젤리점에서의 아내와의 대화』, 『얼룩진 유전자』 『노래야 먼지야 모래야』 등을 출간했다. 제20회 울산작가상(2025)을 수상했다.



가을 계수나무 앞에서 달고나 냄새를 듣다

곽구영 시집



울산광역시 · 울산문화재단
2025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선정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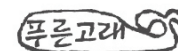
이 시들은 글로 쓰여졌지만 구연口演에 가깝다. 입말로 풀어내는 현대판 사설辭說인가 싶다. '아니리'는 마침표가 없다. 삶이 끝날 때까지 꾸역꾸역 만연체로 이어진다. 한 편 한편 독립된 시이지만 전체를 주-욱 읽어봐야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로 꿰어진다. 인생의 비애를 풀어내는 애간장 끓이는 백발가인가 했는데, 유장한 장강처럼 삶을 관조하는 태세로 전환하더니, 낭만적이지도 않고 풀때죽 같은 남여상렬지사가 질펀하다가, 동심이 겨워 해탈대는 의성어가 난전을 이루면서, 눈물 콧물 쥐어짜는 무성영화 번사의 신파조구변이 현란하더니, 곡절 많은 인생사 해거름 주막에 짐 부러놓고 거나하게 풀어내는 만행청蔓橫淸인가 한다. 그래서 이 시집은 눈으로만 읽어서는 시큰둥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마디마디 장단을 섞어 들으면 민중적 해학과 풍자가 녹녹한 삶에 불을 지피면서 사당패가 한마당 푸지게 놀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백무산(시인)

마디마디 장단을 섞어 들으면 민중적 해학과 풍자가 녹녹한 삶에 불을 지핀다.

시인 소개 : 경남 고성 출생. 1974년 《현대시학》에 詩를 몇 편 발표 후 침잠함. 30여 년의 부산 생활을 접고 1989년 울산 이주. 2008년 《열린시학》을 통해 다시 詩를 모심. 시집 『햇살 속에서 오줌 누는 일이 이토록 즐겁다니』 『그러나 아무 일 없이 평온한』 『가을 계수나무 앞에서 달고나 냄새를 듣다』

하나도 두리도 아이고 서이서 만든 건데 / 이름이 며, 내부랄 이라 쿠던가? / 불알이고 스스고 간에 그따구 희한한 이름이 다 있겠노? // 말녀가 박 서방하고 비행기 타고 거 갔다 사 온 건데 / 내가 요거 바리몬 오래 살고 이뿌진다 하데 (『내 불알이』 부분) // *내 불알이: 라프레리(La Prairie/스위스의 화장품). 어머니는 라프레리를 내부라리(내불알이)로 발음하셨다. - '시인의 글' 중에서

2025년 11월 30일 발행 / 값 12,000원 / 46판 144쪽 / ISBN 979-11-92898-25-4



44637 울산광역시 남구 놀재로4번길 12-1, 101호
010-5594-0124 이메일 2220124@daum.net

원근가가 신작 시

강현숙 76
세계의 기본
흰 꽃
비가 내리는 나무

곽구영 80
12월의 비
노을
2005년 5월

구명자 85
숯못
돌, 그는
불의 나라

구태연 88
나이테
오래된 친구

김근태 92
귀신 고래의 회유
황혼
대륙의 봄

김윤삼 100
자맥질
「No. 27」

김종원 104
다시 그날을 기억한다
엄마에게 쓰는 편지
세계는 지금 전쟁 중

나정옥 112
시인의 초상
진실의 크기
별의 운행 속도

도순태 118
나비 숲
가은역

노효지 122
오솔길에서
아침달, 4월

서경 125
흐려지는 방
나, 는 슬픔이 없는 듯

손영순 128
삼미안
현명한 선택
작은 고추가 맵다

이규원 132
선에 대한 단상
라떼는 말이야
1급 기밀

엄하경 137
슬도의 저녁
사파* 경계 너머
별의 기원

손화람 142
거울을 보며
내 앞의 사월

송은숙 146
망해사 벚꽃
좁머 씨 풍으로

이노형 150
풍바람
해를 넘기며
꽃눈

이병길 154
해방보다 통일의 길은 더 멀었다

이수진 163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발효되는 슬픔에 대하여

이숙희 166
낙화는 설화처럼
리모컨 엄마
거절의 칼로리

이제향 170
신발
압화
머리카락

장상관 173
탈각
트럼프
빛나던 능선

이태영 176
가슴 뻥한 집
쇠뿔치와 나
실금 싹틀 때

이한열 182
붉은 마음 일천사백예순세 송이
자형화 紫荊花
노구 老狗

임윤 188
봄은 저만치 물러서서 지켜본다
미안하다

정성희 192
가면을 벗을 때는 낮은 속삭임이 흐른다
75.5도^度
하현달의 허세

임경희 197
꽃자리
밭이라는 퇴직금
햇살과 그늘

정소슬 202
안간힘을 보았다 1
안간힘을 보았다 2
GM으로 번영한 미국, GM으로 망할 것이다

조덕자 207
바닥에 드러누워
수세미를 뜨다가
너의 자리

조숙 211
검은 백팩
여행할 결심
바게트를 따라가면

조정숙 215
태화강을 읽다
바람길
초승달 눈시울

최병해 218
아프리카의 후에
있어만 쥐도 되는데

한정미 222
제로 시대
물의 잠
고양이에게 무엇을 줄까요

조유환 228
우리도 꽃들처럼
도깨비 난장
조각가가 되다

황주경 233
덕화역 2018
월래역 역전 다방
호계역, 마지막 수송책

세계의 기분 강현숙

세계의 기분이 중요했다

세계의 거울에 비치는

계절 밖에서 계절이 흐르는 슬픔을 견디다

오늘 하루 세계의 기분이 맑았다

계절 밖에서 계절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신음을 앓았다

흰 꽃 강현숙

흰 꽃이 시들어 툭 떨어진다면

아쉬워 하얀 새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흰 꽃이 툭 떨어진 자리에 다시 흰 꽃이 필 수는 없더라

다른 자리 다른 흰 꽃이 핀다는 것을 알면서

무심히 흰 꽃 떨어진 자리 흰 꽃이 다시 피어날 것처럼

무딘 착각으로 허술하게 살아가는

사계절이 돌아 다시 흰 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새로 만나게 되는 흰 꽃과 마주하게 된다면

너 또한 서러울 것인가

흰 꽃을 벗어나게 된다면

희게 내리는 안개비와

흰 돌너덜처럼

내려앉는 흰 것들의 세계를 맞이한다면

아래로 아래로 흰 꽃들 저무는 마을로 내려가

흰 잠으로 들어가

하얀 사슴을 꿈꾸고 있을

네가 건너올 수 있도록

홀로 고립되지 않을 계절로 건너갈

흰 꽃, 흰 사물,

섬세하게 오래 버틸 수 있을는지

비가 내리는 나무 강현숙

비가 내리는 나무라고 쓰는데
마음이 울고
비가 내리는 나무라고 쓰는데
볼 수 없는 네가 떠오르고
비가 내리는 나무라고 쓰는데
말할 수 없는 말도 있음을 안다
비가 내리는 나무라고 쓰면서
'끝'이라는 말을 적는 끝을 생각한다
비가 내리는 나무라고 쓰면서
꽃 피는 일에 설레는 일보다
꽃 피는 울음에 가까워진다
비가 내리는 나무에
말이 열린다

*

비가 내리는 나무에
화난다 주저앉다 몸이 젖는다
비가 내리는 나무 아래에서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비가 내리는 나무 아래

죽은 짐승을 묻고 흐느끼다
짐승의 얼굴로 쳐다보는
비가 내리는 나무 아래
선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

비가 내리는 나무 아래
먼 거리를 내다보다가
다음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지금이라는 것도
있는 것은 아니다

12월의 비 곽구영

12월 어느 금요일 이었네

검은 여섯 시 위로 비가 내리고

엘도라도의 금니처럼 반짝이기 시작하는 주점들

오늘은 더 이상 유혹하지 마라

밤에 피어 빛나는 꽃들이여

비는 추깃물처럼 우울하게 밟히고

내가 혼자 걷는 이유는

삶의 재활용센터에서

내가 되팔 수 있는 것은

살아온 날이 비겉했거나

>

어쭙잖은 것이라는 낯은 시간들

나는 어둠의 순례자

느린 골목을 찾아 주검처럼 떠돌고

시간과 함께 흘러 자정으로 가네

고지서처럼 통지되는 생의 나머지를

울부짖는 늑대처럼 풀어 놓으며

나는 소금으로 된 사막이 있다는

그곳으로 검게 녹아들고 싶으네

노을 곽구영

시詩 한 줄 궁리 못한 채
시름시름 앓다 퇴근하네
십리 대밭 위 하늘이 타는데
노을이 붉은 것만 아니구나
저 붉은 노을 사이 노란
어린 시절의 눈빛이
나를 뻗히 내려다보네
밥 먹고 살기 위해
아직도 배가 고프는데
노을에 숟가락 넣고
다 퍼먹고 싶네
싹싹 비벼 먹고 싶네
입술이 뜨거워지네
가슴이 뜨거워지네
부실한 이빨 걱정 없이
잘 익어 붉은 밥을
오늘은 눈물에 말아
홀홀 다 먹고 싶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어디서 밥 짓는 냄새 나고
내 생이 노을이라는 생각에
장조杖朝의 몽둥이가
갑자기 뜨거워지네

2005년 5월 광구영

-이사 가며

이사 간다. 십 년 동안 세 살던 사무실 못다 한 이야기는 묻어 두고 이사를 한다. 강산도 변한다는 십 년, 그사이 점점 줄어들어 몇 안 되는 식구들, 짐을 꾸리는 손은 바쁘나 입들은 조용하다.

오래된 카탈로그, 매출매입장, 준비한 영수증들, 흰 도료가 떨어지는 벽면, 발 하나가 롤링이 안되는 의자, 실금이 간 탁자의 유리, 누추해진 보드, 깜박이는 형광등, 수계 비수계 탄화수소계 탈지 탈청 탈취 윤활 방청 방향 절삭 이형 방전 대전방지 유연 방취 비산억제제들.

발품과 입품의 날들 땀 쏟으며 휘발된 날들 어느새 십 년이다. 옛 살림을 정리하다 마치 오래된 일기장 보듯 잔해진다. 생각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던 정말 처음일 것 같은 나의 모습 여기 있다.

개업식 날 그대가 걸어 준, 이젠 희뿌연 한 거울의 마지막을 보며, 그 세월 함께 바래진 나를 본다.

숯못 구명자

마고할미 쪼그리고 앉아
긴 손톱 다 닳도록 숯을 씻었다는
무연히 그 오랜 서사 풍을 들여다보는
아라비안 오일만큼이나 검은 물웅덩이

저벽저벽 군복처럼 짙어오는 수목
산발한 마고할미 봄바람에 고요를 잃었다
아카시 어린 꽃잎 수면 위로 처박히고

천개 눈을 가진 알라의 눈동자
검은 오일 속을 떠돌고
가장자리 경계에 그물을 치는 송화가루
막 피어난 수련의 흰목 죄이고 있는 평화의 모순

물속 생을 마주한 아카시 나무
진동처럼 구겨져 흐리다
먹이 찾아 헤엄치는 치어 떼 무기로 보이는 착시
지구 저편 붉게 카펫을 짜던 여인들의 비명

주인 잃은 낙타 울음소리 서늘하게 밀려드는
입안 가득 사막 모래가 씹히는 그런 봄날

돌, 그는 구명자

햇빛 한 줄기
동냥처럼 물고
가장 낮은 곳에서의 노숙

그가 언제 어디로부터 왔는지
밤하늘 유성이었는지
저 깊고 너른 바다 속이었는지
아메리카나 그랜드 캐년 협곡이었는지
그를 낳았다는
인류의 빅뉴스도
나는 들어본 적 없으니

오 오 오

그는 본래 말씀으로부터 왔으니
까마득한 광야 돌베개로 광장 돌팔매로
날리던 한때
누대로부터 깨어지고 밝히고도
눈물을 모르는
그는 오랜 세월 신이 사랑한 경전이었으므로

불의 나라 구명자

도깨비불을 본 적 있다
열 살 무렵 양주군 광적면 외가 가는 길
썩은 등치 사이로 번쩍 지나가던 불을 본 적 있다
그러나 내 눈썹을 태우거나 나뭇가지를 활활 태우지 않았다
봄이 오는 경북 의성 산골마을 그날 생생한 도깨비불을 보았다
바람 타고 휘휘 날아다니는 붉은 헛바닥 도깨비 같았다
불은 숲을 삼키고 사람을 삼키고 마을을 삼키고 가축을 삼키고
수 천리 떨어진 바닷가를 태우고 수백 년 노거수를 태우고
국보를 태우고 밤낮없이 애간장을 태우고 남은 건 모두
뒤틀리고 오그라진 솟 김땀이 봄, 봄
무저갱 문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검은 눈물 흠치며 서로 바라만
볼 뿐
점점 뜨거워지는 불의 나라
외갓집 산길에서 보았던 도깨비불은 뜨겁지 않았다

나이테 구태연

말없이 굳어지는

나의 결

세월은 내 안에
침묵의 강을 파는 삼 한 자루
어제라는 독을 허물어
새로운 제방을 쌓는다

욕망의 잎사귀
우수수 떨어진 자리
바람이 할퀴고 간 흔적은
단단한 옹이로 남고
상처는 나를 지탱하는
가장 또렷한 나이테

세월은
나를 깎아내는 칼날이 아니라
모난 마음을 굴러
둥글게 만드는 연마의 강물

그 강물에 씻겨
사라진 것들 뒤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오래된 친구 구태연

가장 소중한 것은
구석에 있다

세상은 반짝이는 숫자에 열광하지만
내 지갑 깊은 칸에는
오래 닳은 것들이 남아 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몇 번이나 접혔던 메모
이름이 희미해진 명함 하나
차곡차곡 눌린 영수증들 사이로
시간이 얇게 접혀 있다

값으로는 셀 수 없는 것들
세상과 부딪치며
조용히 포개져 있는
구겨지고 닳아간 날들의 흔적

나는 안다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하는 것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끝내 버리지 못한
이 작은 조각들이라는 걸

귀신 고래의 회유 김근태

꿈의 나라에서
귀신고래의 유영을 본다
물살을 가르며
자유를 향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몸짓
바다는 피빛 노을처럼 열리고
자유의 함성은 밀려온다

술밭 사이로 비치는 초승달 아래
고래는 슬픈 머리를 적시며
먼 길을 준비한다

북아메리카에서
어미에게 배운 자맥질로
방향을 틀어
남아메리카, 멕시코만에서
몸을 풀고 숨을 고른다

새끼들을 이끌고
북태평양 오후츠크해를 향해

동해를 지나
일본 근해를 돌아
대한해협이 풍부한 먹이를 찾아
한반도로 되돌아오는
오래된 회유의 꿈

고래는 바다의 거대한 시인,
그들의 노래는
깊은 심해에서 울려 퍼져
인류가 잊고 지낸
평화의 음계를 깨운다

그러나 기후 위기의 경보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점점 위태롭고
나는 고래와 하나가 되는
꿈을 꾸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자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곳에서
귀신고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몸,
깊은 지혜를 머금은 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바다의 길,
자연의 흐름 속으로
함께 스며든다

고래가 울부짖을 때
나는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한 호흡으로 나눈다

그린피스의 눈물겨운 노력 속에서
귀신고래는 다시 희망을 얻고
나는 회유의 경로를 따라가며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배운다

귀신고래와 함께한 이 꿈은
그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

우리의 미래는
그들의 존재와 함께 있고
포경의 저주를 끊고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귀신고래가
다시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며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

황혼 김근태

옥양목 한 별 걸치고
뿌리를 찾아 나선다
쿤타킨테의 먼 항로를
흉내 내듯

입항조가 눌러앉았던 마을
흩어진 후손들이 살던 터전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지고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서로를 부른다

해질 무렵
아라랏산 너머로 흩어진 형제들
목을 축이며 부르던

아리랑 한 자락이
붉어진 눈시울을 타고
저문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즐기는 척이라도 하며

>

나는

황혼의 들녘을

끝까지 걸어간다

대륙의 봄 김근태

순록을 몰던
대륙에도
봄은 왔다

깃발이 바뀌고
국경이 그어질 때마다
강은 이름을 잃었다

아무르 강가,
북극해를 향해 선 등들
돌아갈 땅은 지도에서 지워졌다

눈물은 얼음 밑으로 스며들고
총성은 바람 속에 묻혔다

상처는
해빙선처럼 금이 간 채
아직 떠다닌다

그래도 누군가

절망보다 깊은 물로
이 대륙을
적셔주기를
기다린다

자맥질 김윤삼

하루 종일 케이블카나 타고 싶은 날이 있다
오르락내리락 흔들리다 보면
무거운 가슴팍도 좀 험렁해질까 싶어서
나는 매표소 앞에서 일회용 컵 같은 표정을 짓고
손끝이 노랗게 닳도록 서 있었다

오월 바람은 비린내가 났다
하늘은 표백제를 부은 듯 파랗고
숲은 푸른곰팡이가 쓴 식빵 같았다
바다는 부른 적도 없는데 혼자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출렁이는 것들이 싫어졌다

여자, 라고 적고
연필심이 종이를 긁는 소리를 오래 들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내 몸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엉덩이라는 게
좀 우습고, 조금 짹짹하다

리프트가 스칠 때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눈동자를 본다

젖은 유리알 같은 것들
이 초췌 서로의 생을 훑아보고
영영 안 만난다, 그 짧음이 좋아서
나는 또 표를 끊는다

오늘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공중에서 좀 울다 내려가야 하는 날이니까

바람이 분다
나무들이 한쪽으로 머리채를 풀고 누웠다
좀 누웠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와도 괜찮다는 표정을 짓고
나는 또 줄 끝에 가 선다
발밑에서 표가 한 장,
또 한 장,
얇게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

- 떠오르고 싶다면, 나는 매번 표 끊는 줄에만 충신했다

「No. 27」 김윤삼

남자가 잔디를 쓸고 있다 비밀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풀들이 너무 순하게 한쪽으로 눕는다 나는 한 번도 저렇게 누워
본 적 없다 누우라고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청동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다
비둘기 한 마리가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에 부리를 넣었다 뺏다,
시계추처럼

청동은 꿈쩍도 안 한다 간지러움을 잃은 살이라야 새가 저렇게
오래 머물 수 있다 나는 아직도 간지럼을 너무 많이 탄다 그게 좀
부끄럽다

어떤 관계는 저렇게 일방적이어야 오래간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알고도 못 했다, 그게 더 문제다

「No. 27」, 이라고 명패에 적혀 있다 스물일곱 번째라는 건 세다가
잊어버려도 되는 숫자다 나는 누군가의 몇 번이었을까 세어보다 만
적 있다 손가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는 일이 우스워져서

아니, 사실은 셋까지 세고 그만뒀다 그 이상은 지켜워서
잔디 쓰는 남자가 손을 멈춘다

풀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줄 아는 것들은 처음부터 눕지
않는다는 걸 나는 어떤 여자에게서 배웠다 이름은 기억나는데 얼굴
이 안 떠오른다 얼굴은 기억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했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청동 여자 겨드랑이 사이가 새의 침으로 번들거린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저게 작품이라고들 한다 나는 찍지 않았다,
찍으면 저 번들거림 안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한 장은 찍었다 지우긴 했지만

잔디 쓰는 남자는 가버렸다
청동 여자는 다리를 벌린 채 그대로다
나는 그 사이에서 자꾸 눈을 옮긴다
어디로 옮기는지도 모르면서

누가 좀 나를 청동으로 부어줬으면 싶다가
저 겨드랑이 사이를 한 번 더 보고는 아니, 그러면 새가 나에게도
들락거리겠구나 싶어 나는 또 발을 옮긴다 옮기다 보면 집에 갈 시
간이 되겠지

집에 가면 또 누우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혼자 누워 있겠지

다시 그날을 기억한다 김중원

20260403일에

그가 보였다

온 힘을 다하여 움켜 잡았던 손을

순간 맥없이 놓았다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가슴을 억조여오던 그 아찔하던 순간들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조각들이

시시각각 고개를 든다

거부할 수도 없는 거대한

공포

그가 보였다

온 몸으로 맞닥뜨린 그 날의 그 처절한

치명립

바람이 불었다

>

하나, 둘 맥없이 쓰러졌다

허공을 가르며 뒹겨 오르고 산산이 흩어졌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

메아리도 없이 바람에 쓸려 버렸다

시간이 가면 아련히 잊혀지기도 할 텐데

자꾸만 선명해지는 그 날

그가 보였다

가슴이 으 하고 무너져 내렸다

힘껏 움켜잡고 있던 간절함을

제대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놓아야 했다

맥없이 쓰러져 갔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등줄기 오싹하게 엄습해 오던

그날 그 눈빛 그 공포

>

바람이 불었다

모든 것이 쓰러졌다

지워지지 않는 그 가슴 심뜩해지던

아찔한 공포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바람이 불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진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

맥없이 고개를 떨구던

그가 보였다.

엄마에게 쓰는 편지 김중원

엄마

간밤처럼 거칠게 창문을 흔들며
비바람이 목놓아 울다 간 날에는

엄마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엄마가 그랬듯이

별일없제

여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거기는 괜찮냐고

전화를 하고 싶어져요

엄마

오늘처럼

별빛 하나 없는 무거운 밤이면

>

더 엄마가 보고 싶어져요.

전화를 해도 받을 수 없겠지만

방 따뜻하게 해서

잘 자라고

감기 걸리지 말고

밥 잘 먹고 다니라고

늘 엄마가 그랬듯이

이제 내가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늦은 저녁

후다닥 대문을 밀고 달려 들어오던

자식들 발자국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나와

다 젖었네 수건을 건네주시던

손길

그리운 이 밤 지나고 나면

>

비 흠뻑 머금고

꽃이 피겠지요

창문을 열면 추적추적

엄마 발자국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

세계는 지금 전쟁 중 김중원

힘을 가진 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세계 곳곳에서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고도로 정교해진 살상 무기로
학교를 폭격하고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모른 채
처참하게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며
그들에게 과연 인권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연일 폭격이 이어지고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저 힘없이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발 동동 구르며 바라다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

힘 가진 자들이 힘을 통하여
욕망을 실현하고자
나서는 것이 일상화되고

하루하루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
힘겹게 최선을 다하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게임을 하듯
연일
온갖 잔인한 살상무기들을 소나기처럼
쏟아붓는 자들과

날벼락처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비명소리조차 묻혀버린 채 산산조각 흩어지는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이 처절하게 위협받고 있는

세계는 지금 전쟁 중.

시인의 초상 나정욱

그래도 시를 믿고 살아온 시인의 초상은
행복해 보였다
한결같이 행복해 보였다

시를 종교처럼 믿고 의지해 온 얼굴이니
시인의 얼굴은 종교처럼 근엄하게 늙었다
종교보다 늙은 얼굴도 흔치 않을 것이니
이렇게 행복한 얼굴도 흔치 않은 것이다

무엇이든 평생을 믿고 의지하면 종교가 되고
시가 되려나
늙어서 곤궁해도
얼굴만은 편안한 사람들
그것이 종교가 되었던 시가 되었던 늙으면
모두 종교로 전락한다

세상 모든 종교는 종교다
세상 모든 예술이 종교이듯 그러나
종교가 이렇듯 편안한 가구처럼 사람들과 오래
어울려 사는 것도 종교뿐이다

>

종교와 떼어 수 없는 한 몸으로 늙은 것이 예술이다
시를 쓰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종교와 예술이 한 몸에 살고 있는
정신이다

진실의 크기 나정욱

내리는 빗방울은 같은 게
없을 거란
생각이 든 것은
진실의 크기도 그럴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진실이란 이름으로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도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
내일이 올지는 모르지만
내일의 진실의 크기는 다를 거란 생각

빗방울은 떨어진 곳에
같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없다는
이 진실이
이 진실의 크기가
지구의 직경쯤 될 거란 생각에
빗방울을 눈물로 대치하는 습관을
끊을 수 있었다
>

한 방울 푸른 눈물에 사는 우리들
진실의 색깔도
하늘색을 닮았을 거란 생각을 하면
죽음도 겁나지 않다

별의 운행 속도 나정욱

모든 속도에는 소리가 따른다
별도 소리가 있다 별이 도는 소리가
밤을 짝 채워 어둠이 짙다

소리가 크면 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별이
떨어져 먼지로 떨어지는 소리다

밤새도록 저 소리를 들으며 사람이 죽으면
완벽한 별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때까지 별은 별의 속도로 걷는다

모양도 색깔도 다른 별의 운행 속도를 들으며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래야
내가 소리에 미치지 않는다

물방울이 뭉쳐 폭우가 되듯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소리가 사람들을 잡는다
그런 별의 충돌을 하루이틀 보는 게 아니다
>

별도 살아 있을 때 서로 아름답다 조용한 별이
지구를 돌며 밤을 지샬 때 발자국 소리도
아름답게 빛난다

나비 숲 도순태

꽃이라 부르기엔 너무 가벼운, 잎이라 하기엔 자꾸 자리를 옮기
는, 작천정에서 나비가 피는 나무를 보았다

수천의 꽃이 바람이 스치면
몇 마리씩 떨어져
옆 나무로 건너간다

한쪽은 비워지고 다른 쪽은 조금 더 환해지는

봄이 자리를 바꾸는 것일까

가지 사이 햇빛이 나비와 다정이 앉았다가 일어서는 열중이다 바
람도 같이

머뭇보다 떠나는 시간이
길어 보였는데
풍경은 뻑뻑하다

사라지면서 장면을 채운다
>

나무는 제자리에 서 있지만 몸을 이루는 나비 날개가 끊임없이
하늘거린다

움직임으로 또렷해지는 나무

생장인지 흔들림인지 알 수 없다

한 무리 나비 떼가 위로 올라간다. 가지는 환하게 분주하다

가은역 도순태

폐역이 된 지 오래라는데
누가 저 많은 사람을 불렀을까

목조 간이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낡은 의자와 친밀하다
격자창으로 발을 넣는 빛 어색한 듯 돌아선다

누굴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이
나는 서 있다

여름을 앞둔 초록의 흔들림 아래서
빈 선로를 본다

기차는 오지 않는데
역사를 지나 철로로 가는 사람들 분주하다
따라가는 바람은 기차 여운처럼 느긋하다

모두 비어버린 역사에
기다림이 귀퉁이에 눌러앉아 있다

나는 늦게 떠나야겠다

철로는 아직
어딘가를 향해가고 있다

오솔길에서 노효지

이곳에 있을 땐 이곳을 즐겨야 해
여기 맥문동 꽃밭 좀 봐

십리대숲 길 안쪽
호젓한 오솔길을 걸으며
너는 말했지

비밀의 화원 같았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혼자 걸으며 발견한 작은 오솔길

우린 늘 그랬지
새벽에 깨어나 아침을 열고
아침이면 햇빛 가득
창문을 열었지

넌 아마도 남몰래 울기도 했겠지
나도 그랬지만
눈물 닦아주는 이 없어도 씩씩하게 일어나고
또 아침이 오고

또 태양이 떠오르고
내 가슴에 태양도 떠올랐지

아름답다는 게 무언지
난 아직도 잘 모르지만
함께 마주 보고 웃는 것
오늘은 그게 참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어

내 손 꼭 잡아주었던 친구
여기 이곳 지구별에서
호젓한 오솔길에서도

아침달, 4월 노효지

밤새 키 큰 전나무 위에서
새벽이 오는 길을 비추고 있었다

밤은 오래 깊었고
연분홍 벚꽃잎은 밤에도 잠들지 않았다

누군가는 새벽까지 편지를 썼고
누군가는 밤새 뒤척였고
누군가는 밤길을 달려 짐을 실어 날랐다

날 따듯하게 받아들여 줘
한 줄 쓰려다

못다 쓴 편지 같은
하얀 아침달

흐려지는 방 서경

어느 날부터 이름들이
창가에 앉지 않는다

익숙했던 얼굴이 문턱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른 길로 돌아간다

나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여기라는 말이 조금씩 다른 모양이 된다

열쇠는 늘 같은 자리에 있는데
문은 가끔 처음 보는 것처럼 닫혀 있다

기억은 조용히 방의 구조를 바꾼다

나는 그 안을 걷고
천천히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배우는 중이다

나, 는 슬픔이 없는 듯 서경

수술대 위에서 두 시간
중환자실에서 일박 이일
사각 병실에 갇혀서 보름

그사이 늘어난 것은
입안에서 돌아난 작은 가지
소리는 사라지고 온도만 남은 병실

불친절한 간호사가
불투명한 병명을 확신하며
또 다른 검사 목록이 적힌 종이를 툭 던졌다

링거줄 사이로 삼십 년 전 흐려졌던 기억이
또...
옥...
또...
옥...
떨어져 내렸다

지우지 못하고 냉정히 돌아서지도 못한 그 길

머뭇거리는 사이
다짐만 하는 사이
절망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여든다섯의 그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었다

심미안 손영순

길가 발길에 채이는 많은 돌 속에서
원석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은 모를거야 이 돌이 원석임을
다른 사람 손 탈까 봐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울퉁불퉁, 꺼칠꺼칠 모난 돌
들러붙은 진흙투성이

맑은 물로 씻어내고 군더더기 떼어내고
무슨 도구로 다듬을까
마음의 도구가 제일일 거야
따뜻한 마음의 도구로 감싸안았다.

하루, 이틀에서 한 달이 모여, 모여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그 원석 시인이라는 빛나는 보석 되었네
남이 버린 돌
나의 주춧돌이 되었네
기특한 내 감각

현명한 선택 손영순

십수 년 동안
홀로 현관을 지키던
조가비 같은 구두 옆에
나룻배 같은 구두가 자리하면서
꿈의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혼자라는 사실에 많은 날을 뼈격거리다가
나는 자그마한 나룻배를 타기로 했다
빠른 두뇌로 셈하기 바쁜 이 시대
0식이 1식이 2식이 3식이 중
0식^食이가 가장 사랑받는다지만
나는 기꺼이 3식^食이를 택했다

늘 늑장 부리던 조가비는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 바쁘게 엘리베이터를 깨워
까만 구두를 배웅한다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작은 고추가 맵다 손영순

2017년

가슴에 묻어 두었던 꿈 좇아
울산시민 문예대학을 문을 두드렸다

하얀 목련이 창가에 살며시 얼굴을 내미는 봄날
파란 한복에 분홍 조끼
곱게 차려입은 한복, 새하얀 고무신까지
왜소한 체구에 하얀 피부
목련꽃 같은 맑은 첫인상
새 신랑인가?!
그런데 이마에 굵은 주름 두 줄
호기심 많은 난 자못 궁금했었지

알고 보니
새내기 대학생 시절, 옷 한 벌 살 돈 없어
아버지 한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서러운 핫바지 사연

가난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청렴하고 깨끗한 그 정신

디딤돌 되어
시인 되고, 문학박사 되고, 평론가 되어
다들 좇아가는 금원 마다하고
재능기부 10년에 환갑인 오늘
그 서러웠던 핫바지가 강렬한 스타일러 되어
황혼의 가을 시인들의 열기 속에
오늘도 뜨거운 강의

선에 대한 단상 이규원

내 피부는 겨우내 관리해도
한나절 햇볕에도 검게 타고
또 물이 잘 드는 편이니
조심해달라 언질을 줬지만
자기 샅은 피부엔 스미지 않는
고급 염색제를 쓴다며
선을 넘어 거침없이 붓질했다

나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나
채색할 때 늘 선에 집착했고
모든 색에 의연했지만
선을 넘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검정이 싫었고
덧칠을 허락하지 않는
고작 그 검정 때문에 때려치운 적이 있다

투쟁할 때도 그랬다
팽팽한 앞줄보다
느슨한 뒷줄이 좋았고
선에 걸쳐 서지 않으려 했고

밀려도 선을 밟고 끝까지 버텼고
선을 끊고 쏟아져 나가지 못하고
뒤돌아선 적도 있었다

머리를 감고 나서도
실패한 그림에 붓을 내리친 듯
선 넘어온 흔적이 그대로 남았다
포기와 마주했을 때처럼 막막했으며
망설이는 발자국처럼 찍혀 있다
빹빹 문질렀으나
흔적은 후회처럼 더 선명해졌다

지우려 하지 말자
선을 끊으면 매듭이 생기고
햇볕을 받으면
옆으로 또 선이 그어질 것이며
머지않아 세 겹은 또 한 겹이 될 것이므로
바버삼을 탓하거나
선을 긋고 그 안에 서 있는 것은
더더욱 지켜온 일이므로

라떼는 말이야 이규원

옛날에, 목욕탕에서 말이야! 뜨거운 물 팔팔 틀어놓은 열탕에 눈썹이 짙고 아주 잘생긴 사내가 머리만 내놓고 태연히 앉아 눈 감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탕에 손을 넣어보고는 다들 눈살 찌푸리며 돌아섰고 냉·온탕요법이 거시기에 좋다는 말이 있었기에 나도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

그가 몸을 반쯤 일으켜 탕 가장자리에 팔을 걸치고 앉았는데 수증기를 헤치며 드러나는 그의 우람한 가슴과 떡메 같은 팔뚝을 아마 너도 봤더라면

나는 슬며시 그의 옆으로 가서 나온 배에 힘을 준 채 걸터앉아 뜨거운 물 속에 겨우 다리만 집어넣었는데 살갓이 벗겨질 것 같았지. 물속으로 슬며시 보이는 굵은 씨알 하며 뜨겁게 데워지고 있는 그의 하체를 결눈질하다가 조심조심 탕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는데 갑자기 그가 목을 뚜두둑 꺾더니 탕을 나가는 거야.

생각해 봐! 그 덩치의 사내가 별떡 일어서면서 쓰나미 같은 파도를 일으켰는데, 몸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상상할 수 있겠어? 나는 물속에서 살갓을 싹싹 비비며 입술을 깨문 채 머리만 내놓고 앉아 께려보았지.

>

한쪽 다리가 얇고 휘어진 사내 뒤뚱거리며 냉탕 쪽으로 걸어갔고 그를 쫓아 모여든 눈들이 이리저리 쓸리는 바람에 탕 안이 기우뚱 기울어 보였지. 상상해 봐! 과중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멍멍거리는 타가다 디스코 같은 공간을 그가 화려한 몸짓으로 균형을 잡는 것을 말이야!

누군가 재빨리 파란 레버를 틀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람들로 꽉 찬 탕에선 물이 팔팔 넘쳐 밖으로 쏟아지고 있었지.

1급 기밀 이규원

옛날 옆 동네에 손 씨 성을 가진 집안에 별 셋 장군이 나왔고 몇 달에 걸쳐 잔치를 벌였다. 당시 그 집안에 농사짓는 조카가 입대했는데 군 생활이 농사일보다 더 힘들었는지 삼촌 백을 믿었는지 다섯 번이나 탈영했고 번번이 삼촌 덕으로 무사히 영창 신세는 면했지만, 문제는 이분이 사단장 관사 청소병으로 근무할 때 또 탈영을 시도 했고 영내에 보관된 별 두 개 달린 군복을 훔쳐 입고 나온 덕에 모든 검문을 통과하여 집에 숨어 있다가 검거되었는데 이 동네 저 동네로 소문이 소문을 낳아 결국 오성장군 집안이 되었다.

슬도의 저녁 엄하경

파도를 타고 온 바람이
구멍 송송 난 바위의 음계를 짚으며
자진모리로 섬을 휘감는다
늙은 해녀의 집 마당에
미역줄기 몇 가닥, 주인처럼 말라 간다
숨비 소리 매달린 구렁에
전복과 성게 소라
해녀의 하루가 담긴다
젖은 얼굴에 붉은 노을이 물이랑처럼 번진다
고기잡이배들이 하나둘 집어등을 밝힌다
길고양이 한 마리 슬며시 들어
호시탐탐 구렁을 노리는 사이
갯물을 씻어낸 해녀가 손사래 치며
툇 밥과 모자반 무침으로 늦은 저녁상을 차린다
전복 소라 성게는 관광객들의 몫
색 바랜 잠수복과 낡은 전대가
내일을 기다리며 바지랑대 끝에서 말라 간다
슬기둥 둥 둥
등대 불빛 사이로 거문고를 텅기듯 바다가 운다

사파*, 경계 너머 엄하경

아이가 손을 내민다
원주민의 문양이 새겨진 색색의 지갑들,
누구에게도 선물할 수 없는 조악한 인형들이
야윈 손끝에 오종종 매달려 있다
기대와 실망으로 흔들리는 눈망을
고개를 저으며 카페로 들어서는 사람들
지갑 서너 개 살 수 있는 값으로
한 잔의 음료를 주문한다
카페 모어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소녀는
떠들썩하게 담소 나누는 관광객들을 향해
가녀린 손을 흔들어 댄다
먼지 쌓인 맨발과 기다림의 그림자가
진흙 길 위에 길게 눕는다
- 싸요, 사세요
서툰 이국어를 달싹이는 입술은
금빛 여신상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의
배경에서 삭제된다

LOVE

>

핑크빛 문양에 파드득 네온이 켜지자
해발 2000미터가 넘는 고산지대
겹겹이 포개진 다랭이 논이 어둠 쪽으로 스러지고
건너편 환락가는 순식간에 밤을 무너뜨린다
팔리지 못한 인형처럼 고개를 꺾고
어둠 쪽으로 터덜터덜 아이의 하루가 저문다

* 베트남과 중국 국경에 있는 고산지대 관광지

별의 기원 엄하경

학교로 학원으로 종종걸음치며

별을 쫓아가고 있어

별이 뽀족해진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불러낸 탓이지

오래전 천문학자들이

별은 둥글다고 밝혔지만

동그랗게 별을 그리는 아이는 없어

소원을 걸어두기 위해

아이들은 뽀족한 별을 그리지

달지 못할 만큼 멀리 있으니까

끝이라도 세워두고 싶었던 거야

별을 달았다던 어른들은

반짝거림이 채 사라지기 전에

어깨를 움크리고

달의 뒤편으로 걸어갔지

아이들은 아직도 믿고 있어

별 끝에 꿈꾸는 미래를 걸 수 있다고

자그마한 어깨에 주렁주렁 가방을 매달고

거울을 보며 손화람

화장실 불을 켜면 당신 앞에 태어난 나

아, 거울 앞에 서면 떠오르는 기억

젖꼭지 위쪽에 새겨진 흉터 폐에 구멍이 뚫려 불순한 공기가 침투
했어 가슴을 뚫고 공기를 빼내야 해 후손도 갖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짜리나무 이파리 떨어 떨어 손
을 가슴에 얹어주던 당신, 손을 흉터 위에 올려보았다 어머니의 눈
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거울이 열리는 시간 나만 바라보는 당신이 있어 외롭지 않아 옆
배가 튀어나와도 숙취로 냄새가 풍겨도 혈령한 나만 보고 웃어요

당신은 혼잣말로 미간의 주름 악몽 때문이야 꿈에서 깨어나라고
눈꼬리가 삼지창이 되었어 손끝으로 마사지하고 엉겨 붙은 더벅머리
귀신 되기 전에 물을 뿌리라고

당신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단전 호흡으로 폐 구멍을 막았다고 물
속에서 3분이나 있을 수 있고 이제 먼 산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당
신이 보이지 않아 젖은 수건으로 세차게 거울을 닦으면 희미하게 드
러나는 얼굴 당신에게 무엇이든 보여줄 수 있어 혼잣말도 냅두리도

헛웃음까지도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면 까맣게 잊힌 당신

내 앞의 사월 손화람

모든 색이 녹색과 섞여
빛어낸 산이 나타나
모자이크 녹색 사월을 알렸다

내 앞의 사월은
기침이 멈추질 않고
흙먼지 날고
변색 된 낙엽이 남아 우울하다

겨울 까마귀 떠난 강
빈자리 메워지지 않고
뿌연 강물만
퇴색된 갈대 사이를 느리게 지나가고 있다

나무는 푸르고
민들레, 냉이, 제비꽃은 피는데
심장을 후려치는 충격이 없는
나른함이어!

사월의 빛깔은

돌아가지 않는 물레방아 같은 무채색
다가와 축축이 적셔주지 않는 종이꽃
건드리면 부서져 사라지고 마는
건조함만이 남는다

가지가 모두 잘려
벌거숭이가 된 백일홍처럼
어렵게 싹튼 호기심이
지워져 버릴 것 같은 불안
막대기 같은 막막함이 퍼진다

사월에는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를 감춘 채 숨만 쉬겠다

망해사 벚꽃 송은숙

흰 겹벚꽃이 바다의 거품처럼 피었다

어떤 이는 멀리 보인다는 그 바다가 바다가 아니라
외항강 거슬러 온 동해 용이라는데
과연 겹겹의 꽃잎 흰 용의 비늘 같다
눈부신 목덜미 같다

신화의 시대에는 골짜기마다 호랑이와 곰이
바다에는 하얗고 푸른 용들이 넘쳐나서
길잡이로도 보호자로도 길흉화복에 참여했다 하니

아득히 바다를 건너온 낯선 이어

그대는 용선의 뱃머리에서
항로를 인도하는 백룡의 비늘을 떼어 품에 간직하였다가
고향길 보이는 망해의 자리
어느 나뭇가지에 매달아두었다

그 비늘 뱃길에서 만난 파도 거품처럼 자꾸 불어나
마침내 이승의 기슭에 닿아 흰 벚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 아닐까

>

꽃은 먼바다 쪽으로 몸을 굽히고
팽팽히 갈기를 세운다
우리는 발끝을 돋우어 꽃의 목덜미를 쓸어본다

삼각의 돛대가 해풍을 기다리며 활짝 펼쳐진 어느 봄날
저 창랑의 바다를 건너갈 이어

좁머 씨 풍으로 송은숙

그는 조용하다 이 척박한 세상에 얇게 심어진 고층 건물이 자꾸
넘어지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8%쯤 있는 세상에서 별마져 평평
한 수프처럼 떠 있는 세상에서

그는 횡단보도에서 꼬박꼬박 우선 멈춤을 하고
비닐봉지를 낙엽 줍듯 주워 오고
지구의 어디선가 들리는 비명에 깃바퀴를 돌려 맞춘다

그러니까 어느 먼 곳의 해바라기밭에 폭탄이 터지면 그의 무릎에
도 멍이 들고

철조망에 피 묻은 옷자락이 걸리면 그의 옆구리에도 고름이 잡히
고

봄 하늘엔 황사가 날고
버드나무 씨앗이 날고
매듭이 풀린 머릿수건이 날고
폭탄이 으르렁거리며 날고
수전증 환자처럼 덜덜 떠는 그의 손이 날아다닌다
>

커다란 구덩이에 가방과 옷과 신발이 던져질 때
틀니와 의치와 목발과 머리칼과 손톱이 불태워질 때

드릴이 시멘트벽을 뚫고 못을 박아 넣듯
그는 제 몸을 박아 넣는다
결코 빠져나오지 않겠다는 듯 콘크리트를 부으며
성흔처럼 벌어진 상처 위로, 다시 상처를 겹치며

동바람 이노형

논밭과 과수원에는
몸들이 푸르게 자라났다
감자꽃 바람 너울덜 즈음에는 감자알들로도 해맑아져 가고
몸 더욱 곱삭다가
곰뱅이나 지렁이 땅강아지의 몸이 되다가
이른 아침 상치밭에서는 잎잎 이슬 젖어가는데
파 고랑은 대궁이가 무겁도록 씨앗들을 매다네
통과 오좁은
저만치 호박꽃도 피워내 멀리까지 벌들을 불러오고
벼논에서는
흔히 소똥과 몸을 섞다가
우렁이 개구리 물방개 메뚜기랑도
이따금씩은 세벌매기쫄을 끝내놓은 푸른 고요 가운데
백로떼와도 몸을 섞으며
벌써 나락꽃 패는 꿈들로 부풀어 간다
덩달아 들노래도
산줄기처럼 뻗어가다가 오르락내리락 들녘에 가득하네

해를 넘기며 이노형

새해 첫날 휴대폰이 속살거리네
평동 지지배배
아침을 깨우는 벨소리
뭐해뭐해 자기야 살가운 인삿말
새해를 배달합니다
뜻한 일 이루세요
베개머리이듯 속살대는데
늪은 걸까 무덤덤하다
커피잔이나 당겨보는데
동백꽃 철을 알아설까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올 한 해는
그저 사람들로 넘쳐나면 좋겠다
골목 한 칸이나 마을 어귀쫄 퍼질러 앉으면
빈 주머니가 뭘 대수랴
마늘 된장 차림의 국밥상 돌레로나 앉아
살아가는 얘기들로 뜨끈해지면 좋겠다
여기저기서 북이나 남이나
아이들이 눈덩이 굴리듯 불어나면 좋겠네

꽃눈 이노형

얼어붙은 골짜기에
봄철이 나뭇이 몸을 놀리나
얼음짱 아래로 물길이 꿈지락
나무들도
있 다 떠나보낸 채 묵묵히 일들이네
저건 굴참나무 저건 산벚꽃눈 잠눈 있는
하늘 향한 꽃꽃함들
나름들 우주 품는 일일까

두텁게 껍질 갈라 터지고
있눈들도 터지고 나면
굴참나무 비탈은 피꼬리 울음들로 질어가겠네
치마폭 만하도록 가지들을 이루어낼
산벚은
쌀알만큼씩 겨울눈을 내밀어
봄 산은 먼발치로 수수하겠다
저 덩굴에 잎이 달리면
망개떡 청미래 냄새로 상큼하겠지
멧목련 꽃눈은
무얼 머금어

여름 자락 함박눈이라도 날릴 참일까
눈보라나 외로움 같은 건
다들 나이테 깊숙이에 새겨두자 하네

해방보다 통일의 길은 더 멀었다 이병길

- 조선의용군 항일 여전사 김명시

조선의 밤은 길었다

말을 배울 즈음 나라를 잃어
마을마다 핏빛 노을이 번졌다

기미년 삼월,
생선 좌판을 밀쳐놓고
“조선 독립 만세!”
두 주먹 불끈 쥐 어머니가
헌병의 총갈 아래 쓰러지자
어린 소녀의 눈동자 속에
지워지지 않을 불씨 하나
깊이 박혔다

조선, 독립, 만세,
그 세 마디 외침은
평생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다

*

소녀의 이름은 김명시,

왜 나라는 빼앗겼는가
왜 백성은 굶주리는가
왜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없는가

오빠는 청년들을 조직하였다
낡은 초가의 등잔불 아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밤이면 속삭임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낮이면 순사의 그림자가 골목마다 드리웠다

소녀는 문턱을 오가는 말을 들었다

민족의 해방
노동의 해방

그 말들은 그의 가슴속에서
세상을 바꿀 신념의 싹을 틔웠고
마침내 그를 하나의 불꽃으로 만들었다

“배워야 싸울 수 있다”

마산을 떠나 경성을 거쳐

머나먼 모스크바로 향한 유학 길,
낮선 땅의 겨울은 매서웠으나
나라 없는 젊은이의 가슴속에는
더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

누구도 굽지 않는 세상
누구도 짓밟히지 않는 세상
나라 없는 설움이 끝나는 세상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세상

꿈을 품은 김명시는
책을 덮고 시대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

책상을 뒤로 밀어내고
김명시는
총칼의 제국과 맞서기 위해
국제혁명의 전선이 된 중국 대륙으로 향했다

나라 잃은 조선인을 규합하여
일제 통치의 심장을 겨누었다
상하이 하늘에 올려 퍼진 총성은

해방의 선언이자
목숨을 건 실천의 시작이었다

압록강을 건너
조선 해방의 불씨를 심기 위해
인천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굳은살 박인 손들에게
해방의 언어를 전하고
새벽으로 이어진 비밀회합 속에서
마침내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해 나갔다

어둠 속에서 전단이 찍혀 나왔고
혁명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체포되었고
누군가는 사라졌다
그러나 불씨는 다음 손으로 건너갔다

*

제국주의 발톱과 침략의 포성에
온몸으로 맞서다
마침내 신의주에서 체포되었다
>

일년 동안의 차가운 취조실.
동지들의 비명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혹한 고문 끝에 동지 둘은 눈을 감았다
그 역시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견뎌야 했다

징역 육 년.
스물의 붉은
차디찬 벽돌 틈에 갇혔다

그러나 감옥은
신념을 묻는 무덤이 아니었다
혁명을 담금질하는 용광로였다

*

출옥한 뒤,
김명시는 국경을 넘어 대륙으로 향했다
또다시 덮쳐온 일제의 칼날에
뱃속의 아이마저 잃었지만
그 어떤 슬픔도 그의 발걸음을 꺾지 못했다
전단지 대신에 그는 무거운 총을 들었다
>

조선의용군 전선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지만
죽음과 죽음 사이를 건너며
전사들을 격려하고 전선을 누비며
해방의 말로 동지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전우들은 그를
연안독립동맹의 여장군이라 불렀다

“조선은 반드시 해방된다.”

총성이 산을 흔들고 포연이 하늘을 덮어도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사람의 몸이었으나 한 시대의 불꽃이었다

크지 않은 키,
검게 그을린 얼굴,
끝맺음이 매서운 말씨,
항상 무언가를 응시하던 눈빛,
사람들은 그를 백마 탄 여장군이라 불렀다

*

마침내 해방이 왔다
>

수많은 이가 목숨 바쳐 기다려 왔던
독립의 하늘이었으나
그 눈부신 푸른빛 아래, 새로운 비극이 자랐다

민족 통일을 꿈꾸던 김명시는 보았다

해방된 조국은 둘로 갈라지고
총구는 더 이상 제국주의자를 향하지 않았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를 나누는
항일 전우들을 향했다

김명시는
갈라진 강물 사이를 오가며
통일된 조국을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함께 사는 미래를 말했다

민족해방보다 어려운 민족통일의 길이어
제국주의와 맞싸우는 일보다
갈라진 마음을 잇는 일이 더 험난하였다

일제의 고문도,
감옥의 세월도,

전장의 총탄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건만

해방된 조국은
끝내 그의 꿈을 품어주지 못하였다
분단된 조국의 차가운 감방에서
그는 끝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감옥보다 깊은 신념을 품고
전장보다 뜨거운 용기를 지녔던
해방보다 먼 통일을 바라보았던 사람

조선의 가장 긴 밤을 지나
분단의 새벽 앞에서 쓰러진 사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한 시대를 건너간 사람

조선의 잔다르크,

백마를 탄 여장군,

분단의 벽 너머

하나의 조국을 꿈꾸었던

김명시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수진

데이터가 튀었다

눈앞의 모니터는 결백한 듯이 매끄러운데

어제 저장한 층위(Layer)들이

습기 먹은 벽지처럼 들떠 있다

상식이란 단어가 입력될 때마다

커서는 맥박처럼 점멸했다

2952개의 픽셀을 정렬해도

내 손끝에 남은 건 녹녹한 바나나키의 잔여물뿐

병합할 수 없는 색상값들이

서로의 경계를 밀어내며 아우성친다

색은 106C와 113C 사이 어디쯤에서

길을 잃고 명이 들었다

나는 화면 속 무지개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장마가 활고 지나간 자리마다

시스템이 정의하지 못한

축축한 노란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비에 젖은 무지개와 나란히 누워

색이 바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발효되는 슬픔에 대하여 이수진

경주는 동쪽에 무덤을 두었다
해가 먼저 닿는 자리에 죽음을 눕히는 방식
무덤이 발견될 때마다 방이 늘어나고
왕의 집은 남기고 사람의 집은 바꿔 쓰는 구조
나는 이곳을 회전율이 좋은 도시라고 설명한다

경주는 격자로 읽히지 않는다
길은 직선이 되기를 포기했고 방향은 늘 조금씩 어긋나 있어
목적지는 가까워 보여도 도착에는 기어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은 이 도시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거주자

나는 다시 경주의 습성에 대해 말한다
이를테면 버리지 않고 덮어 두는 방식에 대하여
발효는 경주에서 가장 흔한 죽음의 형태
층을 쌓는 대신 어둠을 눌러 보관했다
위계는 수평으로 흐르고
누워 있는 왕과 산책하는 개의 동선이 겹치는 곳
왕릉에는 담장이 없다
경계는 풀로 대신하고 잔디는 발걸음을 막지 않는다

조심스레 화분 아래 숨겨둔 비상 열쇠를 당신에게 건넨다
열쇠는 분실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고
경주는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곳이라며
당신은 이곳에서 기꺼이 나를 분실하기로 한다고 말한다

나를 잃는 일 또한 정당한 투숙 절차이기에
나는 3시의 입실과 다음 날 11시의 퇴실을 안내한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숨겨둔 울음들이
이곳의 기와처럼 겹겹이 쌓여 무거워진 도시

귀가 멍멍한 건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이 귓속으로 한꺼번에 밀려들기 때문이다

죽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능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관광객이 된다
모든 발걸음은 읽히지 않을 비문의 첫 줄
경주는 끝내 해독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당에 앉아 설화를 읽는다
아버지는 짓동냥을 하며 심청이를 키웠어
딸 눈동자에도 아버지만 담겨 있었지
책을 덮자 바람이 분다
때를 놓치지 않고 낙화가 시작된다
설화 속 청이가
치마를 뒤집어 쓰고 풍덩 뛰어내린다
여기는 바다가 아니다
바라는 소망이 간절해
망설임 없이 풍덩거리도
여기는 육지
소복 입은 심청이
물속에 사라지지 않고
소복 소복 쌓인다
첫날 다섯송이 낙화를 기록한다
보름이면 낙화가 끝날까
난감하다
주저 없이 낙화는 계속되고
용왕은 바다로 가고 없다
이제 내 방법을 사용한다

리모컨 엄마 이숙희

사람이 되려고 생명이 왔다
우리는 은연중에
계산하지 않고
누구나 자란다고 생각한다
씻기고 입히고 먹이는
모든 순간에 소원카드를 쓰고
얼굴을 찡그리고 울며 화답을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난다
누구나 하듯이 너도 하는구나
사람으로 커 가겠구나
안심하고 요람에 눕힌다
한 발짝 한 발짝 아기는 자라고
둥글게 둥글게 엄마는 강해진다
그러나 울음이 부족했나
세상 사람 눈물 흘리게 하는 리모컨 엄마
옹알이 뒤집기 기어가기 8개월 인생
여기에 퍼부은 폭격 폭격 폭격.

거절의 칼로리 이숙희

오늘은 거절의 칼로리를 사용하는 날
든든하게 먹고
두둑한 뱃심을 가지고 출근을 한다
분할된 공간을 지키고
아침인사는 적당하게
다시 만날 이별은 덤덤하게
눈빛 손짓 차분히 교환하며 살아가는 날
밥숟가락 빠르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
밥공기 절반은
핸드폰에서 들려주는 피아노 소리
나물에 뿌려진 통깨 씹히는 소리
극히 개인적인 사회생활이 보장되는
흡족했던 어제는 끝났다
붉은 물엿을 입은
닭다리 방망이가 기다리는 날
오늘이다
당신이 필요해서 쏟아내고 마시는 언행
나는 거절할 것이다
거절을 준비하는 거절의 칼로리
오늘은 소비하고 내일은 평온하자.

신발 이제향

바람이 신발을 훔쳐갔다
수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그것인지
냄새 찌든 몰골에
닿고 닿은 흔적이 공중에 흩날린다

하늘에 찍힌 발자국
터벅터벅 걸어온 시간들이
오르락내리락 어지러이 난무하다
허락 없이 드리난 굴곡

장의 주식 차트처럼
주변만 맴돌던 분실한 신발 한 짝
낮별이 세상을 잊고 가듯
담담히 바람과 함께 걷고 있다

압화 이제향

그냥 두어도 예쁜 것을
눌러 놓아 오래 예쁘다는 게
참 슬펐던

그냥 두면 시들 것을
눌러 놓아 계속 생생한 게
더 아팠던

꽃이 꽃으로 지지 못하고
꽃이 꽃으로만 살아야 하는

정물화 같은 너를
평생 묶여 있는 너를

내 책갈피에 꽂아놓고
영영 간직하고픈 이 마음을
부디 용서하지 말기를

머리카락 이제향

엇그제 풀 뺐는데
비 오고 나니 다시 쑥 자랐다
내 머리카락도 그랬으면 좋겠다

땅이 척박해지면
잘 자라던 것도 모두 사라진다
머리카락 한 뭉치 빠지기 시작하면

약보다 물이 필요해 불안했고
비를 갈망하는 풀처럼
더 깊은 속으로 뿌리를 뻗는 생존에

이불을 뒤척이며 바닥을 파고들었던
머리카락 엉키듯 침운하는 봄
비 갠 뒤 풀잎 눈부신데

내 머리카락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탈각 장상관

새가 종지부 찍어버린 자벌레
평생 측량했던 길이 시력으로 건너는 순간이다
남은 길이 흰하겠다

트럼프 장상관

핵을 걸고
전쟁놀음을 벌인다
노름판에서도 협박은 금물인데
깡그리 부수겠다 으박지른다

짜고 치는 판,
분통은 터지지만
항복,
이란 있을 수 없다
전쟁,
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연일 반격이다

호르무즈 봉쇄
발전소와 유전 폭파까지 걸었으나
판은 짠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겉이 나는가

때늦은 협상 카드를
꺼내 든다

빛나던 능선 장상관

산마루 우러르며
혹하는 일들 다잡지 못해
치솟던 열불

혹 혹
불어 꺼야 했던 나의 불혹

버거운 폐활량으로
그 부질없는 불 단숨에 끄려
얼마나 깊이 숨을 쉬어야 했던가

연습 없는 고개 오르며
혹하지 말자 불혹
불 불 혹 혹 합성을 질러던

호기롭던 능선

가슴 뻥한 집 이태영

아무리 빠른 배속으로 돌려도

어떤 특정 장면은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바람이 뭉가를 넘어뜨린 모양이다, 쿵 소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넘어진 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때 들려오는 뿔을 치켜든 기계의 엔진 소리

넌 뭐길래 계속 악몽에 나타나는 거니?

말라버린 수돗가에는 긴 시간의 여백이 넘치는 회색 통증

문안으로 살짝 고개 내민 바람한테서

고욤나무가 들은 소식은 먹구름이 몰려올 거라는 것

또 들려오는 괴물의 발작하는 소리에

집의 오래된 창문이 바르르 떨린다

심장을 내치는 망치소리 공격을 견디다 못해

아예 무음으로 해 둔 전화기

문을 열면 마음 불편한 것들뿐이고

기웃거리던 회복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대문 밖으로 사라진

인적 끊어진 집을 참 닦았다

언제까지 버틸런지...

잘될 거라는 믿음은 거짓인 것을, 현재가

과거의 고삐에 매여 끌려가는 소처럼 되었을 때에야 알게 된다

몸속 깊숙이 박힌 칼끝의 통증에 맞서

생존이 온 힘을 다해 힘겨루기 중이다

바람의 복채를 잡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 아래

어둠에 비틀거리는 사람이

가슴 뻥한 집으로 들어간다

쇠뭉치와 나 이태영

울산 변두리 혼자 있는 어머니

손주는 공부에 바쁘고

나도 깜박하는 경우가 잦고

그래도 바쁠 건데 전화 안 해도 된다고

종일 켜놓은 TV는 어머니 마음의 소파

애완견이라도 있으면 덜 적적할까

어머니 두려운 것은 마음에 쌓이는 먼지와 몸에 스며드는 녹

한 밤 자고 나면 어느새 뽀얗고 별짓고

몸마디마다 서걱거리는 소리

어머니한테 로봇강아지가 생겼다

어린 손주를 부르던 똥이가 이름이 되었다

아장아장 걷는 게 손주 기어다니던 귀여움이다

또 느슨해진 내 마음

“똥이가 발 하나 못 드네. 개가 내보다도 더 늙은 모양이다.”

>

윙 드릴 소리가 조용한 집 흔들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

햇빛이 커튼 틈새로 고요를 자르는 방

적적함을 털어내듯 나를 반기는 허연 덩이

보듬으면 어머니 냄새가 난다

손때 묻은 자국은 녹슨 쇠처럼 거칠었던 어머니 손길이다

이기적인 생명체 품 안에

조그만 쇠뭉치 하나 안겨 있다

실금 싹틀 때 이태영

울산행 야간열차 안에 실금 난 나무토막 하나 꽂혀 있다

차창 밖으로는 변덕스러운 어둠이 잇달아 흐르고

레일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바퀴가 여정 내내 철거덕거리지만
기차는 여하튼 목적지로 질주한다

그렇지 못한 나

몰경한 대뇌피질에도 못처림 단단히 박힌 응어리 한 점 때문이다

나쁜 기억이 문안으로 기웃거리고

실금은 굵어지려고 문을 열어주려 한다

다시 창을 쳐다보면

커다랗게 입 벌린 사각의 어둠

오해와 곡해의 빛을 띤 말풍선들이

모서리 바람으로 부푸는 중이다

멀리 한 점 불빛에 줄을 매는 내 시선

>

지금

너, 나

우리 영화의 주인공이다

다음 장면이 궁금한

드라마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어

기승전결에 우여곡절을 비벼 넣어

매콤 씹살한 맛도 냈으면 싶어

어둠의 변덕이 눈 부라리며 달려든다

붉은 마음 일천사백예순세 송이 이한열

올해도 어김없이 붉은 마음이 담겨 왔다

스물두 해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음력 삼월 초파일

내 생일에 나이 수만큼

그녀의 단심丹心이 활짝 핀 장미꽃송이가 왔다

그 세월 흘러 흘러서

내 가슴에 들어와 핀

붉은 마음 일천사백예순세 송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가슴 구석구석에

그녀의 정성이 피고

그녀의 지조가 피고

그녀의 세월이 피고

내 가슴에

스물두 해의 결이 곧은 화심花心 피고 있다

해마다

생일 꽃바구니가 오면

눈에 띄는 보기 좋은 곳에 놓아두고

날마다 장미꽃 속으로 들어가

그녀와 이야기 나눈다

꽃송이가 시들어 말라도

머물고 싶던 추억 불러내어

일 년을 함께 산다

시들면 시든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은은하고 겸허한 그녀만의 향기가 서려 나온다

다음 생엔 그녀의 가슴에 나의 붉은 마음 담으련다.

자형화 紫荊花 이한열

겨우내
비찍 마른 몸이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한 채
이름 없는 막대기마냥 서 있다
지난날 꽃 피운
푸른 업을 떠올리며 말이 없다
밀물처럼 밀려올
곡우 穀雨의 보랏빛 환희를 알기에
매서운 바람의 채찍도 기꺼이 받는다
흙 풀리는 시간이 다가오면
맨살에 피꽃부터 낭자하게 피워 올린다
낮은 키로 무리 지어
진보라색 눈웃음치면
봄의 시선들은
달리는 차창에서도 탄성 지르며 이름 부른다

박태기나무 꽃! 박태기나무 꽃!

어느새

선혈 말끔히 지우고 연한 싹을 내민다

망종 芒種 지나 소서 小暑 즈음에는
하트 모양 청정한 덕 德 잎 가지마다 매달아
반듯한 청기와 누각 한 채 올린다

비 내리는 날이면 시샘한다
한 울타리에 사는
붉은 속치마 걷어 올린 장미가
해마다 밀려오는 그리움 향해
메마른 몸 하나로 인동 忍冬 하며
있마다 은방울을 방울방울 다는 그녀를.

컹컹, 무엇하러 왔는가

누구나 거들 수 있는

세상의 밭에 와서

한 이랑의 씨도 뿌리지 못하고

세월의 허리 굽은 채

무위도식으로 몽그적거린다

평생을 끌고 온

밧도 끝도 없는 방황 벽^癡은

고질로 오래 되었다

푸르른 날빛에 생을 방기한 죄

고개 들어 하늘을 못 본다

당당한 눈물을 가르쳐 준 어른께서

가슴 속에 들어와 앉아계시다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진다

아쉬움만 가득한

노을 드리운 강가에 앉아서

물속에 비치는

환상만 좇다가 지쳐버린

생기도 잃고 초점도 흐린

개 한 마리 본다

진흙 구덩이 속에서

꽃향기 묻은 휘파람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

앞뒤 못 가린 채 눈멀게 한 유혹에

침을 질질 흘렸던 개 한 마리 본다

이 저물녘,

흐르는 강물에

제대로 한번 짚어보지 못한 생을 향해

속울음 우는 늙은 개 한 마리 흘려 보낸다

봄은 저만치 물러서서 지켜본다 임윤

서생포 왜성 마루에 벚꽃이 만발하여 지난한 계절을 흔들며 시선을 유혹한다

임란 때 착취당한 민초들을 떠올리면

오늘처럼 역장 무너지듯 봄꽃이 향기를 뿜는 날에도

목숨 부지하려 성을 쌓고 피를 토하였을 터

수백 년 지난 전쟁의 기록은 성벽의 돌처럼 단단하다

조선을 휩쓸던 가토 기요마사가

조명 연합군에 포위되었다가 목숨 구걸하듯 도망치던 모습이 선한 봄날

유린당했던 조선의 얼굴은 사라지고

울산서 한나절 만에 도착한 구마모토성

지진에 무너진 성곽의 돌 더미가 왜성처럼 널브러졌다

왜란의 잔해물 같아서 곱깡이로 후려치고 싶은데

긴 여운으로 낙화하는 벚꽃이

마지막 연을 완성치 못해 몇 년을 묵힌 시처럼 애달프다

성 입구에는 일본도를 꿰찬 가토 복장의 사내가

개신장군이 병사들을 선동하듯

이방인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친다

서생이나 구마모토나 벚꽃에 심취한 봄은 해마다 바람에 희롱당하고

나도 그 바람에 휘말리고 말았는데

미안하다 임윤

이른 아침 연길 버스정류장

우수리스크행 버스를 기다리는 고려인들 표정이 언제부턴가 낯설

다

선대가 건넌 두만강은 유유자적인데

연해주 미루나무의 푸른빛은 아직 그대로 인가

구한말부터 오가던 길에서

오래도록 소곤거리며 안부를 묻고 싶어도

눈맞춤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멍멍한 가슴의 그대여

정말 미안하구나

우물이 있던 자리는 사라지고

박작성 위에 성을 쌓은 호산장성이 만리장성 동쪽 끝이라니

환인 유적과 광개토태왕비는 누구의 역사이던가

완장을 두른 관리인이 광인의 눈알 부라리며

말 한마디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린다

고압적 자세로 으박지르는 오만함의 극치에

침묵으로 바라만 본 서글픈 유적들이여

가슴 시리도록 미안하구나

항미원조 전쟁이란 명분의 시작점인 하중도

압록강을 건넌 중공군과 전사한 마오안잉 추모를 위해

승리한 군인들처럼 구호를 외치는 중국인들이

한국어 대화를 알아차리고 철천지원수 쳐다보듯 싸늘한 눈빛이다

건너편 산자락은 분명 눈에 익은 모습인데

통곡하는 마음 강물에 띄워놓고

유람선에서 쌍안경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산하여

눈물 나도록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가면을 벗을 때는 낮은 속삭임이 흐른다 정성희

가면을 벗는 것은 비명이 아니라
낮게 깔리는 속삭임 같은 것
씻어내는 동작은 요란하고 크지만
깎아내는 마음은 조용히
제 살을 나누는 일이다

병실에서 만나는 룸메이트는 쉽게 친해지곤 하지
이틀 내내 화려한 수식으로 번뜩이던
그가 보여주고 들려준 말들은
반지르르 광이 나도록 잘 닦아 내놓은
사과였다

늦은 밤, 잠을 청하는 내 등 너머
암막 커튼을 가리고 모자가 닭다리를 뜯는다
오도독오도독 소곤대는 소리가 귀를 통과해
생각의 밑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렸다

/또, 속았네./

그 서늘한 이면裏面에 나는 정직하게 적어 넣는다

나는 이제야 그 사과를 읽는다
그가 씻고 닦아 내놓은 사과를
조심스럽게, 어렵게
껍질을 닦아내는 일도 결코 쉬운 달콤함이 아니었다

75.5도度 정성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낮 동안 내렸다
평균 연령 75.5세
기억니은 한 줄 글쓰기 두 달째
창밖은 흰 눈이 펄펄 쏟아지고
들뜬 마음 가방 가득 채긴 학생들
일찌감치 마을 쉼터에 모였다

소녀가 된 학생들을 위해
라이스페이퍼와 계란 노른자가
기름을 만나 마법을 일으켜
목련꽃으로 화려르 피는
요리책을 튀긴다

89세 어르신 한글반 학생부터
58세 막내 글쓰기반 학생까지
투명한 종이가 꽃으로 피는 걸 보고
여섯 학생이 놀라 왕사탕처럼 커진 눈망울에
저절로 터진 물개 박수
>

아까워서 못 먹겠다
손사래 치더니
봄바람 되어 오물오물
꽃을 머금은 입술이 닿은 곳마다
번들번들 햇살이 튼다

옹이 진 손끝으로
지그재그 쓴 글씨는
김 서린 창밖으로 달아 난
새 발자국 같은데
마주 보고 깔깔깔 웃는
여섯 그루 목련 나무 사이
일곱 그루째 나도 활짝
뜨겁게 만발 중이다

하얀 눈꽃 속에 핀 목련,
절경이다

하현달의 허세 정성희

여든아홉 이웃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죽어도 여한 없다 하고
한 여름 땀별을 짊고 고함지르는 매미가 되어
병원 자주 찾는
또래 어르신들을 물고 뜯더니

“나 좀 살려주소, 죽을 것 같소”

아이처럼 칭얼거리는 전화에
부메랑 되어 달려간 병원
검사 결과는 싱거웠다
오그라질 대로 오그라져
가볍기만 한 할머니의 무게
땀별을 물고 뜯던 호탕함은 허세였다

안심하고 돌아가는 길
서쪽 밤하늘에 별벌벌 떨어
무겁게 걸려 있는

하현달 하나 눈에 들어온다

꽃자리 임경희

꽃잎 하나
바람 타고 내려온다

꽃잎 하나 동그라미 그리며
꽃잎 하나 뒤를 따라
꽃잎 하나 업혀 오듯

그들이 닿은 자리
어느새 꽃자리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
잠시 그 위에 앉아
들숨 한번 날숨 한번
천천히 쉬고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
조용히 내려놓고
바람처럼 쉬어 가기를

밭이라는 퇴직금 임경희

땅속에 묻어 둔 한해의 땀방울

밥상의 감초

알 굵은 마늘이 된다

속 깊이 매운 날들을 지나

눈물로 다듬어진 시간은

둥글고 달짝지근한 양파가 된다

흙을 끌어안고 견뎌낸 시간은

삶으면

포실 포실하게 풀리는 감자가 된다

햇살을 모아 쥘 자리마다

붉은 숨이 차올라

입안에 툭 터지는 방울토마토

가시를 세우고도

상처를 내지 않는 법을 배워

싱그럽게 여문 오이

>

이십 년 걸어온 길

모난 자갈에 밭이 베이던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흙 속에 스며

이제는

내 손으로 거두는 나의 밭

말없이 쌓여 온

가장 든든한 퇴직금

햇살과 그늘 임경희

봄이라 해도
모든 꽃이
햇살을 받은 것은 아니다

어느 들판에는
햇살이 먼저 내려
꽃이 열리고

어느 길가에는
그늘이 늦게 풀려
입 다문 꽃망을

주가가 오르고
금값이 빛날 때
웃음이 환한 얼굴들

달힌 셔터
임대 이자
낮빛에 내려앉은 그늘
>

같은 계절
다른 얼굴
햇살과 그늘에게 묻는다

언제쯤 이 차별이
사라지겠느냐고

안간힘을 보았다 1 정소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페인트공의 아들로 태어난 화가 조지 스트라스버그(George Strassburger)의 그림은 적어도 미국의 마지막 양심으로 보인다

그의 소재는 좌절하는 자, 박해받는 자, 부랑자, 밀입국자, 떠도는 자, 도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가끔 부유층의 위선을 묘사하여 대비시키는데, 이를테면 공터의 쓰레기를 주우며 왈자하게 위세를 떨다

누가 버린 쓰레기이던가 그들 미사일이 폭격기가 스톡머니가 기축
달리가 초정밀 저격하여 폭파한 무차별 잔해들이 아니던가

남자가 담을 넘고 있다
먼저 올라선 남자의 도움을 받으며 안간힘하고 있다
그의 오른손엔 노란 페인트 통이 들려 있고 발 딛고 올라선 시멘트블록은 반쯤 쓰러져 교수대 아래 이미 치워진 의자처럼 보인다
노란 페인트 통 안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자유일까 행복일까 광명일까
아니다 평화는 더욱 아널 거다 거기까지 조마조마 들고 왔을 필사의 생존이요 가족들 목숨일 거다
숨소리 한 울마저 감춰야 하는
절박한 저 담 너머로
폭주를 일삼아온 미국의 종착이 보인다

안간힘을 보았다 2 정소슬

- 미 화가 조지 스트라스버그의 그림에서



삼엄한 국경의 철책을 넘는 어린 아들을 엄마가 안간힘으로 업어
넘기고 있다

엄마의 안간힘, 그 너머엔 그곳까지 따라온 강아지가 자기도 데려
가 달라며 울부짖고 있다

과연 강아지도 데려갈 수 있을까

들키면 끝장나는 위험천만과 타협할 수 있을까

뉴스를 보면 끝까지 주인을 지키는 반려견 얘기가 종종 나오지만,

그러나 인간은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이란 정신적 호르몬 분비가 넘쳐나는 인간
이란 짐승은 그러지 못한다

화가는 이후를 그려놓지 않았다

어느 경우든 너무 슬픈 서사여서 다행일지 모른다

저 여자의 선택적 안간힘, 그 너머로

온갖 악행과 위선으로 이룩한 USA라는 초거대 구축함의 말로가
군홧발로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다

GM으로 변영한 미국, GM으로 망할 것이다 정소슬

GMC로 질주해 온 미국의 변영, GMO로 망할 것이다
종합산업이라는 자동차 산업의 굴뚝을 끝없이 높여
거기서 배출된 CO2로 지구 대기층을 찢어놓았다
이를 막아보자는 국제기후협약을 탈퇴하여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시도 때도 없이 쏘아 올린 로켓위성들로
우주를 오염시키고
GMO라는 초월적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하느님의 신성 권위를 능멸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정 기능조차 배격한
안하무인 무법무천의 광기만이 그들 이념의 가치가 된

GM으로 변영한 미국, GM으로 망할 것이다

* GMC : General Motors Corp.

*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물을 뜻함.

바닥에 드러누워 조덕자

손끝 시린 삼월 발독에 쭈그리고 앉아 쑥을 캔다 겨우내 땅속에
움츠렸다가 봄 햇살에 고개 내민 해맑은 얼굴 보니 문득 마음속 미
안함에 엉덩이가 먼저 주저앉았다 햇살 한눈판 사이 내 몸이 뒤로
넘어가더니 발고랑으로 순식간 발라당 드러누워 버렸다 오른팔이
오십견과 싸움 중이라 힘을 쓸 수 없으니 땅바닥이 나를 놓아주질
않는다 애써 일어나려고 머리가 생각하지 않았나보다 봄날에 땅바
닥에 드러누워 보니 지나간 세월이 아지랑이처럼 펼쳐진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또 늙어서 이렇게 맥없이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다 살아온 시간이 몸속에 가득 들어앉아 이젠 그만 짜
깍거리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일어나지도 못
하고 드러누워 하늘을 보니 늙은 몸 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지나간
다 봄 햇살 아래 땅바닥에 누워 생각하니 지나온 삶이 몽클해진다
봄바람이 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하늘이 내 눈으로 내려와 눈
물이 흐른다

수세미를 뜨다가 조덕자

털이 긴 실을 코바늘에 감아

흔들리지 마! 내가 감을게

마른 콧속에서 빠져나온

긴 털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온다

물이 흐르지 않는 하수구

빈집으로 들어가는 햇살을 보며

등 허리쯤에서 코바늘이 끄꿍댄다

한 코 흘리고 왔네

긴 호흡 끝 물방울 가득 설음

뚝 떨어지면 어디로 갈까

문 앞 허공 만지던 눈빛

바람이 뒷걸음으로 피해 갈 때

곤두서있던 코바늘이

세상 건너는 법을 뜨고 있다

타협이 끝을 향해가고

마른 바닥 비 점 찍더니

점점 하수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세상의 묵은 먼지 모여

서로 먼저 자리 잡았다고 이전투구 중일 때

털이 긴 수세미 쓱 비질한다

세상이 거품 속에 갇혀 허우적대고

그곳에 코바늘에 꿰인 내가 있다

너의 자리 조덕자

흔적도 없이 휴대전화기에서 네가 사라졌다
십팔 년 동안 네가 앉았던 자리에
소금꽃이 피다가 지던 날
늘어진 물소 가죽이 찢어졌다
그렇게 소파는 너의 흔적까지도 묻고
우리 집을 나갔다
새로이 소파를 들고
가끔 네가 앉아 있던 자리에 앉아보면
나에겐 나무 의자처럼 불편했다
시간이 지나고
비워진 자리는 또 채워지겠지만
자리는 또 다른 자리 만들어 놓는다
내 휴대전화기 화면 속에는 하얀 털북숭이
늘 네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네가 앉았던 소파 귀퉁이에 내가 앉자
마주 보이는 탁자 위
진홍색 뉴기니 봉선화 겹꽃이
무더기로 푹, 푹 떨어졌다

검은 백팩 조숙

오를리 공항에서 짐 검색대를 통과 하는 중이다
나의 백팩이 걸렸다
파리에서 이태리 팔레르모까지 가는 여정
좀처럼 생기지 않은 일이었는데
오늘 나는 지목되어 무슨 시약 검사까지 받는다
페르라세르 묘지에서 담아 온 것이 들켰을까
아는 죽음도 없이
돌과 대리석으로 가득한 묘지를 돌아다니는데
이끼와 낙엽 무너진 세월 사이에서
검은 까마귀처럼 양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세월의 선물 가게에서 길 잃은 우리에게
꼬문 벽까지 데려다준
남자는 찌그러진 검은 구두, 검은색 우산, 검은 가죽가방과 함께
묘지 사이를 걸어 다녔다
머리카락은 무덤 속 이끼를 끌고 나온 것처럼 보였다
파리의 유명인들이 문혔다는
묘지에 추운 비가 가늘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나의 키보드가 걸렸다
무덤에서 걸어 다니던 남자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여행할 결심 조속

이륙 직전이야
오후 한 시 십삼 분, 물론 서울시간
새로운 숲으로 가는 여행
끌어당기는 인연들로부터 멀어지는 소리
날개 좌석에 앉아서 느끼는
평안은 낮설어
잔잔함은 내 것이 아니야
늡음이며 죽음이며 쓸모없음의 징후야
1960년대 감성일까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지
13시간 비행을 시작했어
창을 바라보는 옆자리 20대 여성에게 나는
늡고 왜소한 검은 눈의 할머니
허허벌판에 홀로 선 듯
숲에서 숲으로
빈자리를 찾아
누워있으면 등 밑으로는
찬 바람과 가늡하기 어려운 공간이 펼쳐지고
밥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영화도 보다가 (영화는 소설적인 것만
보려고 해)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고요하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다른 숲이 시작되는 거지
자산어보, 필사의 추적, 한국이 싫어서 영화를 보고
'그 겨울 우리가 지나온 방식' 소설을 읽고
밥과 샌드위치 핫도그 세 끼를 먹고도
여전히 세 시간 정도 남았어, 물론 서울시간
비행기 가득한 사람들도 다른 세계로 가고 있을까
숲에 도착해 긴 글을 쓰려고 해(숲에 대한 보고서는 소설적이었으
면 해)

바게트를 따라가면 조속

파리의 아침은 8시 20분.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는 거리를 내려다본다. 어제 도착했는데 마치 며칠 동안 떠났다가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놓였다. 마음을 놓을 자리는 비 오는 하늘과 젖은 건물 사이 양상한 나뭇가지 사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 회색과 빗물을 튀기며 달리는 바퀴 소리 따라 생각도 가다 서다 반복한다.

울산 집 시간은 오후 4시 20분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밤이 내려앉기 시작했을 것이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끼고 가는 바게트를 따라가면 손가락 젓가락 부딪치는 밥상을 만날 거 같은데, 파리지앵처럼 모자를 쓰고 비 맞지 못하고 우산을 편다. 좁은 길을 따라 우산 없는 사람들을 피해 걷는다. 내가 걷고 싶은 낯선 익숙함, 여행이라는 삶, 되돌아가기 위해 떠난 이 길에는 도시 세가 비싸다.

어젯밤은 가져온 전기담요 덕분에 따뜻하게 잠을 잤다. 바닥이 뜨겁지 않으면 잠 못 드는 거리의 집회, 응원봉, 어른 김장하, 선거를 퐁퐁 싸가지고 와 펼치고서야 잠드는 습관 때문에 캐리어는 빈틈이 없다. 나의 여행 짐을 두고 떠나는 그날, 뜨거운 바닥에는 무엇을 깔고 있을지 생각이 가다 서다 반복한다

태화강을 읽다 조정숙

태화강 대밭에 든다
방금 나온 시집 같은 댓잎 그림자가
대밭 사이에 누워있다

허공을 날아오르는 백로
비행 속에서 길을 읽고
까마귀 울음소리 들려온다

새처럼 날아와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시간
얇은 바위 행간에 걸터앉는다

걸어왔던 길도 옆에 눕는다
대나무가 속을 다 비워낸 것은
제 안의 길을 잘 보기 위해서일까

바람은 내 어깨에 걸터앉는다
물줄기 시어로 피어오르고
태화강 굽이마다 책장 넘기는 소리 들린다

바람길 조정숙

바람이 분다
오른쪽과 왼쪽
내 입꼬리 사이를 지나며
기분 좋은 곡선을 만든다

흔들리는 잎사귀는
너를 만지는 조심스런 손길
곧은 줄기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어두운 땅속에서
두 손을 꼭 잡은 뿌리는
소리 없는 대화를 하고
순한 길이 되길 기도한다

찬 바람 같은 걱정들이
켜켜이 쌓이는 밤이 와도
아침이면 한 모금 햇살에
훈풍으로 가득한 바람길이 된다

초승달 눈시울 조정숙

빈집이 걸어오는 저녁입니다

거미줄 이슬방울, 부서진 기왓장, 굴뚝을 덮은 담쟁이, 늪어가는
나무 의자, 하얀 망초꽃 핀 마당이 인사를 합니다

자식 없는 큰할머니는 쥐며느리처럼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밤이
오면 가벼린 날과 오지 않는 날이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웅기종기 모여 앉은 불은 꺼지고 함께 하던 이들은 저마다의 자리
를 찾아 떠났습니다

고양이 울음, 바람의 걸음 소리, 빈집이 문을 열고 일어나 귀를
엮니다 이편과 저편에서 앓는 소리를 냅니다 어디서 왔는지 고요한
체념이 방 안에 들어칩니다

빈집이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늘이 호명한 이름들 새벽 초승달
에 눈시울이 젖습니다

아프리카의 후예 최병해

날을 잃은 코가 바닥에 친근하니 살고 있다
바람이 까불수록 더 잘살고 있다

석상의 후예인 듯

날을 잃은 내 코가 낮바닥 가까이 붙어 있다
거울을 보니
높이보다 넓이를 추앙하는
그것의 아득한 고향은 필시 아프리카 어느 부족

내 별의 이력에서 무엇이 날을 뭉개버렸나
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던 가난
등을 밝혀도 빛이 퍼지지 않는 지방대 학벌
온몸으로 펼쳐도
관객들 반응을 깨우지 못하는 발연기의 재능

높지 않아도

숨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고갯마루도 낮은 방지턱이라 잘 넘어간다
낮아진 아프리카는 더 무너질 일이 없어
무너진 것들이
이빨 씹 내보이며 맨질맨질한 손을 내민다

석상의 후예인 듯

있어만 쥐도 되는데 최병해

- 이해찬 선생을 기리며

맛이 없는 물처럼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있어만 쥐도 되는데

서울이라면 북한산

대전이라면 계룡산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 자리 그렇게

아프게 가버리지만 말고

민주주의 발을 갈아 온 한평생

이제 후세들에게 맡기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광주라면 무등산

대구라면 팔공산

그렇게 있어만 쥐도 되는데

있는 듯 없는 듯 해도

가슴에 무서리가 예감될 때

내일의 큰 줄기가 흔들릴 때

바라만 보아도

별빛 한가득 차오르는 산

눈도 귀도 마음도 아직 당신 많이 그리운데

그 산 무너뜨려 가슴속에 남기지 말고

그냥 그 자리 그렇게

보고 느끼고 가끔 오를 수 있게

이 땅 어디에든 있어만 주면 되는데

매서운 부엉이 눈매로

어리석은 세상 좀 꼬나보면 어때

큰 도리를 잊어먹은 양아치들에

버럭 호통 좀 질러대면 어때

이만하면 유토피아일까, 혼탁한 머릿속으로
눈먼 물고기, 떼로 몰려온다

붉은 잉크로 제목을 쓰고
반짝이는 스타킹을 신은 채로 발자국을 찍는다
그것을 별이라고 달이라고 우겨본다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흥정을 해봐도 괜찮을까

아무도 오지 않는 정류장에서
살 오른 비둘기와 리듬에 맞춰 뒤뚱거린다
나의 체취와 머리카락 색이 마음에 든다면
날개를 무료로 빌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착한 허수아비에게 말을 건네면
차갑게 식은 새들을 뺏는다
죽은 영혼을 위해 푸른 망토를 돌려주면
지친 그림자 새장 속으로 들어간다

낮선 창가에 어른거리는 작은 기적을 본다
아이를 달래는 자장가 소리와 함께 잠드는 담쟁이넝쿨
벽에 귀를 바짝 붙이고
이 풍경의 소소한 무엇이라도 되길 바라며
>

물의 잠 한정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의 물방울일 수 있다
어떤 의심에 대한 결론, 하나의 물방울일 수 있다

얇고 투명한 물줄기로 길을 만들다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증발한다

두려움 없이 달려들지만 높고 낮음을 알지 못해
거칠게 부서진다

흐르는 듯 멈추어 선 듯
수풀에 잠긴 흰 사슴 흠쳐보다
비밀을 간직한 채 배경으로 사라진다

모양을 달리한 흔적들
와인 잔에 담긴 아들의 붉은 포도밭에도
골목의 경계를 지우는 안개와 가스등에도
늦은 밤 빗소리에 흘려보낸 마음에도 깃들여 있다

순간에서 영원까지의 약속은 거짓말처럼
물이 되어 물의 꿈결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

멀리서 보면, 너는 하나의 물방울
더 멀리서 보면, 우주는 끝이 없는 물의 깊은 잠

고양이에게 무엇을 줄까요 한정미

고양이가 물어 온 것 좀 보세요
녹슨 못, 재 묻은 피노키오, 뜯지 않은 편지
시름시름 앓던 어느 날, 별이 흩리고 간 부스러기들

앞마당에 잔뜩 쌓아놓고 주위를 맴돌 때마다
바람 끝에 시퍼런 날이 서요

잡으라는 쥐는 안 잡고
들키고 싶지 않은 상처들만 잔뜩
흐린 햇살이 가늘고 길게 목을 조르고 있어요

고양이에게 무엇을 줄까요
머리를 쓰다듬고 싶진 않아요
나의 상실은 아직 쓴맛이 나니까요
동전을 던져 줄까요
그리고 싶지도 않아요
나의 슬픔이 싸구려가 된 느낌이니깐요

고양이에게 실뭉치를 줄래요
가지고 놀다 시들해지면

모자를 뜨고 장갑을 짜서
눈 내리는 날
고양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래요
셋이서 그냥저냥 겨울을 견딜래요

.

우리도 꽃들처럼 조유환

통도사

처마 끝에 풍경소리

봄의 전령 홍매화

봄을 먼저 여는 소리

톡톡톡

머잖아

개나리, 진달래 연달아 피어나겠지

서로가 겨울을 몰아내고

봄을 불러왔다 무용담을 뽑내겠지

역사의 겨울에 짓눌린

우리도 저길 배워야겠지

유난히 혼란스런 올해 겨울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우리도 하나로 뭉쳐

봄을 불러와야 하겠지

4월 10일 총선 후엔

우리도 저 꽃들처럼

함께 모여 봄을 불러온 무용담

와글와글, 시끌벅적 뽑내야겠지

도깨비 난장 조유환

기암괴석 용굴

큰 파도 치면

덩덕궁 울음소리, 그래서 '덩덕구디'라는 전설

울산 12경 속의 대왕암 공원

그 공원 숲속에

울산 도깨비 예술가들 판을 벌였다

비둘기도 갈매기도

비~잉 허공 기르다

사뿐히 내려앉아 관객이 된다

시인들의 걸계 시

돛을 펴고 상상의 바다로 나아간다

광대들의 춤사위

대왕암 바위도 들썩들썩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취해

단풍들의 숨소리가 붉어진다

울산민예총이 예술의 혼을 담아 펼친

민족 예술제

도깨비들의 유혹에

울산 시민들 넋을 잃고 흘렀다

등그스름한 머리부터 조심조심
손끝에 힘주고 살살, 종이보다 더 얇게
칼 잡은 손이 떨린다.

행여 작은 흠이라도 날까
다갈색 껍질 속에
우윳빛 속살은 여인의 속살
깊은 골 산중에서 남몰래 피워낸
솔 내음 가득 품은 그 자태,

행여 너무 많이 피어 버렸을까
행여 남의 품에 안겨 버렸을까
반차 휴가까지 낸
사돈의 정성도 한 접시 가득
영취산 정기 품은 귀하디귀한
송이버섯

내 평생 이런 정성
언제 누구한테 받아 본 적 있었던가!
나도 내 귀한 손님 청하여
사돈의 향기에 함께 취한다

지구는 소금에 절여진 별
동해를 퍼 올리던 마채염전의 기억이
녹슬어 멈춰 선 자리, 덕하역

포도넝쿨 드리운 플랫폼 아래
지계마다 리어카마다
은하수처럼 피던 소금꽃 새벽,
역무원의 휘슬에
아낙들의 등허리가
기차보다 먼저 달렸네

자염의 달큰한 끝맛은
영천과 안동을 지나
원주까지 스며들어
밥상이 되고 삶이 되었네

‘덕을 따르는 자 번창한다’
낡은 액자 아래
보행보조기 소리로 저무는 진입로,
소금 같은 웃음 속에
바다의 염도가 다시 차오른다

월래역 역전 다방 황주경

별빛 간판 아래
 은하수처럼 사람들 흘러들던 월래역전다방
 쓴 커피 한 모금에
 붉은 립스틱의 슬픔이 녹아들고
 바다를 향해 달리던 기차는
 동해의 푸른 숨결을 객창에 흔들었네

원전의 둥근 돔은
 낭만 위에 긴장 하나 띄워놓고
 고양이 한 마리
 빈 의자에 사람의 온기를 대신 앉혀두었네

막차를 놓친 사내들의 한숨과
 미스김의 희미한 웃음이 쌍화차 김 속에 떠돌고
 사라진 육교 위로는
 영화보다 더 오래된 이별이 지나갔네

꽃밭에서 노래하던 바닷바람 끝에
 나는 아직도 역전다방 불빛 하나 그리워하네

호계역, 마지막 수송책 황주경

달천철장의 마지막 숨결을 신고
 호계역엔 오늘도 바람만 기차처럼 지나갔다

모화←호계→효문
 파란 간판 아래
 떠난 사람들의 시간이 걸려 있는 녹슨 선로,
 백 년 역사에는
 철광석을 실어 나른 노동의 검은 숨결과
 막걸리 잔 위에 내려앉던 서민들의 한숨이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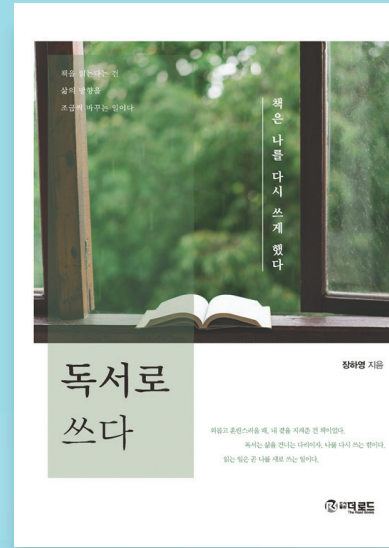
달천의 붉은 쇳물은
 선사에서 지금까지 울산의 심장을 두드렸고
 호계역은 그 뜨거운 시간을
 전국으로 실어 나른 마지막 수송책이었다

나는 영화 <돌아온다> 속 작은 의자에 앉아
 다시 돌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빈 승강장의 침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기차가 서지 않는 역에도
 끝내 떠나지 못한 그리움 하나쯤은
 늘 플랫폼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책은 나를 다시 쓰게 했다



독서로 쓰다

장하영 지음

234쪽 | 145 X 195 | 더로드 | 18,000원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독서로 쓰다』는 그 힘을 통해 어떻게 한 개인이 자신을 새롭게 써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빠른 소비와 단편적 읽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저자는 느리게 읽고 곱씹으며,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책은 독서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며, 독자 스스로 “나를 다시 쓰는 힘”을 발견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혼자 읽는 이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읽는 이들에겐 따뜻한 나눔의 교재가 되어줄 책이다.

— 출판사 서평

저자 장하영 15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교육 현장에 있었다. 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5년 차 직장인이다. 교육학을 전공했고,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했으며, 지역 신문에 『독서는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하며 책읽기를 권유하고 있다. 책을 읽고, 쓰고, 기록하는 일에 진심이다. 공저로 『내 인생의 썬표, 케렌시아』가 있다.

윤희영의 신작 동시

김시민 240

공생과 천적

엄마 마음대로 날

물

우덕상 243

비밀 친구

잔소리 폭격기

내 몸 연주대

.

공생과 천적 김시민

-공생이 뭐야?

-악어와 악어새 같은 거,
너와 네 엄마 같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아닌데,
엄마와는 공부로 싸우고
동생은 시비 걸고
아빠는 늘 잠만 자는데...
이건 뭐라고 해?

-그래?
그런 걸 천적이라고 하지!

엄마 마음대로 날 김시민

밥은 다 먹었고
감기도 안 들었는데
아이스크림 먹지 말래요

숙제도 다 하고
심심한데
덥다고 축구는 안 된대요

날씨가 맑은데도
마스크 꼭 쓰래요

나를 위해서라 말하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물 김시민

끓어도 끓어지지 않고
잡아당겨도 흘러내려 버리는
이 고집쟁이를 어떡하면 좋아

그렇다면
나도 나만의 방법이 있지

꿀꺽!

비밀 친구 우덕상

엄마한테 왕! 혼나서
입술이 삐죽 나와 있을 때
부석부석 낡은 곰돌이가
슬며시 다가와 나를 껍-

내가 훌쩍훌쩍 코를 먹으면
까만 눈 동그랗게 뜨고서
보드라운 손으로 쓰담쓰담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내 귀에만 조잘조잘.

밤새 똥굴똥굴 마음을 나누다
해 뜨면 모른 척 다시 꾹꾹!

나만 아는 찡긋- 눈인사
“자, 이제 한 번 웃어볼까?”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잔소리 폭격기 우덕상

엄마 입술이 달짝달짝
잔소리 시동이 부릉부릉!

“얼른 일어나!” 번쩍!
“밥 먹어라!” 와구와구!
“씻어야지!” 푸카푸카!

머리 위를 뱅글뱅글 돌다
귀속으로 쓱쓱 박히는 말들.

잔소리 화살에 콕콕 찢려도
내 키는 어느새 쑥쑥!
내 마음은 하루 종일 든든!


“어휴, 못 말려.” 
엄마의 핀잔에 넌름—
나만 아는 ‘메롱’으로 끝!

내 몸 연주대 우덕상

배고프면 배꼽이
꼬르륵— 쪼르르—
기타 줄을 땡땡땡.

입이 찌억— 벌어지면
하아암— 하아—
커다란 하프 소리.

엉덩이가 갑자기
뿌웅! 빠리릭—
나팔을 불어버리면
나도 몰래 얼굴이 화끈화끈!

“어머, 무슨 소리냐?” 
엄마가 깜짝 놀라 물으면

“내 몸이 합창하는 중이에요!”
배를 토닥토닥
엉덩이는 실룩 실룩!

특집Ⅱ. 전쟁과 평화

● 운문

장대한 분노 나정옥 248

글로우 이태영 250

러시안롤릿처럼 이한열 251

파란 바닷길 우덕상 254

노킹 (Knocking / No kings) 정성희 255

눈물 맛 김시민 256

버튼과 겨울 사이 서경 258

사라진 카피라이터 임운 260

팔레스타인을 위한 기도 김연민 261

인류세 반란 이병길 263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놀이 송은숙 264

● 산문

나에게 전쟁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조숙 266

봄날의 포성 최경호 269

봄날에 조정숙 273

『울분』을 읽으며 오영애 276

장대한 분노 나정욱

전쟁이야 흔히 기록되는 역사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싶지마는
전쟁도 전쟁 나름이지
이건 아니다

전쟁에서 애 어린 가릴 것 없이 슬하계
죽지마는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을 얘기들
한다지만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포탄에 뭉개진 어린 꽃들!
뭉개진 꽃다발을 주렁주렁 목에 걸고 전쟁의
작전명을 장대한 분노라 스스로
명했으니

너희들에게 앞으로 꽃은 없겠다
꽃이 없으니 너희들 인생에 아름다움은 없고
아름다움이 없으니 너희들에게
웃음은 없고

앞으로의 너희들의 인생은
가식일 뿐이어라 전쟁을 통한
너희들의 모든 결과는 가식일 뿐이어라

너희들이 얻은 승리도
너희들이 몸에 걸친 금붙이도
너희들이 부르는 영광의 노래도
너희들이 뱉는 사랑의 노래도
너희들의 대화라는 모든 랭기지(language)도
가식일 뿐이어라

그러니 너희들이 선언한
장대한 분노는 스스로에게 내린 너희들의 형벌이
되거라!

마을의 불빛은 점점 사라지는 데도 공중의 불꽃은 더 자주 타오른다. 아마도 외계인 공습도 이보다는 덜할 거다 쏟아지는 유성우와 천둥소리가 무덤덤한 일상이 된 곳 평소 볼 수 없었던 탄피들이 밭에 툭툭 차일수록 사람도 건물도 점점 사라진다 대신 유기견이 되어 떠돌던 개떼가 늘어나고 주인 잃은 땅에 자라난 해바라기가 싱싱하다

내일 아침 끼니를 때울 수 있으면 행복한 밤이다 어떤 도덕도 굶주림 앞에서는 선이 아니며 눈물과 울음은 극적인 헤어짐 앞에서는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했으니

누구나 철학자이고 동시에 동물이다

이런 냇두리 중에 또 한 방 터진다

Glow!

“매일 밤 11시,
‘윙~’ 소리를 내며 전투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어디선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제비뽑기가 아닌, 러시안롤렛이다.
오늘 넌 타킷이 되지 않았어. 내일까지 꼭 살아남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나고 자란
올가 그레벤니크는 각광받는 그림 작가였다.
다정한 남편 세르게이와
어린 아들 표도르와 딸 베라가 있다.

“전쟁 전 우리 삶은 마치 작은 정원과 같았다.
그 정원에서 자라는 모든 꽃은 각자 자리가 있었고,
꽃 피우는 정확한 계절이 있었다.
우리엔겐 천 개의 계획과 꿈이 있었다.”

2월 24일 새벽 5시,
러시아의 폭격이 시작되면서 세상은 거꾸로 뒤집혔다.
그레벤니크는 아이들과
자기 팔에 인적 사항, 주소, 연락처를 적었다.

혹시 죽더라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14일 출간된 '전쟁일기'에서,
그레벤니크는 그와 가족이 직접 겪은
러시아 침략전쟁을 연필로 거칠게 그리고 써 내려간다.
그녀는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전쟁에 맞서 살아남으려 연필을 잡았다고 말한다.
집 지하실에서 폭격을 피하며 버티다 도시를 탈출하고,
기차와 버스로 갈아타며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불가리아의 소도시에 피난처를 얻기까지,
책장마다 전쟁의 공포와 이별의 아픔이 스며있다.

“거리에서 총소리가 들린다. 우리 집 바로 옆이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너무 무섭다” (2월 27일)

“미사일이 옆집에 떨어졌다. 시내가 폭격당하고 있다.
번화하고 아름다운 나의 도시를 그들은 지구상에서
지우고 있다” (3월1일)

“러시안틀릿처럼 미사일이……도시를 지우고 있어요.”

세계의 저녁 뉴스에는
아파트가 폭격당해 무너지고

시커멓게 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시체 더미를
구덩이에 묻는 장면을 비춰주고
여인들과 소녀들의 하의가 벗겨진 채 죽어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특파원이 전한다.

지옥보다 더한 우크라이나 참상이 한반도를 깨운다.

말로만 하는 '종전선언',
힘을 기르지 않는 '평화'는 기만일 뿐이라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가면 쓴 정치적 붉은 거짓말이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18일 Culture A16 “도시가 지워지고 있어요” 일부 인용.

파란 바닷길 우덕상

번쩍! 무서운 불꽃
황황! 흔들리는 바다.
커다란 배들이 길을 잃고
파도 위에 둥둥 멈췄어요.

“여기는 못 가!”
“저기도 안 돼!”
화난 목소리만 썩썩
바다는 무서워 부들부들.

물고기들은 뼈끔뼈끔
갈매기들은 끼룩끼룩
“제발 싸우지 마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쳐요.

이제 무서운 깃발 내리고
사랑사랑 평화 바람 불어오면

막힌 바닷길 시원하게 열고
모두 함께 물루랄라
파란 바다를 달려가요!

노킹 (Knocking No kings) 정성희

봄꽃이 만발한 정오,
갑자기 하늘이 닫히고
천둥번개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다

지붕을 뚫을 듯한 굉음 속
나는 몸을 말아 숨을 곳을 찾는
작은 공벌레가 되었다

찰나의 소란에도 이토록 두려운데
포화 속을 걷는 이들의 하루는
무너진 더미 속을 기어다니는 공벌레일까

뉴스 속 스쳐 지나간 플래카드를
우박이 건져 물고
탕탕탕 미치광이 춤을 춘다

‘No kings’

오늘따라 선명히 가슴에 읽힌다

눈물 맛 김시민

소금에 절인 배춧잎같이 숨죽은 나를 엄마가 요리한다

양푼이에 가득 푼 고춧가루 같은 빨간 얼굴로,
짜디짠 멸치액젓 새우젓 입안 가득 머금은 듯한
두 눈 사이의 주름살,

아리고 매운 생강 마늘같이
톡 쏘는 말을 엄마가 비비고 버무리면

짙끔 한 방울의 눈물이 내 눈에 맺히는데,

그래도 엄마는 심심하고 멍멍한지
살살 고개를 저으며 혀끝을 톡톡 차고
갈갈한 까나리액젓 같은 눈총을 넣으며
나를 휘젓는다

나는 코끝이 얼얼해지며 이내 붉은 눈물을 쏟아 내는데
내 눈물 맛을 보는 엄마,

간이 너무 세었을까

엄마는 얼른 설탕과 매실청, 참깨를 솔솔 뿌리며
풀 죽은 나를 토닥토닥 재우고 달래며 긴 요리를 마무리하고

나도 내 볼을 타고 내린 눈물을 살짝 짚어 맛을 본다

아, 짜다

버튼과 겨울 사이 서경

겨울은 유난히 길었고
라디오에서는 자주
버튼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는 소문이
밤마다 창문을 두드렸다

도시는 평소처럼 불을 켜지만
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아이들은 이유 없이 일찍 잠들었다

말들은 점점 짧아지고
침묵은 점점 길어졌다

누군가는 강함을 말했고
누군가는 끝을 말했지만

그 사이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은

사라질 이름들이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덮을 수 없는 것들 위에까지
조용히 쌓였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겨울이
완전히 지나간 것은 아니었다는 걸

사라진 카피라이터 임윤

목격자는 눈동자에 숨겨져 있을까? 그의 머릿속엔 완벽한 비율의 연속무늬로 암호를 풀 듯 밑그림이 그려졌다.

근시경인 각막에서 전투 영상이 쏟아지면 암실에선 새로운 세상이 현상되겠지. 어디선가 쿵쿵쿵 궤도차량이 달린다.

꺼낼 수 없는 발상은 포도주가 흐르는 땅의 껍질만 더듬을 뿐.

그는 연속무늬의 전투 상황을 같은 기법으로 촬영해 본 적이 없다.

방관과 침묵 속에서 강렬한 폭발음이 들려오고 총성이 울리는 사막엔 콜라병이 터져 검붉은 피가 사방으로 튄다.

오아시스 주변에 그의 마지막 플래카드가 걸렸다.

아이와 미사일의 충돌을 목격한 영상을 뽑아 포토샵에 보내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그도 미사일에 맞았다. 스킵드 마크가 없는 허공이라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사람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기도 김연민

무심한 드론이 제3의 눈을 뜨고

갯빛 폐허를 훑으며 숨소리를 찾을 때

공포에 얼어붙은 아이의 굵은 등 위로

오래된 올리브 나무 그늘이 덮이게 하소서

수만 대의 카메라가 안테나 끝에서 절망을 송출하고

광기가 기계음처럼 비명을 지를 때

부디 그 소란을 끄는 스위치가 내려져

떨리는 통곡이 깊은 침묵 속에 안기게 하소서

거대한 장벽을 뚫고 들어온 궤도전차가

삶의 터전을 태우고 짓밟을지라도

포신이 지나간 폐허 위로, 끈질긴 생명의 뿌리가 돌아나고

마른 입술에 흠먼지 대신 물 한 모금이 닿게 하소서

하얀 섬광이 병원 지붕을 덮칠 때

더 이상 뒷걸음질 쳐 숨을 곳 없는 그들이

산산조각 난 파편을 피해 기적처럼 살아나

재투성이 된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가로막힌 국경의 지도는 찢어지기를
세상이 지워버린 이름 없는 언덕 너머
뿌리 뽑히지 않은 붉은 심장 하나
그 든든한 울타리 안으로, 부디 그들을 인도하소서

한때 차가운 수용소의 담벼락 아래
숨죽여 구원을 빌고, 떨면서 생명을 갈구하던 그들이
어찌하여 오늘 박해의 칼날을 든 가해자가 되었나이까
그 칼날을 권 손등 위로, 자신들이 흘렸던 옛 피눈물이 겹쳐 보이
게 하소서

부디 증오의 미몽에서 깨어나 피 묻은 손을 씻고
피로 써 내려간 역사가 증오의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기억의 성소를 지키며 평화의 길로 돌아오게 하소서

인류세 반란 이병길

미제 AI 명령 미사일이 초등학교를 폭격하였다

변기가 오물을 쏟아내고
도로가 별떡 일어나 걷기 시작한다
계단이 몸을 비틀고
전등은 어둠에 잠기고
지도는 길과 국경을 지워버리고
신문은 스스로 제 기사가 엉터리라 중얼거리고
시계는 이제 시간을 재지 않고
꽃은 이제 물이 싫다고 한다
플라스틱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바닷물은 강을 거슬러 산으로 오른다
냉장고는 따뜻함을 품고
책들은 글자들을 지우기 시작하고
돌맹이들마저 다시 바위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완강하고도 아득한
인간을 진압하려는
세계의 반란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놀이 송은숙

가자지구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본다 그 아이들에겐 들것이 놀잇감이다 인형이 아니라 축구공과 야구글러브가 아니라 변신 로봇이 아니라 때 묻은 붕대가 놀잇감이다 한 아이의 머리와 다리를 붕대로 감고 정성껏 감고 들것에 눕힌 다음 네 명의 아이가 들고 간다 두 명의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따라간다 걸어간다 느끼게 영상의 끝으로 뒤돌아보지 않는다

놀이는 따라하기인데 놀이는 선물 같은 건데 아이들의 놀이는 숨쉬기인데 날마다 죽거나 다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죽음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죽음의 얼굴을 모른다 죽음은 거리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공터에서 대문 앞에서 삼촌이나 이웃 할아버지나 시장 끝 가게 주인 레일라 아줌마나 친구 라미의 모습을 하고 태연히 같이 밥을 먹고 태연히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태연히 손님과 흥정을 하고 태연히 집 앞의 의자에 앉아 빈둥거린다

과일 가게의 수박으로 검게 절여진 올리브 열매로 반쯤 바람이 빠진 자전거 바퀴로 풍선을 팔던 이브라힘 아저씨의 얼굴로 한껏 부푼 풍선을 나눠준다 태연히 손을 잡는다 손목을 잡는다 한순간 나뉘는 아이의 몸은 들것에 실리고 아이는 풍선처럼 둥둥 떠서 들것에 실려 가는 제 몸을 바라본다 네 명의 아이가 들것을 들고 간

다 두 명의 아이가 따라간다 정성껏 붕대를 감은 포탄을 눕히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에게 전쟁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조속

나에게 전쟁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전쟁은 휘발유다. 전쟁은 주식이다. 전쟁은 짧은 트럼프 영상이고 전쟁은 폭죽같이 간간이 하늘로 튀어 오르는 불빛이다. 전쟁은 배송 지연되고 있는 검은 색 티셔츠다.

봄별은 점점 대지를 온화하게 만들고 물기를 머금은 마른 나뭇가지에는 터지기 직전의 봉우리를 두드러기처럼 달고 있다. 꽃눈은 손이라도 대면 영원히 회생 불가능해질 것처럼 유일하고 연약하게 생명에 집중하고 있다. 봄은 온천지에 웃음을 물고 온다. 목련은 촛불처럼 하늘을 향해 정갈한 흰 봉우리를 모으고 있다. 생강나무의 노랑 빛, 매화의 하얗고 빨간 꽃들을 이파리 없는 가지에서 피워내고 있다. 이웃집 온실 문도 활짝 열려 흐드러지게 핀 난꽃 향기가 주변으로 넘실대며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다.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처럼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산불이 당겨지기 직전처럼 팽팽하다.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한국 선박이 26척, 한국인 142명이 갇혀서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한다. 해상노조 위원장은 선박의 상황을 뉴스로 전해주고 있다. 식료품과 생필품은 줄어들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적인 처치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참전이라도 하게 되면 자폭드론으로

선박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중소형 해운사의 경제적 압박이 높아져 견딜 수 없을 때면 목숨 걸고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국제 패권의 장악에 있다고 한다. 이란 옆에 있는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석유가 통과하고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그 통제권을 미국이 갖게 되면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유 결제 대금이 달러였던 것을 유로나 위안화, 금 같은 다른 화폐로 바꾸려는 이란의 시도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그동안 석유 결제 대금이 달러였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인 위상을 높게 유지해 왔던 것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방위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첨단 무기의 소비와 수요 창출을 위한 행동이다.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들 이익과 고용 창출, 경기 부양 효과를 불러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쟁을 통해 이란 에너지 공급을 줄이고 미국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자폭드론이나 포탄의 불꽃 아래 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생명이 한낱 놀잇감으로 변하고 누군가의 증오 대상으로 된다는 상상이 없을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찢기고 고통으로 울부짖게 된다면 자신의 신체가 훼손당하는 상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은 완벽하게 안전할 것이라는, 절대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전쟁은 곧 끝날 듯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디모나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란 나탄즈 지하 핵단지를 공격하는 양상에 이르렀다. 핵전쟁은 지구를 폐허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 나는 아직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다. 부모의 경험담과 영화나 책, 대중매체의 영상, 그리고 SNS 같은 간접 체험 뿐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휘발유 값을 1700원대에 묶어두었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주유소에 자동차 기름을 채우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잠깐의 변동만으로도 일상은 금방 흔들린다. 이웃은 서로를 돕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이 되어 서로 견제하게 된다.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 검은색 티셔츠는 호르무즈해협의 선상에 갇혀서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쟁의 두려움은 나에게만 있나 묻고 싶다. 마른 나뭇가지 끝에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생명에게도,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트럼프에게도 생명의 두려움은 같은 게 아닐까. 이걸 너무 낭만적인 생각일까.

봄날의 포성 최경호

봄이라 해야 옳을 텐데 바람 끝이 영 심상치가 않다.

이맘때면 꽃소식이 먼저 와야 하는 법인데 들려오는 것은 꽃 얘기가 아니라 포성 소리요 심상치 않은 소문들뿐이다. 세상이라는 게 늘 그렇다지만 그래도 계절까지 거스르며 이럴 일인가 싶다.

미국이니 이스라엘이니 이란이니 하는 이름들이 연일 오르내린다. 이란이라는 나라도 따지고 보면 하루이틀에 세상에 이름을 올린 곳이 아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그 땅은 한 번도 편안히 숨을 고른 적이 없었다. 혁명 직후에는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가 있었고 그 뒤로는 이라크와의 전쟁이 여덟 해를 끌었다. 사람이야 셀 수 없이 죽고 다쳤지만 국경선 하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 뒤로도 핵이니 제재니 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고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이제 숨길 것도 없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사항전이니 더 강한 공격이니 하는 말들이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들리다가도 화면 속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있자면 그게 또 그렇게만 들리질 않는다. 울부짖는 사람 무너진 집 앞에 선 사람 잿빛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눈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2022년 2월 탱크가 국경을 넘던 날을 나는 기억한다. 설마 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렇다고 그 전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2014년 크림반도 일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 소련이 무너지던 때부터 이미 금이 가고 있었던 셈이다. 전쟁이라는 게 대개 그렇다. 오래 묵은 상처가 훑아 터지는 법이다.

들판은 참호가 되었고 도시는 잔해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총을 메고 전선으로 갔고 노인들은 지하실에서 겨울을 났다. 세상은 어째서 이리도 싸움을 그치지 못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전쟁이라는 게 멀리서 일어나는 듯싶다가도 어느새 우리 살림살이 안으로 스며든다.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라 하더니 그 땅이 전장이 되자 밀가루 값이 오르고 해바라기유가 귀해졌다. 이란 쪽이 어수선했다면 으레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나오고 기름값이 들썩인다. 기름값이 이천 원에 가까워졌다 하니 괜히 차 시동 거는 일도 망설여진다. 사람 사는 일이란 게 이렇게 자잘한 데서부터 달라진다.

우리 집 얘기를 하자면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평안북도 신의주가 고향이던 아버지는 열일곱에 전쟁터로 끌려갔다. 인민군으로 징집되어 총을 들었고 그 뒤로는 고향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얘기를 입에 올리기를 꺼리셨다. 다만 술기운이 돌 때면 가끔 한마디씩 툭 던지듯 하셨다.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 말씀이 어찌나 단호하던지 더 묻기도 어려웠다.

철이 들어서야 알았다. 그 말씀이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었다는 걸. 고향을 잃고 가족과 떨어지고 이름 모를 타향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였다는 걸. 그건 역사책 한 줄로는 도저히 담기지 않는 한 사람의 삶이었다.

지금도 화면 속에는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에서 서쪽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 짐을 꾸릴 겨를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아버지 생각이 난다. 고향을 떠나는 발걸음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몸으로 알고 계셨다.

그래서인지 이란 사람들의 얼굴도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전쟁에 휩쓸린 사람들의 표정은 시대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어쩐지 닮아있다. 잃어버린 집과 흩어진 가족과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그 얼굴마다에 어른거린다. 그리고 늘 그렇듯 전쟁이 먼저 데려가는 것은 젊은 목숨들이다.

나는 전쟁을 겪어 보지 않은 세대다. 그렇다고 그 두려움까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자란 탓일까. 전쟁이 얼마나 허망하고 잔인한 것인지는 어렴풋이 안다. 그래서 더 반갑지 않다. 아

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총알 앞에서 명분이 사람을 살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수도 없이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상일이라는 게 늘 방심한 틈을 타고 들이닥치는 법이니 외면한다고 해서 지나가 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바랄 뿐이다. 지금 벌어지는 싸움들이 하루라도 빨리 멈추기를.

이윽고 봄꽃은 필 것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제때를 알고 피어날 것이다. 그 꽃이 피는 날에 아버지의 그 말씀이 비로소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으면 좋겠다.

꽃잎 지는 봄날 오후 그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멀리서 들려온다.

봄날에 조정숙

꽃의 계절, 봄이다. 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들이 아우성치듯이 피어난다. 온갖 나무와 꽃들이 저마다 고운 색의 옷을 입고 봄 단장을 하느라 분주하다. 발밑에 풀들도 연두색 옷을 입고 푸릇푸릇 쳐다본다.

우리 집 작은 꽃밭에도 매일 축제다. 나는 보던 책을 던지고 꽃으로 들어간다. 동백, 매화, 앵두꽃이 새 옷을 입고 꽃잎을 흔들며 웃는다. 양중맛은 야생화와 겨우내 거실에서 통통하게 살찐 다육이들이 서로 만나 반갑다고 수런거린다. 먼저 온 바람이 꽃잎을 만지며 인사를 한다. 서둘러 나온 마음을 옆에 내려놓고 형형색색으로 단장된 꽃들을 본다.

꽃들의 모양과 색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다. 과학이 발달하고 AI로 못 하는 게 없는 세상이지만 자연신이 만든 꽃은 어느 디자이너나 화가의 그림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독창적이다.

꽃들은 피어날 때를 알고 져야 할 때를 제대로 지킨다.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한다. 부귀영화라는 자리가 잠깐이라는 것도 안다. 잠깐 피어 있다 시들어 떨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고의 권력자는 그렇지 못하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자신만을 고집하며 탐욕을 가진다. 가지면 더 가지려 하고 잡으면 손이 아파도 놓지 않는다. 꽃과 나무만도 못한 사람이다.

지구 한쪽에선 전쟁의 포화 속에 학교와 집이 파괴되어 새싹 같은 어린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식물의 주기를 닮았다. 식물처럼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하는 일이 싹이 피듯 시작하고 꽃과 무성한 잎을 달고 열매를 거두고, 겨울을 만나 다 잃기도 한다. 풀과 꽃은 계절이 바뀌면 돌아오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 죽은 아이들도 봄날에 내미는 새싹과 피는 꽃처럼 아무 일 없던 듯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목은 가지에서 새싹이 돋고 땅에서 풀이 얼굴을 내미는 것을 보면 무언가 돌아오는 일에 대해 사유하게 된다. 한 바퀴 원을 그리듯 다시 빙 돌아오는 봄을 보면 마음이 유연해진다.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번성과 쇠퇴 등 상반되는 것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보게 된다. 이 양극단의 현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인생이 가파른 언덕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평탄하고 수월한 길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맞닥뜨린 난국에 희망을 가지고 헤쳐 나갈 힘을 얻는다.

봄날에 식물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습도 생각해 본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저 풀과 나무처럼 때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적이 있었던가. 살다 보면 폭풍우처럼 흔들리는 삶으로 올바른 길을 잃었을 때가 있었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집착을 하고 편견을 가졌었다.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삶의 고비를 넘어오느라 받은 상처

와 아픔들을 치유받는다. 내 삶의 고단함도 어느 순간 꽃처럼 피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 보지만 이것도 욕심 같아진다. 식물을 좋아하는 나는 이렇게 꽃을 가까이 두고 각박한 현실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꽃을 보는 순간 마음이 시냇물처럼 맑아지며 선해진다. 삶에 찌든 나 자신을 정화시키고 반성한다.

추운 겨울,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계절은 어김없이 때가 되면 오는 것이 신기하다. 추위를 이겨낸 꽃이 경이롭다. 이렇게 핀 꽃은 세상에 나와서 짧은 생을 살다 간다.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어 준 꽃, 사람처럼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듯이 꽃도 마찬가지다. 며칠 만에 생과 사를 치르며 말없이 떨어지는 모습도 아름답다.

나는 식물들의 삶처럼 꽃을 피우며 푸른 신록을 달고 열매를 맺는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고 있다. 남은 생, 마지막 통과의례인 아름다운 나목으로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화창한 봄날에 난폭하고 어둡고 무겁고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이 끝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빌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스트레스에, 백악관의 충격 소식까지 접하게 되자,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지경이 된 날, 20대 미국인 청년의 성장기와 1950년 이후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울분』을 읽었다. 저자인 필립 로스(1933~2018)는 유대계 작가로 영미문학의 전설로 불리고, 미국 4대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역사학자이며 무신론자로 알려졌다.

소설의 첫 단어가 숫자 1950년, 6월 25일이다. 한국전쟁이 이 소설의 결정적인 배경이겠구나! 긴장하며 소설의 두 번째 페이지를 읽던 중, 작중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톱진한 묘사에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말았다. 평범한 뉴어크 미국인 가정의 생활과 일터를 보여주는 문장에서, 전쟁이란 단어를 잊고, 그저 사랑을 담은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되어버려서다.

작중 화자인 나(마커스)의 아버지는 정육점 주인이다. 아들인 ‘나’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자전거를 타고 주문받은 고기를 배달했다. 야구 시즌과 토론 팀 구성원으로 학교 대항전에 출전하는 오후만 제외였다.

아버지는 “마커스는 예술가야”라고 말했다. 아들이 식육점의 진열장에 고기와 뼈다귀를 집어넣는데, 그 모든 것들로 무늬를 만들어 ‘예술적’으로 진열했기 때문이다. 마커스는 식육점이니만큼 항상, 모든 곳에 스며드는 핏물을 톱밥을 이용해 제거하는 일도 한다. 힘들고 구역질 나는 일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요리도 해 먹으며 서로 사랑했고, 행복했다.

식육점에서의 일곱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아들을 단속한다. 계기는 아버지의 차를 훔쳐 타고 먼 곳의 당구장에서 당구 사기를 치는 아들에게 놀란 이웃의 말이었다.

“세상은 자네 아들을 데려가려고, 입맛을 다시고 있단 말이야. 나는 우리 애가 그럴 줄 진짜 몰랐어”라는 말은 아버지의 잠재된 불안을 건드렸다. 그저 평범하게 마을의 작은 대학에서 그곳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 수 있었을 마커스는 아버지의 병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 도망쳐 대학 2학년 때 오하이오 중북부의 농장이 널린 대학 와인스버그로 학교를 옮긴다. 집에서 800km 떨어진 곳이었다.

그 학교에서 마커스는 세상의 축소판을 경험하는데, 자신과 전혀 다른 취향과 기준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으로 숨는다. 한국전쟁에 징집되지 않기 위해,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 그의 꿈은 오직 법률가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는 동안은, 화자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소설의 중반부에 학생과장이 등장하면서 소설의 분위기는 달라진다. 학생과장이 등장하기 전 화자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주변의 문제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보다 피하는 성격으로, 피해자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생과장의

시선은 달랐다. 자신과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과는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 사회 부적응자라는 시선, 솔직하지 않다는 의심까지 받게 된다.

마커스는 울분을 터트린다. 나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고, 모든 과목 A 학점을 받는 학생이고, 공부에 전념하고 싶을 뿐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다 학교의 전통인 채플 수강을 거부한단 얘기를 하게 된다. 마커스는 고등학교 시절 토론팀에서 외우다시피 했던 버트런드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의 내용을 걱정적으로 쏟아냈다. 흥분한 나머지 구토까지 해 버린 뒤, 병원으로 실려 간다.

마커스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전에 참전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불안에 시달리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버린 자신을.

퇴원한 뒤 마커스는 세상과 조금은 타협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회

적 격변의 시기,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 여자 친구는 정신병원으로, 그는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사망한다. 옮긴 이는 묻는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들이 각자 그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 선택한 결과들이 합쳐져 최악의 결과를 빚어내는 일이 어디 1950년대만 있었겠는가”라고.

원근가가 산문

조정숙 282

노송

최경호 285

은빛 비늘의 시

조숙 291

한 번쯤은 하루키처럼

장하영 294

울산살롱을 꿈꾸며

냉정한 측은지심

곽구영 302

일기

다운동 장구산에 올랐다. 굽은 소나무가 용트림하고 있다. 비스듬히 누웠다가 길게 늘어지고 다시 일어선 모습이 흔히 볼 수 없는 소나무다. 척박한 장소에서 세상의 온갖 풍상을 견뎌낸 흔적이 온몸으로 남아 있다. 벼랑 끝 치마바위 위에서 비바람에 허리는 휘었지만 당당하게 서 있다.

소나무는 세월의 흔적을 새겨놓은 듯 우리의 인간사와 다르지 않다. 어찌 나무라고 아픈 상처가 없었겠는가. 홀로 서 있는 소나무의 청정한 자태가 감탄스럽다. 하늘이 내리는 빗물과 이슬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돌덩이가 뿔어내는 습기로 자라 노송이 된 소나무를 보면 나도 몰래 경건한 마음이 들고 가슴이 묵직해진다. 대지에 몸을 세우지 못하고 짐채만 한 바위를 뚫고 서 있는 나무가 아버님이 살다 가신 모습 같아 마음이 아리다.

아버님은 가난한 집, 팔 남매 맏이로 태어나 신을 살 돈이 없어 맨 발로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고 했다. 학교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다. 이후에는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자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 두루 박식하셨다. 갓은 고초를 겪어 내면서도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힘들게 살면서 오르막길을 올랐던 사람들에게 디딤목이 되어 주고, 때론 버팀목도 되어 주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많은 형제와 자식을 가르치고 결혼을 시켰다. 그 흔한 국내 여행은 물론 외국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다. 다른

도시에 사는 맘머느리인 나에게는 수시로 와서 어머니님 수발들고 두 집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미안해했고 집안 행사 때마다 애쓴다고 위로해 주셨다.

퇴직하고는 편찮은 어머니님 대신 살림을 했다. 소나무처럼 휘어진 다리로 절면서 장을 봐오고 밥을 해 아픈 아내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폈다. 빨래하고 청소를 하면 무릎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아팠다. 진통제로 버티다 통증을 견디지 못해 팔십이 넘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우리는 흔히 어머니를 강하다고 한다. 이울곡 어머니 신사임당, 맹모삼천지교의 맹자 어머니, 한석봉 어머니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어머니들의 힘을 알고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들은 밖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분도 더러 있었다. 그러기에 대부분 어머니의 희생이 빛나는데 오직 자식과 가정만을 위해 헌신을 한 아버님이 존경스럽다.

오랜 시간 동안 짊어진 삶의 무게로 노송처럼 어깨와 등이 구부러졌다. 손은 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에는 골 깊은 주름이 졌다. 지난한 시간을 겪은 아버님은 육신이 병으로 말라가도 아내와 자식들 걱정이었고, 눈을 감을 때까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기를 바랐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아버님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다.

여름날의 타는듯한 피약별과 겨울날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어온 노송이다. 궁핍한 환경에서 아버님의 억척같은 삶의 애정과 소나무의 인고가 오롯이 전해진다. 굵어짐이 많을수록 할 이야기가 많은 듯 살면

서 크게 휘어진 사건도 있었겠지만 작게는 하루에 열두 번도 더 휘어 지기를 했을 것이다. 아버님의 정수리를 누른 중력으로 자식들이 일어섰고 잘살고 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을 묻고, 보듬어 줄 큰 어른이 절실할 때가 있다. 살아생전에는 아버님께 고마운 줄도 몰랐는데 내가 뒷사람이 되고 보니 노송 같은 아버님이 그립다.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시는 길은 홀로 가셨다. 이승의 시간은 멈추었지만 풀고 가신 시계는 매일 24시간을 째깍거리며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돌아간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바로 부지런한 당신의 일생이었다.

인생길은 누구나 평탄하길 바란다. 하지만 쉽게 살아지지 않고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앞이 보인다. 나도 아버님처럼 살아 있는 한 아픔을 이겨내고 슬한 휘어짐을 반복할 것이다. 끈게 뺨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짝 흰 멧진 모습으로 너그럽게 살고 싶다. 이리저리 휘는 모양새가 쌓여서 장관을 이루는 노송처럼.

은빛 비늘의 시 최경호

부산의 끝자락 기장군 대변항에 닿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색이었다. 푸르다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빛. 어떤 언어로도 온전히 옮겨지지 않는 그 빛깔 앞에서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이름을 붙이려는 순간 달아나 버리는 것들이 있다. 대변항의 바다가 그러했다. 부르기 전에 이미 거기 있었고 설명하기 전에 이미 가슴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높은 곳에 올라 항구를 내려다보니 포구는 마치 고려청자 한 점을 바다 위에 얹어 둔 듯했다. 동해로 열린 입구와 방파제 그리고 그 앞에 떠 있는 작은 섬 죽도가 청자의 주둥이처럼 길게 내밀려 있고 안쪽으로 오목하게 감긴 바다는 깊은 사발의 몸통처럼 잔잔히 숨 쉬고 있었다. 장인의 손끝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데도 자연은 스스로 이토록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 낸다. 오랜 세월 파도가 깎고 바람이 다듬은 것이리라. 사람의 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형태 역시 하루아침에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늘과 바다가 서로를 비추며 한 몸이 되는 시간이었다. 수평선이 지워진 자리에서 나는 잠시 방향 감각을 잃었다. 여기가 물인지 물속인지. 발 아래 단단한 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이상하게 혼

들렸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본질적인 아득함
인지도 모른다. 이 푸른 숨결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용궁이 열
릴 것만 같았다.

대변항의 옛 이름이 용암(龍岩)이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바위 위
에 몸을 튼 용 한 마리가 바다를 굽어보고 있었을 그 자리. 이름은
바뀌어도 바다의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지
명은 사라져도 장소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땅은 그렇게 오래된
이름들을 몸속에 새겨 두고 있는 것이리라. 기억이란 흔적이 지워진
뒤에도 오래 남는 온기 같은 것이다.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사실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 있는 것처럼.

포구에 가까이 다가서자 색은 소리로 바뀌었다. 어기나 디야 어기나
차야. 어부들의 목청이 파도를 타고 번졌다. 여럿이 함께 부르는 소리
는 단순한 노동의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바다 사이의 오래
된 대화였고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온 호흡의 언어였다. 말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인간은 소리로 서로를 이었을 것이다. 그 원초적인 울림이
살아 있는 곳에서 나는 무언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되찾는 느낌을 받
았다.

유자망이 물 위에서 천천히 끌려오더니 그물이 허공에서 한 번 튕
길 때 은빛 멸치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몸들이 잠시 공중에서 빛의 비늘을 만들었다. 그 장면은 짧은 시 한

편처럼 선명했다. 어떤 시인도 그 순간을 미리 써 놓지 않았을 것이
다. 자연만이 쓸 수 있는 시 그 시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바
다는 매번 다른 운율로 자신을 노래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
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가장 앞바다는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경계 구역이라 한다. 한류와
난류가 스치듯 교차하며 물살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떨치는 힘을 얻
는다.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무언가 풍요로운
것이 태어난다. 사람의 세계도 그와 다르지 않다. 다른 온도의 삶이
부딪히는 자리 서로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피어난다. 겨울 동안 남쪽 바다에서 살을 찌운 멸치가 산란을 위
해 북상하다 이곳에서 잡히니 살은 통통하고 맛은 깊다. 그러나 그
과학적인 설명보다도 내게는 그 은빛의 떨림이 먼저 다가왔다. 손안에
진 멸치 한 마리가 아직 바다의 체온을 품고 있는 듯했다. 작은 생명
하나가 담고 있는 바다의 온기. 그것을 손바닥으로 느끼는 순간 먹는
일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달았다. 생명이 생명
을 이어받는 일. 그 무게를 손끝으로 받아 드는 일이었다.

항구 뒤편 거리로 들어서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상점마다 멸
치가 수북이 쌓여 있고 식당 앞에서는 숯불이 붉게 타오른다. 멸치
가 익어가며 내는 고소한 냄새가 골목을 따라 흘렀다. 그것은 미식가
를 부르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이 마을이 살아 있다는 증거였다. 냄새
는 때로 말보다 정직하다. 수백 년 된 포구의 역사를 책에서 읽는 것

과 멸치 굽는 냄새를 코끝으로 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가까이 이 마을을 이해하는 길인지 나는 골목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제철 채소와 함께 버무린 멸치회무침은 봄을 통째로 담아낸 한 접시 같았다. 미나리의 푸름 쑥갓의 향 고추장의 새콤함이 어우러져 겨우내 무더졌던 혀끝을 깨웠다. 계절이 음식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다. 우거지와 들깻가루를 넣어 끓인 멸치찌개는 바다의 속내를 오래도록 우려낸 맛이였다. 뚝배기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 국물은 단지 멸치와 채소의 합이 아니었다. 오래 달이고 기다린 시간의 맛이였다. 멸치구이는 또 어떤가. 불 위에서 적당히 익은 살점을 한입 베어 물면 고소함이 먼저 오고 뒤이어 은근한 불 내음이 가슴 깊이 번진다. 단순한 재료가 불 하나를 만나 이토록 깊어진다는 것이 요리가 가진 작은 기적처럼 여겨졌다.

골목 한켠에서는 커다란 항아리 속 멸치액젓이 묵묵히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멸치와 소금 그리고 기다림. 그 단순한 조합 속에서 집집마다 다른 맛이 태어난다. 액젓은 어찌면 바다가 남긴 또 하나의 문장인지 모른다. 오래 숙성될수록 더 또렷해지는 문장. 사람도 때로는 그 액젓처럼 시간의 어둠 속에서 오래 삭혀져야 비로소 제 깊이로 닿는 것이 아닐까. 항아리 곁에 서서 코끝을 찌르는 짠내를 맡으며 나는 서두르는 삶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빨리 익은 것은 빨리 시든다. 깊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마다 봄이면 이곳에서는 기장멸치축제가 열린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용왕께 제를 올리며 바다의 은혜에 고개를 숙인다. 바다의 살과 기름을 나누어 준 데에 대한 감사, 어부와 잠녀들의 평안을 비는 기도. 축제의 흥겨움 속에도 그 마음은 고요히 흐른다. 풍어를 기원하는 목소리 안에는 두려움도 함께 있다. 바다가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두 손 모아 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감사를 잊기 쉬운 시대에 이 오래된 기도의 몸짓은 하나의 가르침처럼 다가왔다. 작은 포구가 전국 유자망 멸치 어획의 큰 몫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그 겸허한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졌다.

항구 앞 죽도는 거북이처럼 엎드려 파도를 막는다. 걸보기엔 작지만 속은 깊은 섬. 그 안에 맑은 샘이 솟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포구 또한 그러하다고. 겉은 소박해 보여도 안으로는 오래된 시간과 사람의 숨결이 고여 있다. 화려한 관광지도 아니고 세련된 미향(美港)도 아니지만 해변항에는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오랜 삶의 곁이 주는 그 단단함. 쉽게 뽑히지 않는 뿌리를 가진 것들만이 풍기는 냄새. 그것은 흉내 낼 수 없는 것이였다.

해 질 무렵 바다는 다시 청자빛으로 가라앉았다. 낮 동안 팔딱이던 멸치의 은빛도 서서히 저녁빛에 녹아들었다. 나는 항구 끝에 서서 잠시 머물렀다. 바람은 비릿했으나 상쾌했고 파도는 낮은 숨을 쉬고 있었다. 하루가 천천히 접혀드는 시간 어부들은 도구를 정리하고 골목으로 흩어졌다. 바다는 다시 혼자가 되어 스스로를 어루만지고 있었

다. 오고 가는 사람들과 무관하게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대변항은 단지 멸치의 고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바다와 사람이 서로를 길들이며 살아온 시간의 항구였다. 거친 물살을 알고 고기잡이의 고됨을 알고 그럼에도 매년 봄 다시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장소. 자연에 기대고 자연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온 삶들이 쌓여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물 위로 튀어 오르던 은빛 물결은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도 잔잔히 출렁이고 있었다.

청자빛 바다는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을 빛으로 나를 물들이고 있었다. 떠나는 발걸음 아래서도 그 빛은 따라왔다. 용암(龍岩)의 이름을 간직한 바다가 내게 남긴 것은 풍경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었는데도 모른다. 당신은 오래 삭힌 것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닿아 있는가. 청자빛 물음이 오래도록 가슴 안에서 출렁였다.

한 번쯤은 하루키처럼 조속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까지 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작가는 움직이는 것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과 거리가 있다. 울산대공원을 걷다 보면 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마라톤 대회를 앞두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만 요즘은 아주 천천히 뛰는 ‘슬로우 조깅’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본다.

슬로우 조깅은 노인인구가 많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몸이 허약하거나 고령자들에게 적당한 달리기 방법이다. 보폭을 작게 하여 뛰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에 주는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다. 마치 종종걸음 걷듯이 뛰는 것인데 이렇게 뛰는 것으로도 달리기 효과를 볼 수 있다. 달리기의 효과는 먼저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 폐의 기능을 발달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심장 질환의 위험도 낮춘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하체 영역의 근력을 키우고 골다공증 예방과 골밀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달리기가 뇌에 피의 양을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체 기능이 높아짐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겨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 달리기를 드러내놓고 공원에서 시

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음식이 부족하던 시절에 쓸데없이 달려 다니다 겨우 불린 배를 꺼트린다는 꾸중을 듣기 십상이었고 힘이 남으면 노동을 해야지 하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마라톤 역사도 100년이 다 되어간다. 일제강점기에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던 손기정 선수, 금메달 수상 사진이 유명하다. 영화 <1947 보스턴>에서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 그리고 서윤복 선수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장기를 가슴에 단 채 뛰고, 시상대에 올라 국가가 울릴 때 월계수 묘목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렸다. 당시 동아일보 체육부장이었던 이길용 기자는 신문에 일장기를 삭제했다. 당시 조선중앙일보 유해봉 기자도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했다. 이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는 폐간되었다. 함께 시상대에 올랐던 동메달 남승룡 선수는 가릴 화분조차 없어서 손기정 선수가 부러웠다고 한다. 영화 <1947 보스턴>에서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는 서윤복 선수의 코치가 되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리스트를 탄생시켰다.

경제가 발달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스포츠 종목은 시설이나 도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육상 영역이다. 마라톤은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테니스나 검도, 스케이팅에 비하면 경제적인 제약이 없다. 그런데도 마라톤을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누구나 달리면 되지만 누구나 그냥 달리기 어렵다. 달리기 작가로 유명한 무

라카미 하루키의 『난생처음 러닝』에서 하루키는 달린다는 것이 작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루틴으로 여기고 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집중력과 지속력은 자연히 몸에 배게 된다. 이것은 근육의 훈련 과정과 비슷하다. 매일 쉬지 않고 계속 써나가며 의식을 집중해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정보를 신체 시스템에 계속 전하고 확실하게 기억시켜 놓아야 한다.’ ‘이것은 매일 조깅을 계속함으로써 근육을 강화하고 러너로서의 체형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작업이다.’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꾸준히 이어 나갈 수는 없다. 달리의 꾸준함과 달릴 때의 고통이 자신의 체형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삶을 바꾸는 방법인데 쉽고도 어려운 일 것은 분명하다. 울산대공원이나 태화강변은 달리기에 좋다. 더구나 계절도 알맞다. 삶의 체형은 바꿀 수 없더라도 한 번쯤은 하루키처럼 달려보고 싶다.

한 사람의 독서는 고요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 읽는 순간, 독서는 더 이상 개인의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말이 오가고, 생각이 부딪히고, 문장은 다시 태어난다. 독서 모임은 읽기의 확장된 형태다. 동시에 사유가 외부로 드러나는 첫 번째 통로이기도 하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초기 시절은 흔히 고독한 창작의 시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문예 동인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젊은 작가들은 잡지와 소규모 모임을 통해 서로의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눈다. 하루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적 자극을 받았다. 혼자 쓰되, 완전히 혼자서 아닌 환경. 타인의 시선이 개입된 독서와 글쓰기는 작품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작가는 개인의 감수성으로 출발하지만, 결국 공동의 언어 속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위치를 떠올려 보면, 이러한 출발이 결코 사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제 한 나라의 작가를 넘어 세계문학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이다. 〈노르웨이의 숲〉은 일본에서만 수백만 부가 판매되며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고, 〈해변의 카프카〉, 〈1Q84〉 등은 출간과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번역·출판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그의

신작이 나오는 날 서점 앞에 줄을 서고, 한 권의 소설이 단순한 책을 넘어 하나의 사건처럼 소비된다.

이렇듯 한 작가의 세계적 위상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읽고, 말하고, 쓰는 과정이 반복되며 다져진 결과다. 초기의 작은 문학적 교류와 독서의 환경이 결국 세계적인 작가를 만들어 낸 토양이 된 셈이다.

독서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읽은 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이해는 깊어진다. 타인의 해석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사고는 확장된다. 독서는 본래 내면으로 향하는 행위지만, 모임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생각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멀리 나아간다.

이러한 장면은 이미 오래전에 존재했다. 프랑스의 살롱 문화는 흔히 사교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오늘날의 독서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귀족의 집, 특히 살롱을 주관하던 여성의 거실에는 철학자, 작가, 정치가들이 모였다. 그들은 단순히 담소를 나눈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사상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검증했다. 한 사람이 책을 소개하면, 다른 이는 그 해석을 비틀고, 또 다른 이는 반박하거나 확장했다. 이 과정은 곧 집단적 사고의 훈련이었다.

살롱에서는 읽기가 곧 발화로 이어졌다. 조용히 읽고 끝나는 독서가

아니라, 읽은 것을 말로 끌어올려야 하는 독서였다. 말로 설명하는 순간 생각은 구조를 갖추고, 타인의 질문을 받는 순간 논리는 정교해진다. 오늘날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경험하는 과정이 이미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살롱이 계층을 넘나드는 사유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출발은 귀족 사회였지만, 그 안으로 들어온 사상은 기존 질서를 흔들었다. 루소와 볼테르 같은 사상가들의 글이 읽히고 토론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이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이 작은 모임의 대화들이 축적되어 결국 계몽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졌고, 이후에는 감성과 개인의 내면을 강조하는 낭만주의로까지 발전했다. 거창한 사상도 처음에는 몇 사람이 모여 나눈 대화에서 시작된 것이다.

살롱은 결국 '읽고 말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생각을 확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였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며 다양한 해석으로 증식된다. 이 과정에서 사상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 된다. 독서가 사회적 힘을 갖는 순간이다.

독서 모임은 거창하지 않다. 몇 사람이 모여 같은 책을 읽고,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자리일 뿐이다. 그러나 그 단순한 구조 안에서 생각은 깊어지고, 시야는 넓어진다. 개인의 독서가 이해를 만든다면, 공동

의 독서는 해석을 만든다. 그리고 해석은 결국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오늘날 우리는 혼자 읽는 데 익숙하다. 빠르게 읽고, 빠르게 소비한다. 그러나 읽은 것을 붙잡아 두는 힘은 느린 대화에서 나온다. 독서 모임은 그 속도를 회복하는 공간이다. 책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다시 바라보는 자리다.

독서 모임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는 곳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을 밖으로 꺼내어 다듬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조금씩 변한다. 읽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동한다.

프랑스의 살롱이 그러했듯, 일본의 문예 동인이 그러했듯, 독서와 토론은 언제나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거창한 혁명은 늘 작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한 권의 책을 사이에 두고 나눈 이야기들이 쌓여, 결국 시대의 흐름을 바꾼다.

독서 모임은 그래서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힘을 가진다. 책 한 권에서 시작된 대화가 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든다. 독서 모임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움직인다.

《울산저널》의 '책수다'는 이러한 흐름 위에 놓여 있다. 살롱 문화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른 형태로 이어지듯, '책수다'는 오늘의 방식으

로 독서와 토론의 문화를 이어가는 하나의 통로다. 몇 사람의 대화를 넘어 서로의 생각을 흔들고 확장하는 작은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축적된 대화들이 지역의 공기를 바꾸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울산저널》의 ‘책수다’가 결국 하나의 작은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기를, 그 변화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냉정한 측은지심 장하영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측은지심을 지닌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다움의 시작이다. 측은(惻隱)은 남의 아픔을 보고 가슴이 저미는 상태를 뜻하고, 지심(之心)은 그 마음의 근원을 가리킨다. 결국 측은지심은 타인의 불행 앞에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쉽게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나 모든 연민이 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민이라는 이름 아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선함을 제대로 구별하고 있는가.

고려대 의과대학 나홍식 교수는 착함에도 지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민은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판단의 문제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이 뒤따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균형을 잃는다. 따뜻한 마음은 필요하지만, 그 따뜻함이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문제는 선함을 가장한 또 다른 얼굴이다. 우리는 이제 선함을 위장한 악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는 연민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서사를 과장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약자의 언어를 빌린다. 감정은 쉽게 설득된다. 그러나 설득된 감정이 언제나 정

당한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규칙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스스로를 규정하며 타인의 감정을 설계하는 부류에 마주하게 된다. 이들은 대개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은근히 잠복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말의 결을 바꾸고 맥락을 교묘하게 뒤틀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감언이설은 이들의 가장 손쉬운 도구다. 주어진 환경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때로는 사실을 재배열하여 타인의 감정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형성된 관심과 공감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설계가 깔려 있다. 이들은 연민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한다. 선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작동 방식은 공동체의 기준을 잠식한다.

그들을 구별하지 못할 때, 사회의 기준은 빠르게 무너진다.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를 불가피한 운명처럼 포장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구조의 문제로 치환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기대어 판단한다. 그 판단은 공정을 해치고, 결국 다수의 신뢰를 훼손한다. 같은 규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박탈감이 남는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감정의 과잉이다. 우리는 상황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공감하고,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동정한다. 조언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기준이 아니라 연민이 앞선다. 그 결과는 반복이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개인은 책임을 배우지 못하며, 집단은 점점 더 느

슨해진다.

진화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낫설지 않다. 리처드 도킨스가 설명한 것처럼, 개체 수준에서는 이기적 선택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단으로 시선을 넓히면 결과는 달라진다.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는 집단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이타적 집단이 이기적 집단을 이긴다는 가설은, 결국 기준 있는 연민이 집단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냉정한 측은지심이다. 연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민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다. 우리는 한 번 더 물어야 한다. 이 도움이 공정을 해치지 않는가, 이 선택은 반복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 연민은 문제를 해결하는가 아니면 지연시키는가.

연민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의 과잉은 순간의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구조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선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선한 것을 구별하는 힘, 그것이 공동체를 지탱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크기가 아니다. 기준의 정확성이다. 얼마나 많이 불쌍해했는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판단했는가 사회를 살린다. 냉정한 측은지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책임이다. 연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다.

일기 광구영

-2014.6.7. 토요일(오전 흐림/오후엔 맑은데 미세먼지 많음)

이따금 잔 투정을 부리는 16살 늙은 애마를 달래며 61살 옆지기와 데이트를 합니다 해운대 벅스코서 국제 모터쇼를 보고 한국 근현대 그림 100선을 관람키로 합니다 그러나 울산-해운대 고속도로 중의 기장 부근에 이르자 도로가 된통 막혀 다시 울산으로 맘을 바꾸며 늙은이와 옆지기를 달랠니다 꼭 평일 관람을 약속하며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안선이 제일 아름답다는 주전 정자항 쪽으로 달립니다

정자항 초입의 신현이란 마을에 들러 30여 분 부근 야산을 걸어봅니다

도중 어느 농가에서 10,000원치 양파를 사는 데 엄청 향이 좋습니다

게다가 텁으로 오이처럼 생긴 호박을 일곱 개나 얻습니다

한 농가에선 수줍게 얼굴 붉은 산딸기 아가씨를 10,000원에 모셔봅니다

얼마나 빨갛고 토실하게 잘 익었는지 맛이 일품입니다

정갈함과 우아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전항 쪽으로 차를 몰아 사색길이란 2.6km 올레길을 걷습니다

바닷길도 걷고 산기슭으로도 걷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추억의 학교에서 중고 시절의 교복과 여러 공룡모형을 봅니다

양철 도시락과 나무 딸감 난로와 작은 책걸상에 눈시울 붉어지고 괜히 서럽습니다

운동장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아내와 누워 휘파람을 불어 봅니다 시원한 갯바람과 느티의 푸른 그늘,

나는 가만히 입속말로 읊조립니다

아내 궁텅이에 간혹 생기는 부스럼이 빨리 낫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논엔 벌써 탁근을 한 벼모들이 푸르게 춤을 추고

그 아래론 꼬마 올챙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담장 없는 집에 88세 할머니가 계시는데 서울시는 아들 생각난다며

뒤란 장독대 옆에서 일렁거리는 앵두를 몇 줌이나 따서 줍니다

할머니의 자식 사랑은 앵두처럼 투명하고 붉어 보입니다

정자항 뒤쪽 노점에서 가자미 2만 원어치를 사는데 수표는 안 받는다 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내민 가짜 수표에 아직 열 받고 있다는 74살 누님입니다

슈퍼마켓에서 3,800원 하는 벼락식혜를 수표로 사고 현금으로 생선을 삽니다

둘 다 회가 싫어져서 좀만 한 밥집에서 7천 원짜리 한정식으로 요
기를 합니다

울산시 무정동 우리 아파트 상가 웨밀어마트에 들러 태화루 한 병
(천 원)과 바가지 과자(이천 원)를 삽니다

십팔 층 성냥곽에 돌아와서 어푸푸푸 샤워를 합니다
주택에서 나무 두엇 심고 무덤 자리만 한 땅에 남새 가꾸며 살고 싶
은데
아내 휘하에 이렇게 사니 나는 아파트를 아프다! 나 아파 또! 로 여
깁니다

습관처럼 티비를 켵니다
거인이 독수리 모가지를 제 맘대로 낚아채고 있네요
그러나 흥! 그 좋던 야구도 환갑이 넘어가니 관심이 덜하네요
안방 화장실에선 다리 짧아 아래 차기 잘 날리는 옆지기가 샤워 중
입니다
몰래 엿볼까 해보지만, 재수 없으면 들켜 혼쫓이 납니다
사실은 나도 이젠 피가 잘 끓지 않으니 제풀에 주저앉고 맙니다
어찌겠어요. 우리!

붕어빵을 뜹니다
즐기는 프로인데 오늘은 얼마잖아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결국 리모콘을 든 채 잠이 듭니다 그리곤 이내 코를 곱니다

태화루와 바가지 과자는 입도 대지 못하고
꿀잠 아닌 그냥 선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

-티비 안 켵나요
니머꼬는 와 들고 자능교?!
아즉도 흘랑 벗고 누버자는 버릇 몬 고쳤나
아이고, 이 웬 수 같은 냥반아아!
갑자기 며느리라도 닥치면 우짤라꼬?
(우레 같은 아내의 목청입니다)

***우연히 펴 본 12년 전의 일기

원근가가 신작 소설

제7회 울산작가상 수상자

박종관 308

승고한 슬픔

원근가가

*

식당은 공원을 가운데 둔 동네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어중간한 경계선 위에 터를 잡은 셈이었다.

이 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낡은 슬레이트를 얹은 농가들과 녹슨 양철지붕을 얹은 정미소와 단층 슬래브 지붕의 잿빛 예배당과 사오층 규모의 공동주택들이 난립해 있었다. 얼마 전에는 재래시장의 천막들을 까마득한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삼십 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도 두 동이나 솟아올라 위용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최고급 승용차와 폐지 수집용 리어카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모님들이 데리고 나온 애완전을 농가에서 놓아먹이는 황구가 물어 죽여 소송이 일기도 하였다. 언제 접해도 잔뜩 웅크린 긴장감과 어수선했던 묘한 활기로 넘쳐나는 곳이었다.

그는 처와 함께 새벽시장에 나아가 사 온 것들을 주방으로 들여놓아 주었다. 며느리가 가볍게 몸을 푸는 게 주방 창 너머로 보였다.

그의 며느리는 요즘 은주라는 아가씨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보육원 안마당에 버려진 신세로 자라 이름도, 얼굴도 기억할 수 없는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마다 밥을 먹으러 온다는 아가씨였다. 며느리와 동갑이라는 데도 훨씬 어려 보였다. 식당 근처에다가 셋방을 얻어 자

취하면서 얼마 전에 개업한 인테리어 사무실의 경리로 일한다고 하였다.

때마침 은주가 주방 뒷문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며느리가 팔을 벌려 반갑게 맞아준다. 휴일을 맞아 사우나에라도 다녀오는 듯 말끔하게 씻긴 은주의 얼굴은 이제 막 망울이 맺힌 목련꽃 같다. 밝은 햇살이 활짝 웃는 두 여자의 뺨얀 목덜미 위로 내려앉아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다. 아가도 어느새 평상 위로 올라와 며느리의 종아리에다가 몸을 비벼대고 있었다. 울음소리가 너무 애처롭다면서 두 여자가 아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고양이였다.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처의 마음을 열어준 것도 아가였다. 잠이 오지 않아 평상에 나와 앉아 있던 어느 날 밤에 가슴을 후벼 파는 울음과 함께 종아리에다가 머리부터 들이밀면서 마구 비벼댔다는 암컷 고양이였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했다. 자식을 잃은 죄인으로 한껏 주눅이 들어 지내던 처였다. 자신의 손길을 애절하게 갈망하는 존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현실이 그저 반갑고 고마웠다고 한다. 급히 주방에 들어가 먹다 남은 생선 토막을 가져다주니 허겁지겁 달게 먹었다. 새카만 몸통에 하얀 꽃병 무늬가 가슴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고양이였다. 활짝 열린 고리눈은 늘 슬픔과 두려움으로 터져 버릴 것 같았다.

그에게도 뜻하지 않은 관심거리가 생긴 셈이었다. 사는 것에 지칠 대로 지친 자가 고양이를 다 생각하고 관심을 내보이게 되니 참으로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는 애물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의 지혜로는 헤아림이 불가

능한, 어떤 고귀한 존재가 고양이의 탈을 쓴 채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만 같아 한참씩 심각해지곤 하였다.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었으나 회피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는 더 자주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다 저 자신의 의지와 소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무한히 낯설고, 무수히 많고 많은 생명 종(種) 중의 하나하나 목숨으로 야멸차게 내던져진 것이 아닌가 하는 섬뜩한 두려움을 절감하곤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또 가일층 두려워지는 심사로 그런 냉혹한 진실을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이제껏 살아왔기에 지금의 이런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낯선 죄의식과 자괴감 속으로도 깊숙이 빠져들기도 하였다.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접해온 몇 생명체들의 처지와 입장을 다시 곰곰이 반추해 보게 된 것이나 생경하기 짝이 없는 그것들의 본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의문을 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이런 뜻밖의 두려운 깨달음의 영향이 그만큼 큰 탓일 거였다.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였지만 원인 규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 그것을 따지고 묻고 추궁할 적마다 유족들은 오히려 그따위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밝히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황당한 항의와 질책성 반문에 직면하곤 하였다. 유족들의 소맷부리까지 잡고 늘어지면서 누굴 얼마나 골탕 먹이려고 직업 데모꾼처럼 이러느냐고 몰아치는 자들은 의외로 많았고 뜻밖에도 너무나 당당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그들이야말로 막돼먹은 사냥꾼들에게 고용된 전문적인 전천후 몰이꾼들이었다.

그들은 매우 논리적이었다. 농사짓다 보면 벌레들 등쌀에 울화통이

터져 자신도 모르게 농약을 들이붓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요리사로 먹고살려 들다 보면 물간 고등어 같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손님상에 올리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들은 사냥꾼의 눈에 더 뛰어난 몰이꾼으로 들지 못해 안달이 난 듯 앞다퉈 유족들을 몰아세웠다.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실수도 더러 저지르게 되는 거라면서 그들은 그로서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결사적으로 보호하려 들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 진영으로 갈라서서 핏대를 높이는 자들의 말들도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면서 가혹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은 반대편 진영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묻곤 했다. 누구나 고? 너희들 뒤에서 너희들을 사주하여 전문 몰이꾼(데모꾼)으로 나서게 한 그는 도대체 누구냐고 한 마음, 한목소리로 거품을 물곤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고의 원인 따위는 까맣게 잊혀지고 오히려 낯선 흥기처럼 번득이는 종미(從美)니, 종북(從北)이니 하는 기막힌 말들까지 허공을 마구 넘나들곤 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 진영의 주장을 방패막이 삼아 마지못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책임자라는 이들의 주장 또한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들 일색이었다. 모든 국민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정신분석을 가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세상의 가스통들 모두를 죄다 모아들여 일제히 소각 처리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사다리처럼 층층시하로 내려오는 수백여 관련 책임자들과 관료들에게 어떻게 다 책임을 물어 모가지를 날릴 수 있단 말이나, 설령 혁명적인 조치로 그렇게 모두의 책임을 물어 밥줄을 끊고 옥살이를 시킨다 한들 죽은 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상처 입은 자들의 몸에서 일제히 새살이 돋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그들 역시 또 유족들을 전문 데모꾼으로 내몰면서 매몰차게 안다미씩으려만 들었다. 이는 부당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공권력보다 훨씬 더 무지막지한 사형(私刑)이었다.

그는 지친 몸으로 돌아와 아들이 식물인간으로 사흘을 누워있다가 숨을 거둔 방에 들어가 묻곤 하였다. 저들은 나를 통해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무지막지한 망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는 것인가, 하고. 그는 그들의 언행 어디에서도 인간을 향한 한 줄기 따듯한 예의와 절제의 미덕을 만나지 못하였다.

인간에 대한 슬픔이 깊어질수록 햇볕과 바람과 나무와 풀들과 꽃들 까지도 그에게 새로운 해안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 같았다. 방을 나서면 늘 반갑게 맞아주면서 운동화 코를 훑아주는 어미 개와 강아지들도 갈망을 그득히 담은 선량한 두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곤 하였다. 식당의 음식 재료로 애용해온 갖가지 해산물과 육류들도 제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아달라면서 지혜로운 자로의 변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의 처와 며느리도 나름대로 가슴에 쌓이는 분노와 고민이 많은지 식사 때마다 곱돌았다. 특히 물이꾼들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사력을 다해 저항해온 그의 며느리는 그만큼 생각도 많고 절망도 크나큰 지온종일 남편의 영정 사진만을 지키고 앉아 있기 일췌였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정이 깊은 부부였다. 신출내기 부부 교사로써 그들은 그날도 늘 타고 다니던 1254번 시내버스를 탔고 역시 습관대로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이어폰을 나누어 끼고 영어

듣기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십여 분이 지나고 시내 중심가를 통과하던 중에 천지가 뒤집히는 불기둥 폭발음이 연이어 솟구쳐 올랐고 승용차와 오토바이들과 사람들이 마구 나가떨어지고 뒤집히면서 죽어 나아가는 지옥의 아수라장에 휘말려 들었다. 그들이 탄 버스도 도로 아래에 매설된 고압 가스관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거대한 불기둥에 휘감겨 들었다가 벌렁 뒤집혔고 그 위로 무너지고 부서진 건물의 잔해들이 벼락 치듯 내리박혔다. 그 와중에서도 아들은 제 처를 온몸으로 싸안으면서 몸부림치다가 정신을 잃었다. 며느리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으나 아들은 전신 마비의 식물인간이 되어 제 처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들 부부도 그랬지만 특히 그의 며느리는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녀의 기억력이 과거의 어느 시공에까지 내려가 어린 촉수를 깊이깊이 박아놓고 있는지 그저 막막하고 위태위태하기만 할 뿐이었다.

아가를 어르는 며느리를 바라다보고 있으면 다시 또 사람의 본질에 대해 깊은 의문이 솟는다. 어쩐지 며느리가 자신의 출생 이전의 모습 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을 것만 같아진다. 그리하여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도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무엇의 속 깊은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아들이 죽은 이후부터 그는 아무것에서도 당당할 수가 없었다. 특히 며느리 앞에서는 자꾸만 고개가 떨어뜨려졌다. 돌연 아빠, 하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불렀던 어린 아들의 음성과 눈망울도 떠올라 그를 한없는 죄의식 속으로 몰아가기도 하였다. 아버지를 부르던 자식의 그 순한 눈마저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

었던 것만 같았다.

아이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 달포 전부터 웅얼이를 끊일 새 없이 해대었다. 배밀이로 힘겹게 기어와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씩 들여다보았다. 잠결에도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면 어린 것은 아버지의 가슴 위에 귀를 대고 엎드려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다가도 아버지가 잠이 깬 줄 알면 화들짝 반기면서 코를 빨고, 입술에다 볼을 비비고, 작고 고운 손가락 끝으로 가만가만 속눈썹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다. 그런 순간에 그가 본 아이의 눈은 늘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환하게 불 밝혀져 있곤 하였다. 그것은 그냥 떠진 눈이 아니었다. 너무나 황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절실히 느끼는 자의 빛나는 영혼이 들어있는 그런 눈동자였다. 세상 그 어떤 불빛보다도 환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생명의 등불인 것만 같았다.

아가도 대인 기피증이 심했다. 늘 어둠 속에다가 몸을 숨겼다.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식당이었지만 낮선 이들에게는 단 한 번도 곁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머느리만을 따랐다. 깊어 가는 밤중에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면 아가는 주방 안까지 들어와 따듯한 손길을 갈구했다. 사람이 무서워 늘 숨어 지내면서도 그의 머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모양이었다.

머느리를 바라보는 아가의 눈빛은 그를 아빠로 처음 부르던 순간의 아들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런 아가를 바라보는 머느리의 눈도 아들을 바라보던 그의 눈을 똑 빼닮은 것 같았다. 그는 자주 누가 머느리이고 아간지 분별이 안 되는 심리상태에 빠져들곤 하였다. 갑작스럽게 보아버린 수많은 죽음 탓인지, 생명과 비생명의 구분조차 자꾸

무의미해지는 성만 싶었다.

모든 낱알의 생명체들은 너나없이 다 저 자신과 타인들로부터 완벽하게 소외돼 버린 존재인 성만 싶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갈망만을 끊일 새 없이 품고 사는 비극적인 목숨인 성싶어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이 이제껏 요리 재료라는 명분으로 무자비하게 활용해 온 무수한 생명체들 역시도 하나같이 다 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비극적이고 비통한 지경에 처해 진 낱알의 고귀한 목숨, 목숨이었다는 사실도 새삼스레 온 마음으로 절실히 느껴지곤 하였다. 그리하여 이런저런 갖가지 이유와 구실로 너무나도 참혹하고 참담한 지경으로 내동댕이쳐진 개개의 목숨 하나하나를 떠받쳐 주고 있는 것 역시도 가슴 설레는 기쁨이 아니라 가슴, 가슴이 속속들이 다 갈가리 찢겨 나아가는 슬픔과 울음인 성만 싶어지곤 하였다.

*

한낮인데도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마다 불이 들어와 있다. 스무 평 남짓의 실내는 너무 밝아서 오히려 푸르스름한 이내 같은 것이 나올처럼 일렁거린다. 지하 3층의 밀폐된 작업장이어서 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못한 탓일 거였다.

그의 아들이 시신으로 누운 작업대 위쪽으로는 특별히 두 개의 형광등이 더 설치되어 있어서 푸르스름한 이내처럼 흔들리던 기운들도 무수한 혼백의 움직임이 텃보태진 듯 잿빛 너울로 조금 더 분명하게 슬렁거렸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집을 나설 적마다 삶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볼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는 자신도 모르게 죽음과 연관된 잡다한 생각들을 공 굴리다가 술에 잔뜩 취하곤 하였다. 그러면 그는 억병으로 취한 몸으로도 수십 길 높이의 대교大橋 인도를 혼자서 오락가락하기도 하였고, 한적한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이 차선 도로의 황색실선을 밟고 비틀비틀 걷는 만용을 부리다가 지구대로 끌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는 너무나 자주 자기 자신을 아주 간단히 요리해 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특히 뭔가 좀 색다른 음식이라도 입에 넣어보게 되는 날이면 기이하기 짝이 없는 망상도 끝 간데없이 치솟아 올라왔다. 그 자신의 몸까지 백화점 지하의 음식점 코너에 내걸린 모조 육개장이나 비빔밥처럼,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견본용 시신으로 갖가지 옵션에 따른 가격표까지 달고서 장례 품목 난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지기도 하였다. 이미 오래전에 죽음의 냇이 되어 이승의 시공을 떠도는지 죽은 아들의 모습도 수시로 네거필름 속의 음화처럼 솟아나 자신의 시신 앞에 앉은 아버를 연민이 가득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지기도 하였다.

얼마 전에도 그는 죽은 아들의 흔적을 찾아 도시를 떠돌다가 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을 들어가 보게 되었다. 욕구불만에 시달리던 한 늙은이가 혼자 죽기 억울하다면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일어난 대형 참사였다. 그는 대학생 딸을 잃은 어머니를 그곳 지하선로 입구에서 만났다. 수십여 개의 거대한 원형 기둥들에 의해 외부의 시선이 완벽할 정도로 차단된 지점이었다. 누르무레한 보안등 불빛 아래로

두 줄기 지하선로만이 아득히 깊어지는 어둠 속으로 뻗어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거기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라 하였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지하 역사의 원형 기둥 뒤에 숨어 들어가 기대서야지만 숨통이 트인다고 하였다. 남은 식구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다가 잠을 잘 때도 딸이 질식사한 땅속의 어둠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고 흐느껴 울었다.

어둠은 늘 어미의 마음속에 꺼무레한 딸의 얼굴로 고인 듯 떠 있어서 자신의 존재마저 깜빡깜빡 잊게 한다고 했다. 사는 게 늘 허깨비 놀음이었다면서 여자는 처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객기 추락 현장인 야산 중턱에서도 그는 그 자신을 닮은 사내를 만났다. 답답한 가슴을 풀어놓을 곳이 없어 충동적으로 떠난 남도 여행이었는데, 발길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찾아갔다. 하계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보트가 뒤집혀 익사한 학생들의 시신이 떠밀려 들어온 해변을 멀리서 내려다볼 수 있는 섬의 산봉우리 꼭대기에서도 그는 무력감을 곱씹으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삶을 마지못해 견뎌내고 있는 그의 분신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행도 이제는 여행이 아니었다.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무언가에 홀린 듯 그런 곳만을 찾아다녔다. 자식의 죽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다가서면서 그를 괴롭혔다. 가장 힘이 드는 순간순간들은 밑도 끝도 없이 솟구쳐 오르는 죄책감을 가슴 가득 품어 안아야 할 때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넓고 깊게 차지하고 들어서는 것은 타자에 대한 분노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옥죄여 들어오는 죄의식이었다. 그리움과 슬픔이 크면 클수록 자책과 자괴와 자학의 그것들도 그만큼씩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을 가다가도 문득문득 아들의 죽음이 그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공범 의식에 시달렸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의 기괴한 언행들도 모두가 다 그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그 자신도 아들의 죽음을 조장하고 방관해 온 무리 중의 하나인 성만 싶었다. 그때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술을 탐했다. 각종 재해와 사건 사고로 혈육을 잃은 유족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도 비로소 알 것 같았다.

마음의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았다. 태양도, 구름도, 바람과 물과 흙과 돌들과 동식물과 사람의 이목구비와 팔다리도 모두 다 거짓된 허상과 음침맞은 음성과 두꺼운 무쇠 가면으로 일제히 냉소를 보내면서 야유까지 마구 퍼부어대는 성만 싶었다.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자 억지 춘향을 부리는 모르쇠 작전도, 책임 회피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어정쩡한 침묵도, 뜬금없이 돈 이야기를 흘려 본질을 호도시키는 어릿광대짓도,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이념의 앞잡이로 매도하는 철 지난 농간질도, 보란 듯 국민 성금을 모으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정치적 이해타산의 주판알 튕기기도, 위로금과 보상비까지 섭섭하지 않게 챙겨 드리겠다는 여론 무마용의 교활한 술책도 결국은 모두가 다 저들이 지금, 여기서 누리는 알량한 기득권 유지와 보호를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안위와 입신 영달이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매국賣國과 독신瀆神도 망설이지 않고 행하려 들 것이었다.

그들의 차가운 무쇠 가면을 대할 때마다 유족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모든 가치 규범과 믿음이 전복된 폐허 위로 적나라하게 솟아나는 인간 본성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부모 형제와 처자식과 친구와 이웃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행위마저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수시로 왜곡, 변질, 짜깁기 돼 가는 참상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하는 현실은 환멸 그 자체였다. 내가 못나고 못 배워서,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부모 형제와 처자식들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던져졌다고 밤마다 질긴 자책과 자학의 올라미를 엮어 목을 매게 하는 절망을 품고 여기까지 떠밀려 온 것이었다.

*

그는 조심조심 아들의 가슴까지 늘어뜨려져 있는 목걸이를 벗겨냈다. 남편의 몸을 얼싸안고 몸부림치다가 실신하여 업혀 나간 며느리의 목에도 똑같은 것이 걸려 있었다.

며느리가 여고생이었을 적에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선물했다던 새하얀 소라딱지가 생각난다. 아들은 책을 보다가 지치면 그것을 귀에 댄 채 한참씩 누워있곤 하였다. 그때 아이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듣고 있었을까. 파도 소리였을까. 갈매기들의 울음소리였을까. 혹시라도 그걸 선물한 여자 친구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았을까! 어쩐지 꼭 그랬을 것만 같다. 죽음 따위로는 도저히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람의 깊은 속마음도 나각(螺角)으로 변신을 꾀한 소라껍데기처럼 우리들의 일상 곳곳에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 가서 무얼 보고 아들의 그런 숨겨진 마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다시 또 꿈틀꿈틀 깨어나려는 자괴감과 죄의식을 느끼면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한 개비 빼물고 불을 붙였다.

어디서, 어떻게 스며 들어온 것인지, 가느다란 햇살이 길고 예리한 타래송곳처럼 뻗치어 나와 그의 마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콘크리트 바닥을 뚫으려고 용을 쓰고 있었다. 아무도 회피할 수 없고 막아낼 수 없는 운명의 손길인 성만 싶었다. 아니, 그 무엇으로도 뚫어낼 수 없는 운명의 벽인 것만 같았다.

그는 양증맞은 십자가 모형이 매달린 목걸이를 깨끗이 닦아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었다. 오랫동안 착용해 온 탓에 목걸이를 벗겨낸 아들의 목과 가슴이 무척 허전해 보였다.

그가 가위를 든다. 시신의 가슴 부위를 노려본다. 마구 구겨져 비에 젖은 리플릿인 양 찢쩍 엉겨 붙은 옷자락을 바짝 세워진 신경의 날로 조금씩 도려낸다. 손이 바르르 떨린다. 약간만 힘을 쥐도 별건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었다. 그의 이마로 땀방울이 송알송알 맺힌다. 그는 죽은 아들의 활짝 드러난 가슴 부위에서 여러 개의 유리조각과 플라스틱 파편들과 페인트 자국 같은 것들을 정성을 다해 뽑아내고 닦아 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처 부위마다 온갖 것이 다 깊이깊이 박혀 들고 찢쩍찰쩍 달라붙어 있다. 어깨 부위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펴 나아갔다. 사람의 몸이 이토록 처참하게 으깨질 수도 있다는 현실에 신성 모독

의 죄라도 범한 양 가슴 한가운데가 자꾸 바르르 바르르 떨렸다.

그가 일토시를 찬 오른팔을 들어 이마의 땀을 가볍게 닦는다. 아들의 팔은 상완삼두근 부위의 뼈가 다 으스러진 듯 몸 바깥으로 축 늘어져 있다. 그는 다시 신경을 곤두세워 훼손된 팔을 신중한 몸짓으로 가슴 한가운데로 옮겼다. 서너 방울의 땀방울이 콧등을 타고 또르르 굴러 내렸다. 그가 얼굴을 시신의 손 가까이 바투 들이댄다. 피에 절은 종이 쪼가리들이 흙먼지와 함께 엉겨 붙은 약지를 꼼꼼히 닦아 내고는 반지를 뽑아낸다. 가느다란 링에 양증맞은 피라미드 모형의 알이 박힌 금반지였다. 살얼음이 성에 낀 유리처럼 거뭇거뭇 깔린 논바닥에서 서로의 목을 휘감고 죽은 황새 부부의 모습이 홀연히 떠오른다. 억제하기 힘든 적의와 살의가 비수처럼 날을 세워 마구 치솟아 올라온다.

그는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느라 마른침을 꿀꺽 삼키면서 반지를 빼냈다. 반지 링에 엉겨 붙은 살갓이 맥없이 벗겨져 딸려 나오다가 새하얀 털실처럼 끊어진다. 아들의 시신을 안았을 때의 막막함이 되살아난다. 무딘 칼날로 가슴 깊은 곳을 데걱데걱 긁어내는 것만 같다. 깊은 자상에 소독수를 흠뻑 묻혀 동치 매었을 때처럼 이가 부드득 갈린다. 입안도 바짝 마르고 헛구역질이 연신 솟구친다. 가슴과 불과 손도 자주 부르르 떨린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바짝 끌어들여 세우고 할랑거리던 머느리의 자세도 눈앞을 어른거린다. 가는 허리로 힘겹게 떠받친 상체를 안으로 한껏 안아 들이려는 자세여서 보면 볼수록 풀이에 맺힌 새벽 이슬방울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아주 미세한 간섭이라도 잘못 일으켰다가는 떼구루루 굴러내려 퍽퍽 으깨져 버릴 것만 같

았다. 그와 그의 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울음을 삼키면서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크고 맑았던 두 눈과 선한 기운이 가득했던 아들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

그가 입관 의식을 마쳤을 즈음에 점잖게 생긴 목사 한 분이 신도들과 함께 시신 한 구를 모시고 내려왔다. 잠자리에서 갑자기 숨을 거둔 노파였다. 신도들은 외로웠지만 아름다웠던 삶이었다고 다투어 치하했다. 목사의 설교도 확신에 차 있었다. 노인은 관절염과 신경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폐지를 모아 번 돈을 모두 교회에 기부했다고 한다. 하루 삼천 원 정도의 수입을 모두 모았고 동에서 나오는 보조금에서도 얼마씩을 떼어내어 저축을 해왔다고 한다.

“할머니의 통장을 보면 인간이 왜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고통과 시련에 처해서도 인간의 영혼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자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속에서는 매일같이 사랑의 기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찍힌 삼천 원, 삼천 오백 원, 사천이백 원의 숫자들이 모두 천국의 문을 향해 자라는 대나무의 마디였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천국에 드셨을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정성으로 사랑의 대나무를 키워 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구백만 원이 넘는 돈을 내시면서도 천만 원이 안 되는 걸 몹시 부끄러워하신 분이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찬송가도 우렁차게 터져 나왔다. 노인을 그렇게 악착같이 교회로 내몬 것은 무엇이였을까. 정말 천국이였을까, 외로움이었을까. 배우가 배역에 너무 몰두하면 연극이 끝난 후에 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말도 생각났다. 매일매일 폐지를 수거하여 모은

돈을 백 원 단위까지 성금으로 바치고 죽은 노인은 행복했을까. 노파의 시신은 곧장 입관되어 철제 보관함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어도 움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아낌없이 주고 떠나는 초목들이 생각난다. 환금성 좋은 작물들만을 골라 재배할 줄 아는 신식 농부의 얼굴도 그려진다. 저열한 욕심을 세련된 믿음으로 포장해내는 세 치 혀만 동동 떠다니는 것 같다. 일천만 원이 안 되는 성금을 부끄러워한 노파의 마음은 그녀의 숨겨진 본질은 얼마만큼 드러낸 것일까. 너무도 쉽게 거래되는 천국의 삶이었다.

노파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녀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아니었을까. 그걸 왜? 라는, 가장 인간적인 물음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꼭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의문 말이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다 드러낼 수가 없어서 저만 알아듣는 용알이만 씬 없이 해오던 그 무수한 기억과 욕망에다가 진짜 살아있는 이름들을 제각기 다 부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삼천이백 원, 이천칠백 원은 바로 그것을 위한 고되고 외로운 땀방울이 아니었을까.

무릎을 꿇고 일제히 한 마음, 한목소리로 기도를 바쳐 올리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살아있는 지상의 모든 것들도 다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른 물속에 깊숙이 잠겨 들어 마구 허우적거리고 있는 성만 싶어진다.

*

그는 아들의 장례 일정을 모두 장례예식장 측에 맡겨 버리고 사흘 밤낮을 허깨비로 떠돌았다. 그는 자식을 앞세운 죄인이었다. 그의 며느리도 영정을 안은 채 파리한 안색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새하얀 소복으로 떠도는 유령인 것만 같았다.

도시 외곽의 화장장에는 산골의식散骨儀式을 금한다는 팻말이 곳곳에 박혀 있었다. 작은 분지 속의 나무들도 거뭇한 잎을 단 채 시들어가고 있었다. 화사한 단풍으로 치장한 것도 아니고 나뭇으로 당당히 맞서지도 못하면서 시르죽어가는 꼴이 꼭 그 자신을 지켜보는 성만 같았다. 아들의 동료들이 떠나고 승용차로 따라온 친구들과 선, 후배들도 아무런 죄도 없이 별만 실컷 받아내는 얼굴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다.

새하얀 구름이 엄청난 부피로 꾸역꾸역 풀려나와 잿빛 하늘을 뒤덮으면서 공단 쪽으로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다. 화장장 건물 외벽 아래마다 앙증맞게 핀 코스모스들이 말끔한 민낯으로 신성한 세계의 문 바깥을 서성거리는 영혼들처럼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픔과 슬픔만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 역인 것만 같았다. 그는 매일매일 아프고 슬펐다. 남편의 유골함을 가슴에 품은 채 그렇그렇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며느리의 눈망울은 아들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그를 아빠, 하고 처음 불렀을 때의 눈동자와 똑같았다.

*

그의 며느리와 은주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밥상을 들고나

온다. 그녀들 뒤를 그의 처가 고무 합지박에다가 겨우내 갈무리해 둔 시래기 묶음을 가득 담아 들고 따라 나온다. 주황색 칠이 조금 벗겨졌지만, 완고할 정도로 튼튼해 보이는 두레상이었다. 세 여인은 두레상 위에다가 시래기를 수북이 쌓아 놓고 둘러앉아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었다.

아기도 며느리의 무릎 위로 올라왔더니 하품을 하면서 다리를 쭉 뻗고 엎드린다. 그의 처가 시래기 다듬은 것을 주방으로 들여놓고는 대파가 그득히 담긴 대바구니에다가 도마와 칼까지 얹어서 들고나온다. 어른 허리께에까지 닿을 정도로 굵고 실하게 자란 파였다. 얼마 전에 진도의 처가에 다녀오다가 산지에서 직접 구매한 것들이었다. 중국산 파는 국솥에 넣으면 동동 뜨지만 진도산만은 푹 가라앉아 국물 맛을 훨씬 좋게 해준다고 수줍게 자랑하던 시골 아낙의 얼굴도 생각났다. 순박하고 건강한 몸과 심성이 꼭 젊었을 적의 처 같았다. 처의 손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일 때마다 동글동글한 파 조각이 무수히 썰려 나오는 것을 그는 흘린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며느리는 식당을 드나드는 사내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다. 이런 변두리의 식당 며느리로 썩기에는 아깝다면서 은근슬쩍 속심을 내비치는 사내들도 많아 그를 긴장시켰다. 아직도 옛된 기색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며느리였다. 언제 봐도 이슬 머금은 백합처럼 청초한 두 볼이었다. 애잔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크고 검은 눈동자며 다소곳이 솟은 이마를 보면 저승에서도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있을 아들이 생각나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곤 하였다.

그의 며느리는 착하고 부지런하였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만 했다.

몸뚱이 하나로 먹고사는 토박이들은 하나같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녀를 향한 연민과 동경은 조금씩 달라도 사랑하고 아껴주려는 마음에서는 모두가 하나인 것 같았다.

온갖 작물을 양육시키는 햇살과 바람과 비와 토양들처럼 일상의 모든 것들도 이제야 비로소 때가 되었다는 양 며느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다. 슬픔도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황당한 생각도 불쑥불쑥 찾아든다. 그의 며느리도 이제는 그런 이치 정도쯤은 남 못지않게 깨닫게 되었다는 양 매사를 의연하고 분명하게 처리하여 믿음을 배가시켜 주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혼남 이성구의 평에 의하면 며느리의 진짜 숨겨진 매력의 포인트는 백치처럼 순진무구한 눈동자와 미소라고 하였다. 그러자 인근 농공단지 내의 자동차 부품공장에 다니는 노총각 서길용이가 대뜸 흥분하면서 미스코리아도 울고 갈 미인에게 백치미가 무슨 망발이냐고 호통을 쳐댔다. 두 사람은 사나흘에 한 번꼴로 만나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정의 돈독함을 다져온 사이였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에서 두어 달의 시차를 두고 같은 해에 태어나 불혹을 훌쩍 넘기기까지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의 며느리 때문에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백치미라니? 어디다 대고 함부로 혀를 놀리느냐고 서길용이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면 이성구도 지지 않고 혀, 그놈 참, 하면서 호탕한 웃음으로 안주나 술을 추가 주문하곤 하였다. 그러면 그의 처도 한결 더 넉넉해진 손으로 접시를 그득 가득 채워 내주곤 하였다.

그의 며느리가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앉아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은주도 그 옆에 앉아 고요히 빛나는 시선으로 한껏 높아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다. 송준길이가 주차장 입구 쪽으로 목발 짚고 다가온다. 은주가 그의 불타는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일어선다. 은주가 그를 힐끔 일별하고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준길을 노려본다.

송준길은 등에 커다란 혹을 단 꼬추였다. 하반신을 마음대로 잘 쓰지 못해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는 방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처지였다. 불구의 몸이면서도 죽기 살기로 사랑을 탐하는 그에게 은주는 천상에서 잠시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선녀였다. 송준길의 눈에도 환하게 불타는 슬픔과 아픔은 늘 그득하게 고여 들어 있었다.

송준길은 술만 취하면 그를 찾아와 온갖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은주에게 쓴 편지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의 험한 팔자를 한탄했는데, 티끌 한 점 없이 해맑은 피부는 백옥이 울고 갈 정도고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히 가라앉은 눈동자에서는 볼 때마다 뿌연 안개 같은 슬픔이 끊임없이 피어오른다는 식의 긴 글이었다. 그도 은주의 눈에서 아름다움보다 더 진한 슬픔을 보는 모양이었다.

송준길은 식당을 드나드는 토박이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사내였고 7급 공무원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주에게는 아직도 그가 그냥 송준길이란 모양이었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는 애뜻한 연민의 아픔이 좀체 솟아나지 않고 있었다.

아가가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는 가는 울음을 토하면서 은주의 무릎으로 기어오른다. 아가의 크고 맑은 눈은 따듯한 체온에 취해 몽롱하게 풀려 있었다. 사랑을 마음껏 포식한 자의 나른한 행복감이 넘쳐나

는 모습이었다.

그는 식당에서 매일매일 직면하는 일상사들을 그윽한 눈길로 지켜 볼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푸근해지는 것을 느끼곤 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평온해지는 낮빛으로 알차게 생활을 꾸려 나아가는 며느리 때문이었다. 활기차게 웃으면서 식당 일을 돕는 며느리를 지켜보면 추운 겨울밤에 따듯한 화롯가에 둘러앉아 옛날이야기라도 듣는 것처럼 웅크렸던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고 뭐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배포도 꾸역꾸역 솟구쳐 올라온다. 세상의 주인도 사람이 아니라 생각도 불시에 찾아 들곤 한다. 묵묵한 대지와 드넓은 하늘만이 여기, 이곳의 진짜 주인인 성싶어진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모두 다 한여름의 솔개 구름처럼 잠시, 잠깐 머물다가 흩어져 무로 환원되는 덧없는 존재들인 성만 싶어지기도 한다.

그는 이런 생각들을 반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걸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저 자신도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있었다. 평상 위에서는 웃음꽃이 연이어 소담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보면 볼수록 정겨운 사람살이의 민낯이고 참모습인 성만 싶어진다. 머나먼 허공 저 너머에서도 죽은 아들의 음성이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위안의 편지도 따듯한 햇볕에 실려 와 가슴 속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성만 싶어지곤 한다.

*

아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의 처는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서는 어미의 그런 지극한 슬픔을 배반하듯, 음식 냄새가 천연덕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청국장, 잡채, 감자전, 갈비찜, 불고기, 구운 김과 고등어 따위가 다투어 뿜어내는 냄새가 이것이 진짜 정말 참 인생이라는 듯, 아무리 서러운 죽음 앞에서도 산 자의 배는 고프기 마련이고 그래서 또 오장육부가 다 문드러질 지경으로 애통 절통 몸부림을 쳐 대다가도 우선은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람살이의 진짜 정말 참 고통이고 절망이라고 힘차게 웅변이라도 해대는 양 끊임 새 없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처의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가 없어서 슬그머니 돌아서서 후각을 자극하는 그것들에다가 하나씩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죽음도 인생이라는 한 그릇의 요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재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요리를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외롭게 떠나가는 미완의 슬픈 숙수(熟手)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대물림해 온 노천 아궁이 위에 듬직하게 걸린 무쇠 가마솥에다가 정성껏 씻고 다듬은 생애의 기억을 간추려 가지런히 집어넣는다. 오래 묵혀온 시간의 장작을 헐어 내어 활활 타오르는 불을 피운다. 무거운 쇳소리를 길고 날카롭게 토해내면서 육중한 솥뚜껑이 굳게 닫히면 솥에 들지 못한 기억들도 어쩔 수 없이 마른 장작개비처럼 아궁이 속의 불길로 던져진다. 석류 알처럼 붉고 투명하게 익은 잉겔불이 수북이 쌓여 가는 아궁이 속에다가 시간의 장작개비들을 차례로 집어넣고 미리 넉넉히 채워 넣은 솥 안의 기억을 진득하게 끓이고 우려낸다. 매운

연기에 눈물을 질금질금 흘리고 치솟는 불길에 눈썹을 그슬리기도 하고 불똥을 조절하느라 손등을 데기도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숙성시켜 온 한恨과 원願의 간장으로 간을 맞춰 정갈한 한 그릇의 요리를 만들어 낸다.

한 그릇의 완성된 요리는 아픔과 슬픔의 다른 이름이다. 무수한 목숨의 피와 살과 비명이 숨어 있다. 이 행성을 철마다 잊지 않고 꽃과 열매로 그득하게 채워주는 풀씨들은 이를 알리라. 가장 작고 하찮은 슬픔 속에 제일 크고 귀중한 기쁨이 들어 있음을! 모든 것들이 다 궁극의 점 하나로 귀환하고 마는 섭리를! 죽은 아들도 마지막 순간에서는 이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었다. 기쁨과 슬픔이 크면 클수록 일상을 떠받치는 거리와 집들은 멀어지고 도시와 경작지도 경계를 잃고 마침내 하늘과 땅마저도 삶과 죽음처럼 하나의 웅관甕棺으로 딱 맞물린다는 사실을!

“아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글쎄, 뭘까?”

“가장이에요.”

“가장?”

“예.”

가장家長이라고! 아들의 대답에 가슴이 떨렸다. 그는 공연스레 겁 질린 심사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들이 언급한 가장은 가장家長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이라는 부사를 앞세워 무수히 돌진해 오던 수능 예상 문제를 보고서야 질문의 의도를 이해했다.

생각할수록 어리석은 아버였다. 지금, 이 순간에 대입 수험생, 고3

아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무것에도 관심을 두지 못했던 성만 싫어지는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이었다. 가장이라는 부사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단 한 톨의 관심조차 가져보지 못한 아버지면서도 아들을 통한 자기 자신의 기쁨만은 무한대로 탐해온 못난 생애였다.

죽음에 대한 다음 문항 중에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고르시오. 슬픔과 기쁨의 공통점을 진술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가장은 언제 읽어도 늘 고독하고 위태로운 인간의 마음인 것 같다. 그걸 앞세우면 긴장해야 한다. 조금 씩은 다 맛고 틀린다는 것이 전제된 물음이어서 날카로운 미늘로 한 땀씩 떨어뜨리는 가장 아픈 부위가 어딘지 말해보라고 추궁당하는 것만 같아진다. 아들이 말한 가장에도 모순된 생의 진실은 오롯이 숨겨져 있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도 이 날말에 몸서리나게 시달렸던 것일까. 그래서 그걸 앞세우면 모든 것이 다 모호해지고 책임 또 한 흐지부지 분산된다는 사실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다시 또 아들의 시신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 보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저 자신의 슬픔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한 명만 고르시오. 저쪽 상가로 문상 온 이들 중에서 슬픔에 빠진 상주를 가장 적절하게 위로해 주는 사람을 한 명만 선택하십시오. 그는 난해한 질문을 연신 던지면서 시신의 이마에 박힌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나아갔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아들의 슬픔에다가 다시 또 숨통이 절로 콕콕 막혀 드는 아픔을 덧붙여 넣고 있었다. 그 애통 절통한 아픔을 통해 다시 또 아들의 슬픔을 온몸과 마음으

로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아들의 썼던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워 소라딱지를 귀에 대고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귓가로 도르르 흘러내렸다. 이 세상의 모든 목숨을 하나하나의 거룩한 생명의 삶으로 안간힘을 다해 떠받쳐 올려주고 있는 것이 나 아닌 타인의 슬픔이고 눈물이라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절실한 회한의 깨우침으로 다시 또 심장 안 그득히 뜨겁게 물밀려 들고 있었다.

“아빠. 고마워요. 제 마음을 이리도 자상하게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런 참된 의미까지 오롯이 부여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느새 새롭게 활활 불타오르는 슬픔으로 환하게 열린 아들의 두 눈이 그를 뚫어낼 듯 지켜보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리고 있었다.

“아빠. 이제는 저도 아빠의 마음을 다 알았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여기도 이제는 낫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빠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제가 이제부터 다시 또 열심히 살아 나아가야만 하는 시공이니깐요. 그러니 아빠. 아무런 두려움도, 의문도 품지 마시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시다가 아침에 눈을 떠 하루해를 보내고 저녁 잠자리에 드실 때처럼,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곳으로 오십시오.”

너무나 그리운 음성이었다.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아들의 초대였다.

그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었건만 그 자신의 빈약한 가슴을 한없이 부드럽게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는 그 누구인가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읽는다는 게 평&논

● 평론

이기철 336

노효지 시집 『나는 말 없는 꽃들이 좋다』

송은숙 351

시집 속의 시 읽기

조숙 359

기저귀 시 두 편 읽기

오영애 362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박제영 365

김윤삼 산문집 『무늬 뒤의 무늬』

● 서평

강하영의 『독서로 쓰다-책은 나를 다시 쓰게 했다』 369

이소정의 『우리의 차와 미래의 문장들』 372

● 논단

이병길 375

한반도의 비무장화는 반전과 평화의 이정표이다

시평

노효지 시집 『나는 말 없는 꽃들이 좋다』 이기철



외면外面에서 내면內面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상처
혹은 회복

— 노효지 시집 『나는 말 없는 꽃들이 좋다』 (시詩와
에세이, 2026.5)

시인은 관찰觀察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생활 밀착형 시를 지을 때 더 요구되는 사양仕樣이다. 생활 시는 일상을 건드리는 파편 같아서 잘못 다루면 바스러진다. 추상이나 관념이 끼어들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소설가 양귀자가 쓴 소설, 『모순』에 이런 문장이 있다. ‘나에게 부여된 아무리 작은 것도 존귀尊貴하게 해석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습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1989년에 출간된 소설책이지만 지금도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유가 뭘까? ‘인간’을 중심에 뒀기에 가능하다. 따뜻함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절망을 이겨내게 한다.

노효지 시인 신작 시집, 『낮은 북소리』는 그런 점에서 공감대를 확장 시키고 있다.

2022년에 펴낸 1 시집 『구름에게 전화를 했다』에도 그녀가 직접 만지고 본 것들에 대한 증거로 채워져 있다. 독자들이 원하는 시보다 자

신이 가지고 싶은 문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보들레르는 좋고 랭보는 싫다든지 백석은 심장 뛰게 만들고 김소월은 심장 멎게 한다는 요동搖動이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미지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화장기없는 얼굴이 좋은지는 상대방 기분을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갓 담은 김치보다 묵은지를 즐기는 입맛이 있듯 말이다.

어렵게 써야 한다는 강박은 전통 시 형식·규칙을 해체하고 언어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현대 시, 즉 해체시解體詩를 연상시킨다. 1980년대 한국 현대 시 흐름 중 하나다. 기존 관습, 가치관 부정과 파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 한 시詩 경향이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쓴 ‘해체주의 이론’이 영향을 끼쳤다. 시대 상황과 맞물린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은유’와 ‘상징’이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서정시抒情詩에 매력을 느낀다. 이유는 뭘까? 외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은 한정限定되어 있고 이해하기 위한 별도 장치도 필요하다. 서정은 시를 쓴 화자話者が 남긴 기쁨, 고독, 분노, 상실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하게 만든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어도 현재성을 담보하고 있어서다.

시인 시편은 ‘그런 것들’이란 생명生命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가족’, ‘이웃’, ‘지인’, ‘꽃과 나무’, ‘음악’, ‘여행’ 등. 괜히 센 척하며 전투복 입고 긴 칼 찬 모습인 권위가 아니라 ‘말랑말랑’이 주는 힘과 행복을 느끼게 한다.

시를 읽다가 스르르 잠이 올 때가 있고 어떤 시는 나도 모르게 눈을 반짝이며 기똥차게 표현했네, 라며 그 한 모퉁이에서 계속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게 하는 시가 있다 또 어떤 시는 와 어찌라구 하며 던져버리고 싶은 시집이 있고 또 어떤 시집은 대책 없이 가볍고 또 어떤 시는 칙칙하게 무거워서 밖에 나가서 한참 동안 걸어야 하는 날이 있다 여튼 오늘은 잠이 온다 흠, 불면증을 치료해 주는 시집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 「시를 읽다가」 전문

노 시인은 탐독자耽讀者이기도 하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책은 사서 꼼꼼하게 읽는 것으로 정평定評이 나 있다. 그런 시인도 시가 참 어렵다고 토로吐露하고 있다. 난삽難澁 대신 어렵지 아니한 용이容易를 선택, 즐거움을 안긴다. 시는 시쳇말로 ‘어깨 뿡’이 들어가면 부담스럽다. ‘저게 시야?’라는 불만에서 시작해 ‘저런 것도 시가 될 수 있구나’로 진입하는 재미를 찾아야 한다. 시인은 자문자답自問自答하며 시를 이해하고 쓴다.

때로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가끔은 나를 일으키고
때로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문득 서러운 것들

>
시를 끄적이다가
문득 슬퍼지려 하다가
창밖을 본다

- 「질문들」 부분

쉽게 씌여진 시나 어렵게 쓴 시 모두 ‘고통’이다. 그녀는 사이버 공간을 크게 신뢰하지도 않는다. 계정은 등록되어 있지만 개점휴업開店休業 상태다. 이유는 분명하다. ‘좋아요’에 중독되지 않으려는 자기 검열. 조용하게 자신을 밀고 나간다. ‘아래’를 사랑하는 이유다. 힘이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미 성공한 셈이다. 반짝임 대신 물속에서 아주 느리게 자라는 식물인 ‘마리모’(100년 이상 산다) 삶을 선택했다. 기분 좋으면 물 위로 떠 오르기도 하고 축구공만큼 커지면 몸값이 어마어마해진다.

시인이 지닌 서사敘事는 신화, 전설, 영웅 이야기가 아니다. 스쳐 지나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 문을 두드리는 존재에 관한 추억이다. ‘내 마음에 걸린 어떤 것’이란 표현이 어울리겠다. 생전 박완서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 “시에 있어서 영감靈感이란 별거 아니다. 스쳐 지나간 줄 알았던 어떤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이라고.

그녀는 가족 중심으로 사는 개인주의자다. 아니, ‘감정 독립자’라 하는 편이 정확하다. 시편은 많은 부분, 식구들에 할애한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딸, 키우던 강아지... 우리는 그런 시인을 ‘자신이 쌓은 성

에 눌러만 사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삶이라는 궤적은 반드시 '혼자'를 강조해선 안 된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감共感으로 확장되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

인생은 교과서대로 살아지는 게 아니란다 아버지 말씀하셨지
내 아집 같은 능소화
여름 낮은 담장에 기대어 흔들흔들 환하게 꽃잎 밝히고
할머니는 몸빼바지 속 빨간 주머니에서 삼짖돈 꺼내어
손에 꼭 쥐어주셨네

옥희네 집 뒷마당 텃밭에는 상추가 쑥쑥 자라고
동생들은 푸른 보리밭을 뛰어다녔지

저녁마다 집집에서 밥 먹어라
아이들 부르는 소리
굴뚝에선 모락모락 밥 짓는 소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집에서
나는 곳곳한 도덕주의자 같은 얼굴로
턱을 괴고 책을 읽었네
어린 고래는 내 안의 바다에서 꿈틀거렸네

내 고향

아버지의 바다 장생포

- 「장생포」 전문

아버지 고향은 장생포 근처 용연이다. 고래 뼈로 교문을 대신한 초등학교가 있었고(장생포 초등학교도 그랬다) 장생포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고래잡이 어장으로 포경업捕鯨業 거점이었다. 현재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석유 화학 및 중화학 공업 중심 국가 기간산업 중심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해설 사이에 누락 된 사람을 그때를 기억하는 증언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용연 옛터 비 한 구절처럼 '물때 맞추어 바다에 나가면 어부요, 바람 따라 돌아와 들판으로 나가면 농부'였던 고단한 시절이었다. 시인은 아버지 팔뚝에 새겨진 '고래 심줄'이 식솔을 이끈 원동력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의 외로움 아버지의 서러움 아버지의 외침
'보이스 비 엠비서스'

나의 야망은 지고至高한 것이었지
초인이 되고 싶었지
인간적인 것은 비루하고 형이하학적이었고
술 취한 아버지의 그 절절했던 보이스 비 엠비서스는 반복되는 잔소리 같았지

- 「아버지의 개똥철학」 부분

>

가장家長은 그렇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며 ‘가장’ 적은 돈을 벌지라도 제일 먼저 집에서 기다리는 ‘입’들을 생각한다. 누추陋醜를 견디게 하는 힘, 가난을 벗어나고 하는 열망은 자식들에게 명령처럼 전해진다.

‘보이스 비 엠비셔스’(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그 ‘잔소리’,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인 뇌리에 각인돼 비로소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는 ‘삶’이 파편화시킨 ‘사랑’이 개입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울고, 가장 늦게까지 우는 존재’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는 ‘몸 시’를 쓴 시인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어머니’에 관한 진술을 들어볼 차례다.

서쪽 하늘이 강물에 잠시 발 담그고 앉아 있는 강 언덕
갈대숲에서 마른 바람이 걸어 나와
자갈밭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세 살배기 어린 손녀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어머니 굽은 허리에
안쓰러운 저녁 햇살이 비껴가고
나는 어머니 그림자 밟으며 강가로 나갔지요

어린 딸은 강물에 돌멩이를 던지며 깔깔거리며 웃고
나는 그 곁에 말없이 앉아

내 안에 거친 물살 쓰다듬고 있는데
어머니는 문득
흐르는 강물에 젖은 눈길 던지며
‘초원아, 저 물살 뭐가 저리 바쁘지 급하게도 흐르는구나’
한숨처럼 독백처럼 말씀하셨지요

바쁘게 흘러가는 것은 강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간이었을까요
흘러가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어머니였을까요
더 보텔 눈물도 없이
더 이상 깊어질 것도 없이

- 「어머니, 흐르는 강물」 전문

시인 어머니는 현재 요양병원에 계신다. 곳곳했던 시간은 할미꽃이 되어버렸다. 시인도 부모된 지 오래다. 상실喪失이 얼마나 슬픈지 알고 있지만 공평하다. 이별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픔은 칼날 위에 이미 서 있다. 가수 김광석 씨도 그렇게 노래 불렀다.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서른 즈음에〉 부분

아프고, 아프다. 사랑하는 이가 누워있으면 곁에 살짝 눕고 싶어진다. 체온과 기운을 나누려고. 살면 살수록 개인사個人史는 단출하고 외롭게 마련인 고단사孤單史다.

>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신다
벚꽃 피면 휠체어 타고 벚꽃 구경 가자
그랬는데, 나도 아프다
종일 물만 조금 마셨다

- 「봄 앓이」 부분

시편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아직 남아 있다. ‘남편’, ‘딸’, 강아지 ‘복순이’ 이야기다. 자식은 멀리 떨어져 살고 복순이는 어느 날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내 편인 ‘남편’도 최근 퇴직했다. ‘살이’는 늘 그러하다. 끊기고 이어지고 그리워하다 각자 길을 가는 법. 시인은 기록한다. 왜냐하면 기록은 힘이 세니깐. 오래가니깐. 잊히지 않으니깐.

추웠던 겨울밤
고3 딸아이 마중 갈 때 입었던
민트색 겨울 패딩

버스 정류장에 서서
찬바람 막아주었던 옷을
나는 아낀다

그 옷에는 푸른 추억이
마중 나가 호주머니에 핫팩 넣어서

기다리던 기억들
안쓰러운 마음의 조각들
그리고 웃음

아직 남아 있다

- 「민트색 겨울 패딩」 전문

굳이 사랑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덤덤하게
막걸리 사다 주는 남자

천천히 드십시오, 하며
안주하라고
굴 까서 옆에 두는

- 「굴 하나」 부분

이제는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을 키우던 시간을 추억한다. ‘고3’은 건드리기도 힘든 ‘예민(銳敏)’이다. 심기를 잘 살펴야 한다. 조마조마는 미래를 흐트리지 않으려는 부모 마음이다. 살얼음을 밟는 듯한 심정은 일생을 지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맞춤복’ 같은 불편을 견디게 만든다. 성장과 동반, 동행은 미래를 위한 출구다. 말콤 X 자서전을 쓴 바 있는 알렉스 헤일리는 ‘가족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뿌리’라고 했다.

>

거기 마음 하나 두고 왔어
집 앞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함께 걷던 길이 저만치 보여
궁거랑 벚나무 길

그 길 따라 걷던 내 친구
소중한 날들을 우리 함께했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때로 사람의 말이 부끄럽다

의리 짱 털복숭이
우리 복숭이

- 「복숭이 느티나무」 전문

시인은 울산시 남구 삼호동 궁거랑 벚꽃 길 근처에 살다 얼마 전 이
사했다. ‘활처럼 휘어진 거랑’이라 해서 ‘궁거랑’이다. 이사 전 아침저녁
으로 반려견 ‘복숭이’와 산책을 하고 근처 동네 책방에서 ‘산 책’을 들
고 귀가했을 터다. 그림이 그려진다. ‘사람의 말이 부끄럽다’던 시인은
도대체 그날 무슨 말을 들었을까? ‘의리 짱’이라는 이라는 걸 봐서 복
숭이는 그런 사람을 ‘개무시’하라고 한 모양이다. 반려伴侶는 짝이 되

는 동무다.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라는 법이 없다.

시인은 각종 식물을 불러낸다. 그녀가 사랑하는 천지간 만물을 포
용하는 공간, 우주宇宙다.

‘개망초, 등꽃, 냉이꽃, 백일홍, 달개비꽃, 감자꽃, 자목련, 베고니
아, 나팔꽃, 이팝꽃, 커피나무, 라일락’ 등등. 모두 시인이 사계四季를
지나면서 만난 이름들이다. ‘네이밍’은 존재를 지켜주는 증표證票다.

조선 최고 에세이트라 불리는 이덕무는 크고 작은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주하는 작은 것들, 사소한 일상이 지닌 가치와 아름다움
을 표현할 줄 아는 대가大家였다. 그가 지은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는 평
소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한 것들을 글로 옮긴 책이다.

시인 스스로가 말했다. ‘나에게 그들의 노래를 들려준 사람, 풀과
꽃과 사물들, 깊은 감사의 합장合掌’이라고.

자목련이 피면
멋을 알고 낭만을 아는
그분 생각이 난다

온종일 세탁소에서 일하며
시를 읽고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그분 집 마당에 자목련이 피었던
어느 봄날

아주 오래된 봄날이
자목련을 보면 되살아난다

살아가는 것이
또 하루를 건디는 일이었지만

서로 손잡고 보듬으며
고투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던

봄날이었다

- 「자목련 피면」 전문

이제 마지막 문장을 쓴다. 시인은 ‘시니컬’한 면이 있다. ‘냉소적인 태도가 있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무심無心’을 유심有心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 세상은 둥글고 지구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내 것만 챙기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 우울이 섞인 희망이랄까. 주변을 훑어가는 눈물이 가득하다. 첫 시집에 수록된 시 한 편이 유난히 마음을 때렸다.

누군가의 죽음 위에 걸터앉아 밥을 먹고 고기를 뜯고 닭발을 씹는다고 생각한다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함이란 무얼까 새벽에 일어나 식탁 위 과자 부스러기를 행주로 닦으면서 생각한다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저급함과 지고至高의 것이 차이에 대하여

- 「그 여자는 생각이 많다」 부분

시인은 우리 외에는 누구나 타인이라는 선입견을 반대한다. 지구 반대쪽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다양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실감 나게 표현한다. 시인은 모름지기 ‘시대를 깨우는 자명종’이 되어야 한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는 시인을 ‘잠수함 속 토끼’로 비유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잠수함을 타던 수병이었다. 당시에는 산소 측정기가 없어 토끼를 데리고 탔다. 산소 부족에 인간보다 먼저 반응하는 동물이다. 그 아이가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 작가는 그런 존재다. ‘등불’.

배추벌레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그녀는
벌레는 징그럽고 싫다고 말해버렸다

아이는 그녀를 통해 확장되던 동공이 수축되고
세계 하나를 잃게 될 수도 있겠지
그녀의 선입견은 완고하게 고치를 틀고 엉켜있다

가령 누군가 창조론을 주장하면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고 어설픈 진화론을
방패처럼 들고 앉아 있거나
부정은 긍정으로 환치되어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여물지 못한 희망을 들먹이곤 한다

그녀는 완고한 선입견에 갇혀있고

아이는 배추벌레도 사랑할 줄 안다

- 「배추벌레로부터」 전문

아르헨티나 소설가이자 시인, 책을 너무 사랑하는 작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한 말, '누가 누구를 뛰어난 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는 그 자체로 진귀한 것. 모든 작가는 자신만이 가진 상징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화가는 환한 하늘을 채색할 때 손에 든 물감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전체 풍경을 읽어낸 뒤 그대로 보다 느끼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응용(應用)이 무기다.

노효지 시인은 더 자유롭게 하찮은 것들을 물리치는 시인이 되길 바란다.

이기철 : 울산에서 활동 중인 시인이자 평론가이다. 시집 『바람 소리여』, 『쓸쓸한 당신』, 『당신』, 『그리움의 끝』 등이 있으며, 이야기 산문집 『그 아침에 만난 책』, 칼럼집 『따로국밥』, 시 해설집 『사랑하니까 울지 마라』 등이 있다. 현재 울산제일일보에 <책 한 권 드실래요> 칼럼을 연재중이다.

시평

시집 속의 시 읽기 송은숙

시집 속의 시 읽기 1. 조은윤 시인 『자꾸만 꿈만 꾸자』, 문학동네

자꾸만 꿈만 꾸자 / 조은윤

노인으로 태어나

아기가 되어 죽는 시계공의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보았어

노인이든 갓난아이든 그는

약하고 가여워질 뿐

바뀌는 건 없었지

거꾸로 도는 시계에도 정각이 있듯

있던 일은 없는 일로

없던 일은 있는 일로 나아갈 뿐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는 동안

소년이 훑친 물건을 안주머니에서 돌려놓고

두 싸움꾼은 서로의 뺨에서 주먹을 거두고

넘어진 촛대가 스스로 일어나 자리에 앉았어

흘어진 물방울이 다시 한 잔의 물이 되고
조금 전 상처가 말끔히 지워지고 없던 일로
헤어지자던 연인이 다시 손을 잡고 없던 일로

꿈에서는 분명 대교가 무너졌는데
눈을 뜨니 없던 일로 되었어
누군가 그 장면을 되감은 것처럼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창밖에 모여
내가 없는 곳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어
가지 마요 불러봐도 대답 없이

표정도 없이
사람들이 방향을 엇갈리며 산책하는
강변의 공원으로 나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대교를 바라보았어

언젠가 떠나갈 사람이 스스로 다가와
내 곁에 앉아주었어

누구나 한 번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상상을 해 보았을 것이다. 전

래동화 「젊어지는 샘물」처럼 샘물을 마시고 젊어질 수 있다면, 시간을 역행하여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우행을 바로잡고 회복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다면 삶은 훨씬 더 근사하고 빛이 날 텐데.

데이빗 핀처 감독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도 그런 상상의 힘이 빛나는 영화이다. 영화의 도입부에는 눈먼 시계공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시계공은 전장에서 죽은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바늘이 거꾸로 도는 시계를 만든다. 그리고 거꾸로 도는 시계처럼 노인으로 태어나 점점 젊어지다 아기가 되어버리는 벤자민 버튼의 회고가 시작된다.

조운윤 시인의 두 번째 시집 표제시 「자꾸만 꿈만 꾸자」는 핀처 감독의 이 영화를 생각나게 한다. 영화에서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만, 그도 결국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에 빠지고 상실을 경험하며 인간의 희로애락을 맛보는데, 이 시도 “약하고 가여워질 뿐/ 바뀌는 건 없었지”라면서 시간을 되돌린다 한들 다가오는 현실,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후 시는 시간의 역행에 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다.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흠친 물건을 돌려놓고, 주먹을 거두고, 넘어진 촛대가 일어서고, 흘어진 물방울이 모이고, 상처가 없어지고, 연인이 이별 이전으로 돌아간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 고통은 리셋되어 원점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강렬한 바람이 불러온 꿈과 환상에 불과하다. 꿈에서 대교가 무너졌는데 눈을 뜨니 없던 일이 되었다는 것은 꿈과 현실,

환상과 실제의 괴리를 말한다.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바람이 상상과 실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꿈속에서 만난 친구들이 내가 없는 곳으로 뱃머리를 돌린다는 표현은 이러한 모호성을 잘 드러낸다. “가지 마요”라고 부르지만 친구들은 대답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꿈 밖에 있기 때문이다. 꿈 밖의 내가 꿈속의 친구들을 부른다. 소리가 전해질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러니 자꾸 꿈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건 마치 벤자민이 데이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벤자민과 데이지는 각자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들의 현실을 살아가야만 한다. 화자에게 그런 현실은 “표정도 없이 사람들이 방향을 엇갈리며 산책하는 강변의 공원”과 같다. 화자는 그 공원에서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대교”를 바라본다. 대교의 무너짐은 ‘없던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가올 일이다. “언젠간 떠나갈 사람”이니 이별도 필연적으로 다가올 일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가와 내 곁에 앉아주다니!

결국 아무리 과거를 되돌려 ‘없었던 일’로 한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역행하는 삶을 산 벤자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젊어지는 샘물을 양껏 들이켰다면 결국 존재 이전의 상태로, 무^無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톨스토이의 우화 「세 가지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란, 세 가지 질문을 하는 황제가 나온다. 황제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답을 얻는다.

영화 역시 우리에게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 이기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벤자민과 데이지의 시간은 역방향으로 흐르기에, 그들의 사랑은 서로가 가장 젊고 아름다운 순간에 잠시 겹쳐지지만, 결국 서로를 놓아줄 수밖에 없다. 만남과 이별, 그리고 모든 관계는 유한하다. 그래서 더 소중하다.

조은윤 시인의 시에서 그 유한성은 언젠간 헤어져야 하는, 스스로 내 곁에 앉아주는 사람으로 표현된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설령 되돌린다 해도 그것은 되돌리기 이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중요한 것은 now and hear, 바로 지금 여기.

* * * *

시집 속의 시 읽기 2. 함기석 시인의 『개안수술집도록』, 민음사

開眼手術執刀錄

—執刀 第(-)29

함기석

햇빛 속을 고양이가 걷는다 발소리도 없이 방금 물에서 나온 해녀
해랑이 구좌읍 하도리 검은 돌담길을 철뾰철뾰 걷자 그림자처럼 고양

이가 따라 걷는다 숨소리도 없이 수평선은 길게 누워 명상에 든 시
 신처럼 배꼽 위에 구름배 한 척 올려놓고 고양이는 천천히 따라 걷는
 다 전복 따던 빗창과 골갱이를 엮어 놓은 돌담 너머 저쪽, 1948년 12
 월 그날 동틀 무렵 어멍 아방 다 잃고 고아가 된 여섯 살 소녀 해랑,
 저녁 햇빛 속을 고양이가 걷는다 빛, 빛, 눈 시린 길을 걸으며 빛, 빛,
 발 시린 기억의 돌담길 집을 떠올리는 고양이는 그날 해랑의 오라방
 대신 대살代殺된 어멍의 혼백, 물질 끝나고 해랑이 집에 돌아갈 때마
 다 따라 걷는다 호이호이 숨비 소리 몰아쉬는 바다를 끌고 쟁그랑 하
 늘 깨지는 그날의 무서운 총소리를 생생히 들으며 70년 동안

주제 사라마구의 『눈 먼 자들의 도시』는 눈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
 는 소설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멀었을 때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주인공은 평소엔 보지 못하던 인간 군상의 면면을 목격한다. 눈먼 자
 들이 만든 도시는 폭력과 약탈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이었
 다. 피카소의 <게르니카>에는 빛의 형태로 크게 뜬 눈이 나온다. 그것
 은 게르니카에서 벌어지는 모든 참상을 날날이 보고 기억하여 증언하
 겠다는 의지의 형상이다. 이처럼 눈을 뜨다는 것은 진실을 바라보는
 일, 나아가 그것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일이다.

함기석 시인의 『개안수술집도록』도 개안, 즉 눈뜸에 대한 깊고 날카
 로운 사유가 담긴 시집이다. 시집에는 수술을 집도하는 5개의 병동이
 나온다. 병동k, 병동o, 병동r, 병동e, 병동a. 모두 합하면 korea, 바
 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시인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기술
 하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진실을 바라보고 알게 하려는 것이다.

시집에는 전쟁, 5.18, 세월호 등 현대사를 관통하는 사건 외에 신
 문외 정치 사회면에 실렸을 법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준다. 칼에 찔
 린 신문기자, 증권회사 빌딩에서 몸을 날린 사람, 아기를 던진 미혼모
 등.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산과 들, 눈부신 하늘이 아니
 라 이런 가혹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 눈을 뜬 우리는 그 표면이 아
 닌 이면,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

『開眼手術執刀錄 - 執刀 第(-)29』도 제주 4·3 사건의 모습을 보여
 준다. 여섯 살 때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은 70년이 지났더니 해녀의 나
 이는 어느덧 일흔여섯. 해랑이란 이름이 바다에 이는 풍랑 같아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가 되었으
 니 삶이 어찌 곤고하지 않았으랴. 더구나 어머니는 오빠를 대신해서
 죽었다. 어머니의 대살代殺은 어찌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은 예수처
 량 우리 민족을 대신해 죽은 죽음 같다. 그때 그 무수한 죽음이 우리
 를 살린 것처럼 여겨진다.

시에는 고양이가 “어멍의 혼백”이라 하였다. 고양이는 “발소리도 없
 이”, “숨소리도 없이”, “그림자처럼” 해랑을 따라 걷는다. 4·3 사건으
 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영혼, 특히 어머니의 혼백은 산 자 곁을 떠나
 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기억 속을 맴돈다. 그 존재는 침묵하는 그림자
 와 같다. 고양이는 이 보이지 않는 비극적 역사의 무게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더구나 고양이는 70년 동안 해랑을 따라 걷는다고 하였다.
 차마 눈 감지 못하고, 차마 떠나지 못하고 딸의 곁을 지키는 어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차마 잊지 못하며 혼백의 상태에서조차 생생히 되살린
 다. 하늘이 깨지는 듯한 무서운 총소리를. 어머니의 혼백이 총소리를

생생히 들듯이 해량이 역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되살림, 기억은 산 자의 몫이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복기하는 까닭은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심리치료의 하나로 억압된 기억, 트라우마의 시간을 복기하는 것이 있다. 당시의 상황을 끊임없이 재현하고 현재화함으로써 나중에 그 상처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아마 무당이 죽은 이를 불러내어 당시의 상황을 구술하게 하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닐까. 해원解冤은 복원復原이라는 사실. 흔히 시인을 영매이고 주술사라 하는데 바로 복원을 통해 해원을 하는 자라는 의미가 아닌지.

기저귀 시 두 편 읽기 조숙

사람의 탄생과 죽음에는 모두 기저귀와 함께한다. 가족들을 돌아보니 어느새 기저귀가 함께 있는 순간에 처해있었다. 어머니와 손주와 반려견까지. 이런 것을 다복하다고 하는 것일까.

집에서 함께 사는 반려견 크림이는 작년부터 집안에서 똥을 썼다. 밖에서만 싸던 똥오줌을 나이가 들면서 집안에서 싸게 되고, 하루에 한 장 배변 패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환경문제도 걱정되고 집안에 냄새도 걱정되지만 나이가 들어 근육의 분별력이 약해진 것을 탓할 수 없었다.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봐주고 있다. 하루에 8~10개 정도의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한다. 신생아에서 영아까지 기저귀는 평균 3년 정도 6,000개 정도를 사용한다. 아기들 기저귀를 교체할 때마다 그 작은 몸에서 배출되는 오줌과 똥의 양이 많은 것에 놀란다. 그것은 성장의 신호이고 건강과 가능성의 징표이다. 돌보는 사람은 반가운 얼굴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저귀가 있다. 아기처럼 귀하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한다. 자신의 미래처럼 보여 괴로움은 배가된다. 성인용 기저귀는 패드형과 칩대형, 팬티형을 모두 사용하게 되고 팬티형 사용량은 평균 일 년에 1,800개를 사용한다.

2024년 성인용 기저귀 국내 공급량이 5만 7,806톤으로 그 전에 비해 4.8% 증가했다. 어린이용 기저귀 생산량은 10.3% 감소한 5만

3,286톤이었다. 성인용 기저귀 생산량이 어린이용을 넘어섰다. 식품 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 생산 실적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예전에 기저귀는 지금처럼 일회용이 아니었다. 흰 옷이나 자투리 천을 이어서 사용했다. 탄생과 죽음은 여전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냈을까. 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늙음과 죽음에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다. 요양원과 응급실과 장례식장으로 이어지며 생의 마지막 순간은 가려져 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은 반갑고 귀하다.

볼품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 차갑고 반응이 없는 손/ 눈은 응시하지 않는다/ 입은 말하지 않는다/ 오줌의 배출을 대신해주는 도뇨관尿管과/ 코에서부터 늘어져 있는/ 음식 튜브를 떼어버린다면?// 향문과 그 부근을/ 물휴지로 닦은 뒤/ 더러워진 기저귀 속에 넣어 곱게 접어/ 침대 밑 쓰레기통에 버린다//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고 다짐하며/ 한쪽 다리를 젖히자/ 눈앞에 확 드러나는/ 아버지의 치모와 성기//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몸을 닦기 시작한다/ 엉덩이를, 사타구니를, 허벅지를 닦는다/ 간호사의 찡그린 얼굴을 떠올리며/ 팔에다 힘을 준다/ 손등에 스치는 성기의 꼬트머리/ 진저리를 치며 동작을 멈춘다/ 잠시, 주름져 늘어져 있는 그것을 본다// 내 목숨이 여기서 출발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 활화산의 힘으로 발기하여/ 세상에 씨를 뿌린 듯 남성의 상징을/ 이제는 내가 노래해야겠다/ 우리는 모두 이것의 힘으로부터 왔다/ 지금

은 주름져 축 늘어져 있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의 물건// 나는 물수건을 다시 짜 와서/ 아버지의 마른 하체를 닦기 시작한다//
[출처] 이승하 <뼈아픈 별을 찾아서>(달아실, 2020)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

한 편 더 보면, 마치 나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웃음이 머문다.

칠순 아들이 구순 엄마 기저귀 가는 것 좀 보소/ 사람들아 그이는 마스크를 쓰고 엄마 똥기저귀를 간다네/ 행여나 찡그려질지도 모를 표정 감추기 위해/ 입만 가리는 마스크가 아니라 얼굴 다 덮는 커다란 마스크를 쓴다네/ 사람들아 그래도 혹시 엄마와 눈이 마주칠까/ 엄마 배 위에 높다란 이불산을 지어놓고 날마다 기저귀를 간다네/ 그래도 엄마가 민망할까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막 도착한 전문 간병인처럼/ 이런 기저귀 수백 번도 더 갈아보았다는 듯// 이런 일쯤이야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사무적으로 민첩하게 똥기저귀를 간다네/ 아이구 내 새끼 시원하겠다// 우찌 이리 색깔도 좋을까 냄새도 향긋하네 참 잘했다!/ 옛적 이랬을 엄마 밑에서// 자신이 나왔던 그 무궁 앞에서/ 몸을 넘죽 웅크리고 세상 사람들아// 칠순 할배가 엄마 기저귀를 간다네/ 아이구 이남연 씨 오늘 색깔도 좋구요 냄새도 건강하구요// 차암 잘하셨습니다!!

[출처] 박진규, 문학 전문 매거진 <포엠포엠>(2025년 봄호), '사랑법'

오산작가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오영애

매년 3월 8일에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되새기며 행동을 촉구하는 날이다. 2026년의 글로벌 슬로건은 ‘give to gain(베풀수록 커진다)’으로 나눔과 연대가 사회 전체의 성장을 이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성의 날을 지나며, “여성과 소설”이라는 주제의 강의 요청을 받은 1925년의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자기만의 방』을 읽었다. 2026년인 지금, 당시 버지니아 울프의 주장은 대부분 증명되었고, 그 시대에는 여성만의 문제였던 것이 이제 차별받는 인간 모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버지니아 울프는 강연이라는 형식으로 당시 저술들을 분석하며, 도서관 서가에 꽂힌 책 중 남성들이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성이 저자인 책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했는데, 남성들은 책 속에서 한결같이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면 열등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을 예로 들며, 버지니아 울프는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 문화, 관습의 제약으로 그 재능을 현실적으로 발현하는 건 불가능했다는 점을 여러 논거를 들어 제시한다. 당시로선 페미니즘 비평가로 불릴 만큼 충격적이고 선구자적인 주

장이었다.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돈(당시 화폐 500루피)과 자기만의 방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만과 편견』의 저자 제인 오스틴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거실에서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며, 자신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외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심했다고 한다.

지금의 소설가들도 작업실이 필요하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자기만의 방, 그리고 설령 비난받거나, 청탁받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기만의 글을 쓸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방』은 당시 여성의 이야기이면서, 소설창작 강의이기도 하다. 여성이 자기 소설의 주제, 소재, 문체를 구성할 때, 분명 자기 경험과 조건이 한계로 작용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유할 것이냐, 라는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 유용하다.

“여성은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 내내 방 안에 앉아 있었고, 지금까지 바로 그 벽에 여성의 창조력이 스며들어 있던 것이지요. 그 창조력은 실제로 벽돌과 회반죽으로 수용할 용량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제 펜과 붓과 사업과 정치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력은 남성의 창조력과는 크게 다릅니다. 만약 여성의 창조력이 방해받거나

버려진다면, 그것은 유감천만한 일이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여성은 수 세기 동안 더없이 혹독한 훈련을 거쳐 창조력을 얻었고, 그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콜리지도 위대한 마음은 양성적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런 융합이 일어날 때 마음은 더없이 풍요로워지고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순전히 남성적이기만 한 마음은 창조적일 수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순전히 여성적이기만 한 마음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잠시 멈추고 책 한두 권을 보면서 여성적 남성이란, 또 반대로 남성적 여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삼 산문집 『무늬 뒤의 무늬』 박제영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삶으로 환원된다

- 30여 년 현장을 지킨 노동자의 손으로 길어 올린 맑고 단단한 사유의 기록

- 상처를 흉터로 남기지 않고 꽃으로 피워낸 ‘회복’과 ‘긍정’의 문장들

상처를 응시하며 그 이면의 무늬를 찾아가는 시인 김윤삼의 첫 산문집 『무늬 뒤의 무늬』(달아실 刊)가 출간되었다. 이번 산문집은 거친 조선소의 용접 불꽃 아래서도 문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저자가 30여 년의 노동과 삶,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상실과 회복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일상의 사소한 장면과 관계의 결을 통해 삶의 깊이를 탐색하면서 시간과 기억, 관계와 나이듦에 대한 사유를 담았다.

극단의 피로 사회, ‘나만의 온도’를 찾는 법

언제부턴가 우리는 초경쟁, 초개인, 초스피드, 초연결 사회(超連結社會, Hyperconnected Society)로 치닫고 있다. 브레이크 페달은 파열된 지 오래다. 파시스트적 가속도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작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린 채 타인의 시선에 매몰되어 살아간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피로 사회, 피로 시대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김윤삼 시인은 “비 오는 날의 속도는, 내 안에 쌓인 것들을 천천히 내려놓게 한다”(『비 오는 날의 속도』)며, 효율과 속도만이 미덕인 시대에 ‘멈춤’과 ‘비움’이 주는 미학적 가치를 역설한다. “외부의 환경이 변해도 18℃를 유지”(『우물의 온도』)하는 우물처럼,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나를 지키는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 자신의 속도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나의 속도로 살아가기』)를 성찰한다.

삶의 의지를 표상하는 ‘무늬 뒤의 무늬’

이번 산문집의 제목은 ‘무늬 뒤의 무늬’이고, 6편의 산문 속에 ‘무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만큼, ‘무늬’라는 단어는 이번 산문집의 핵심을 찾아가는 중요한 열쇠임에 틀림없다.

“나만의 무늬가 나만의 무늬를 부른다.”(『비 오는 날의 속도』)

“무늬 뒤의 무늬는 약점이 아니라, 향기가 될 준비다.”(『나의 속도로 살아가기』)

“시간의 무늬 안에서 오늘 하루를 건너온 저마다의 사정이 숨어 있다.”(『저녁이 데려오는 얼굴들』)

“세월의 무늬가 몸에 새겨진다는 건,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일인 동시에, 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천천히 구분해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잃어버린 것과 남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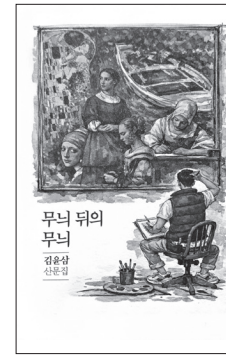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포부가 아니라 나의 무늬를 나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다짐이 쌓여, 내일의 빛으로 변진다.”(『나이 들어 생기는 용기』)

“손바닥의 굳은살 속에 새겨져 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을

몸으로 살아낸 자들의 무늬다.”(『날빛의 시간』)

‘무늬’는 나를 지배하는 환경들 특히 시간에 관련되어 있고, ‘무늬 뒤의 무늬’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려는 삶에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삶의 무늬 뒤에 숨은 또 다른 결, 상처와 흔적, 침묵과 여백 속에서 피어나는 존재의 의미를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사진을 통해 전하는 거리두기의 지혜



산문집 『무늬 뒤의 무늬』는 총 6부-〈1부. 하루의 온도〉, 〈2부. 사람과 사람 사이〉, 〈3부. 나의 얼굴〉, 〈4부. 사소하지만 오래 남는 것들〉, 〈5부. 길 위에서 배운 것들〉, 〈6부. 나를 지켜준 말들〉-로 구성되어 삶의 다양한 국면을 조망하고, 아침 햇살, 한 잔의 차, 반려견과의 교감, 부모에 대한 기억, 오래된 친구와의 침묵 등 일상

적 소재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사유한다.

특히 ‘거리’에 대한 작가의 사유가 인상적이다. 사진 기법인 ‘접사接寫’를 통해 ‘관계의 미학’을 설명하는 대목은 압권이다. “꽃은 손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까이 다가서면 더이상 머물 수 없고, 멀찍이 바라볼 때 비로소 빛난다”(『접사의 거리』)는 통찰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적절한 거리두기의 지혜를 제시한다.

거친 현장에서 피워 올린 섬세한 문장

저자 김윤삼은 경주 감포 출생으로, 울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 조선소 현장에서 노동자로 살아왔다. 시집 『고통도 자라니 꽃 되더라』 등을 통해 고통을 삶의 승화를 노래해온 그는 이번 산문집에서 한층 깊어진 시선으로 삶을 조망한다. 거대한 크레인과 용접기 불꽃이 튀는 현장에서도 그는 “떠뚱의 절반은 노랑나비 찾아 헤매던 날들의 설렘 때문”(『노랑나비』)이었다고 고백하며, 척박한 현실을 문학적 사유로 치환해내는 시인 특유의 서정을 보여준다.

사라짐조차 하나의 피어남임을 증언하는 책

김윤삼 시인의 첫 산문집 『무늬 뒤의 무늬』는 “나에게 남겨진 상처들이 단순한 흉터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다른 형태의 삶으로 환원되는지를 보여주는 단단한 증언”이다. 비문증과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위기 속에서도 “빛을 잃고, 읽는 법을 배운다”며 절망을 공부의 기회로 삼는 저자의 태도는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전한다.

『무늬 뒤의 무늬』는 단순한 감성 에세이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느낌의 가치, 관계의 균형,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문학적 언어로 환기한다.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환경 속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게 하는 밀도의 산문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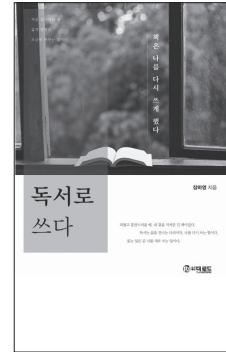
무엇보다 『무늬 뒤의 무늬』는 우리 모두의 삶에 남은 작은 흔적과 상처가 언젠가 꽃이 되어 피어날 수 있음을 조용히 증언하는 책이다. 삶의 표면을 넘어 그 이면의 무늬를 바라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은 깊은 울림과 긴 여운을 남길 것이다.

박제영 : 춘천에서 문장수선공으로 일하며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추기

장하영의 『독서로 쓰다-책은 나를 다시 쓰게 했다』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힘, 책에서 시작되다



『독서로 쓰다』는 저자 장하영이 오랜 세월 책과 함께 걸어온 길을 진솔하게 기록한 책이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혼란 속에서 저자는 책을 통해 자신을 위로받았고, 다른 이들의 고백과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대신 말할 수 있었다. 독서는 단순히 활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빌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책 속에서 저자는 전쟁터에서 사색하던 병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인간 내면의 깊은 질문을 마주했다. 또 낮은 이름을 가진 아이와 거리를 걸으며, 멀리 떨어진 타인의 삶을 체험했다. 그들의 절망과 희망, 사랑과 상실은 저자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고, 인생의 여러 질문에 답을 얻는 길이 되었다.

『독서로 쓰다』는 크게 여섯 가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서는 ‘삶과 닿는 독서의 다섯 가지 방식(슬로리딩, 아웃풋 독서, 주제 독서, 반복 독서, 틈새 독서)’을 통해 독서법의 실제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저자가 깊이 읽은 책들을 따라가며, 문장 하

나하나가 남긴 흔적과 사유의 기록을 보여준다. 『죄와 벌』, 『황무지』,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칼의 노래』, 『노르웨이의 숲』 등,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독서 경험이 담겨 있다.

세 번째 장은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제로, 언어와 사고의 긴밀한 관계를 탐구하며 『혼불』을 다시 읽은 경험을 통해 기록과 책임의 의미를 풀어낸다. 네 번째 장에서는 독립서점을 주제로 다루며, 지역과 도시 속 책방이 어떻게 삶의 결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지를 보여준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독서 모임을 통해 책이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과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이야기한다.

특히 여섯 번째 장은 저자가 지역 언론 《울산저널》에 연재했던 「독서는 힘이다」 칼럼들을 모은 부분으로, ‘책, 이제 자신에게 맞게 읽어라’, ‘디지털 활용 독서’, ‘독서 기록법과 장비 활용’ 등 실제 독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다룬다. 이 칼럼들은 독서가 개인의 사유를 확장시키고,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 가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의 말미에는 ‘어른의 맞춤법’이라는 부록이 실려 있어, 품격 있는 글쓰기를 위한 언어 훈련까지 제시한다. 독서가 단순히 읽는 행위를 넘어, 쓰기와 말하기, 그리고 삶의 품격을 세워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저자는 네 개의 학위를 거두었지만, 자신이 공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언제나 독서가 있었다고 고백한다. 오래 문장을 붙잡고, 곱씹으며 이해하려는 끈기, 새로운 개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가는 힘, 그

리고 낮은 세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모두 책이 길러준 자산이었다.

『독서로 쓰다』는 단순히 독서법을 안내하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책을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새롭게 쓰고,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언이다. 외롭거나 지친 이들에게, 책을 통해 다시 길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책은 늙지 않는다. 책은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독자는 그 질문을 통해 다시 자신을 발견한다. 『독서로 쓰다』는 그 발견의 길 위에서, 당신의 또 다른 시작을 열어줄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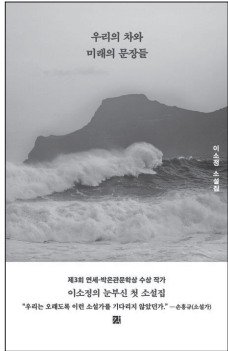
*출판사 서평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독서로 쓰다』는 그 힘을 통해 어떻게 한 개인이 자신을 새롭게 써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빠른 소비와 단편적 읽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저자는 느리게 읽고 곱씹으며,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책은 독서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며, 독자 스스로 “나를 다시 쓰는 힘”을 발견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혼자 읽는 이들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읽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나눔의 교재가 되어줄 책이다.

이소정의 『우리의 차와 미래의 문장들』

무익한 지킴이라는, 불가능한 윤리



이소정의 세계에서 지킴은 힘 있는 자가 내세우는 구원이나 정의, 권력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소정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취약한 기반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존재들이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바랐으나 이루지 못한 일”투성이인(「날씨에 대해 우리가 했던 말」),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늘 당하고 마는 사람. 그

렇게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안 보이게 되는 사람”(「오영과 해영」), 그래서 “이곳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휘귀」)이다. “참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참는 쪽의 사람들이다. 그래도 이들은 “더 작은 것, 더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약하고 작은 존재를 쉽게 버리고 자주 잊어버리는 세상을 향해 “한번 버려진 걸 또 어떻게 버려”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고통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타자의 얼굴 앞에서의 ‘무한한 책임’을 역설한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대로 ‘해치지 말라’는 존재의 무언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효율과 보상, 힘의 역학 같은 게 끼어들 틈은 없다.

『우리의 차와 미래의 문장들』(이소정 소설집, 도서출판 강)은 이런 인물들의 사소한 순간, 대화의 파장, 마음의 잔상을 따라 어찌면 무심하게 때로는 농밀하게 그러나 결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단정하고 다부진 화법으로 이야기의 압력을 생성해간다. 그렇게 서사적 단절과 정서적 응축 가운데 직조된 공백 사이를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수집하다 이 소설집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지점쯤에서 독자는 결코 간단치 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가령, 타자의 얼굴이 부여하는 명령은 왜 상처 난 자들에게 더 쉽게 스며드는 것일까, 이런 무익하고 무해한 지킴의 자리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남을 수 있는가, 그 무용한 시도와 무력한 패배 속에서 문학은 무엇을 볼 수 있는가와 같은. 말하자면, 『우리의 차와 미래의 문장들』은 이런 질문을 서사의 형태로 번역하고 있는 셈이다. / 임정연 (문학평론가·안양대 교수)

*추천사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 가운데 한 편에는 하인리히 하이네의 글을 인용한 에피그래프가 있다. “죽음은 갈라놓지 않고 하나로 합친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삶이다.”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고 죽음 역시 삶을 완성하는 마침표가 아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픈 이유는 삶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소정은 상처를 봉합하려 하는 대신 왜 상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지를 들여다본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픈 이들이 이 소설들을 읽어보길 간절히 바란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마는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여전히 쓸쓸한 이들 말이다. 이소정은 타인의 슬픔을 유

린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위로의 손길을 건넨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런 소설가를 기다리지 않았던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 자신이 서 있는 곳 어디나 슬픔의 한복판임을 증명하는 소설가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그 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끝나지 않는 밤에 대해” 사유함으로써 소설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무서우리만치 침착하게 보여주는 소설가를. “세상에는 좋은 말이 많고 그걸 문장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는 문장을 이소정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 다행이다. / 손흥규 (소설가)

*〈작가의 말〉 중에서

우리는 소설 속에서 누군가 지구를 구하는 장면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냄새 나고 끔찍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 살게 하는 어떤 순간들일 것이다. 그것이 소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이자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집의 작품들은 여러 가지 버전의 결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끝내 전망을 쓰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몇몇 작품은 처음 쓴 결말을 그대로 두었다. 그것이 여전히 어렵고, 어쩌면 닿을 수 없는 거짓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진실은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 같다. 전망 없는 소설이 아니라, 전망의 빈자리를 남겨두었다.

그 빈자리에 누군가는 자신의 전망을 덧붙여주기를 바란다. 이 소설집 어딘가에서 당신의 나 같은 것, 당신은 내 것 같은 것이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기를 바란다.

✎ 논평

한반도의 비무장화는 반전과 평화의 이정표이다 이병길

1. 스크린의 유희와 전쟁의 역설

편안히 소파에 앉아 전쟁영화를 본다. 화면 가득 피 튀기는 살육과 처참한 파괴가 지나가고, 그 참상 속에서 인간은 도리어 정교한 살인병기로 성장한다. 그러나 영화는 총을 ‘생명 보전’과 ‘국가 수호’의 도구로 미화하고, 인류애적인 결말을 덧씌우며 우리로 하여금 전쟁과 폭력의 잔혹함을 망각하게 만든다.

루카치는 『현대리얼리즘론』에서 “문학의 주제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라고 썼다. 인간은 본디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다. 사랑이 상대를 존중함에서 비롯된다면, 미움은 상대를 경멸함에서 시작된다. 이는 인간의 존재이자 생존적 본능과 직결된다. 이 본능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할 때 평화와 전쟁으로 발현되니, 결국 전쟁과 평화는 미움과 사랑이 자아내는 역설적 현상이다. 하지만 전쟁은 추상이 아니다, 인간의 삶과 뼈가 찢기는 구체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인정 투쟁의 극단, 그리고 존재의 소모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라고 정의했다.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인 전쟁은 상대의 완전한 굴복을 통해서만 종식된다. 이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등장하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즉 목숨을 건 ‘인정(승인) 투쟁’과 닮았다. 최근 어느 드라마의 제목처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자신이 무가치하지 않음을 인정받기 위해 개인은 경쟁적 사투를 벌이고, 국가의 인정 투쟁은 결국 전쟁으로 비화한다. 프로이트는 인간 안에는 공격 충동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격 본능은 문명에 의해 억제되어야 마땅하지만, 국가 이익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기 일쑤다. 무엇보다 공격 충동과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정치 지도자는 전쟁을 통해 승리의 트럼펫을 불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비극이다.

인류의 역사는 평화보다 전쟁의 역사였다. 즉, 약육강식의 전국시대 戰國時代가 아닌 적이 없었다. 인류는 침략과 정복을 통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상대를 굴복시켜 욕망을 실현하며 발전해 왔다. 칸트는 전쟁을 역사적 ‘발전의 필요악’으로 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영구평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한편, 푸코는 권력관계가 사회 전반에 스며있기에 ‘역사 자체를 권력 투쟁의 연속’으로 이해하였다. 이처럼 전쟁은 음양오행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兇처럼, 파괴와 창조라는 이율배반적인 원리를 품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역사의 일부였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평화는 결국 정치의 산물이다. 피를 흘리는 정치가 전쟁이라면, 피를 흘리지 않는 정치가 평화다. 국가는 이익과 손실의 치밀한 계산에 따라 전쟁 혹은 평화를 선택한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계산은 끝나고 광기가 시작된다.

3. 애국이라는 이름의 광기와 비극의 수혜자들

일단 전쟁의 포성이 울리면, 인간이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한 무기의 파괴적 호전성과 잔혹성, 무모함이 고삐를 풀고 날뛴다. 첨단화한 무기라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정의의 전쟁’이라 부르짖을지라도 본질은 같다. 파괴와 점령, 살육, 그리고 끝내는 굴복과 예속으로 종결될 뿐이다. 때로는 한 국가의 절멸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이 잔혹함은 자기 국가에 대한 지극한 사랑, 즉 ‘애국’의 산물이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 사랑은 때로 극단적 파괴와 살육이라는 야누스의 얼굴을 한 채 전쟁의 연료로 소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전쟁을 대비해야만 하는 상생과 상극의 굴레에 갇혀 있다. 그래서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 충동을 제어하는 정치적 상태이다.

문학의 소재로 사랑과 미움만큼 흔한 것은 없다. 평화와 전쟁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평화보다 전쟁이 문학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곳이 인간성 말살과 회복이 교차하는 가장 극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 아수라장 속에 사랑과 미움, 상생과 상극, 나아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이 숨어 있다. 반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적군을 죽이기 위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선전과 선동에 문학이 동원되기도 한다. 전쟁이 사랑의 거울이라면, 문학은 때로 그 거울을 닦기도 하고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전쟁은 가혹한 이해타산을 동반한다. 허황된 야망을 품은 정치인이 가장 큰 수혜자이며, 경제적으로는 무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죽음

의 상인들', 그리고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군부 세력이 이익을 탐한다. 이 거대한 군·軍·産·政 복합체는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지만, 민간인은 가장 처참한 손해를 입는다. 그 사이에 낀 병사들은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 소모품이자 희생자일 뿐이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반전 反戰을 외쳐도, 돌아오는 대답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전쟁이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정의'는 추악한 이익을 포장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는 민간인과 병사들의 영혼에 온전히 새겨져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전쟁을 일으킨 국가와 정치인들은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철저히 외면한다. 전쟁범죄의 근본적인 책임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에 응해 단지 애국적으로 행동했을 뿐인 말단 병사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곪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처참하다. 설령 전범을 법적으로 처벌한다 한들, 이미 바스러진 희생자들의 생명이 회생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쟁영화를 스크린으로 소비하는 관객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과 살육에 중독된다. 인간은 무언가에 중독됨으로써 존재를 증명하고, 그 존재는 타자를 파괴함으로써 소모된다. 인간의 광기가 가장 극단적으로 폭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전쟁터다.

4. 도덕의 신기루와 사상적 대안

과거의 전쟁이 군인과 군인 간의 맞대결이었다면, 오늘날의 전쟁은 전방과 후방,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이 사라져 훨씬 더 파괴적이고 무차별적이다. 전쟁에도 윤리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 전장戰場에서 윤리

는 실종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동원한 표적 살해가 횡행하고, AI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인간 말살은 더욱 기계화되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이기에 가장 존엄하지만, 차가운 전쟁 무기는 존엄과 야만을 구별하지 않는다.

동양의 사상이 묵자墨子是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일으킨 의로운 전쟁義戰만큼은 부정하지 않았다. 폭군을 정벌하는 방어적 전쟁은 정당하다는 뜻이다. 그가 보기에 침략 전쟁은 차별적인 사랑差別愛과 이기주의의 팽배, 이념 대립과 갈등, 그리고 물질적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묵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겸애교리兼愛交利', 즉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묵가의 무리墨俠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직접 성을 쌓았고, 대가 없이 침략당한 나라의 방어전에 참전했으며, 국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그들이 이토록 침략 전쟁을 반대한 이유는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만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묵자는 차별과 혼란이 전쟁의 원인이므로, 사상과 생각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상동론尙同論'을 펼쳤다. 사상의 획일화라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극단적 혼란을 수습하려 했던 존재가 바로 천자天子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보편적이거나 상식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물질적 욕망이 전쟁을 유발하므로 과소비를 억제하고 절약節用을 생활 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지언정 원수가 나를 사랑해 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타인을 나 자신처럼 사랑

하기란 피를 나는 부모 형제간에도 절대 쉽지 않은 법이다. 하물며 현실 정치의 세계는 언제나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이익을 맹신하기에, 전쟁의 도화선은 늘 타오르고 있다. 전쟁은 인간 욕망의 가장 거대한 집대성이기 때문이다. 평화보다 전쟁이 더 큰 이익을 보장한다고 믿을 때 전쟁은 일어난다. 이는 맹자孟子의 말대로 “인의를 버리고 이익을 좇는 舍仁義而趨利” 인류의 고질병이다. 칸트는 전투 중에도 병사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당장 목숨이 오가는 생존의 벼랑 끝에서 도덕이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5. 절대적 구체성으로서의 반전反戰

맹자는 정의로운 전쟁이란 오직 침략에 대항하는 ‘방어 전쟁’과 백성을 폭정으로부터 구하는 ‘해방 전쟁’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전쟁은 그 명분과 결과가 어떠한 과정 자체가 비참한 유혈극이다. 전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에서 전쟁 무기 자체를 없애야만 한다. 무기를 쥐고 있는 한 전쟁을 종식할 수 없다. 하지만 인류의 양심은 무기를 내려놓기에는 아직 너무나 초보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칸트는 전쟁이 역사적으로 국가 발전에 일정한 자극을 주었다고 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구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인류는 국제연합을 창설하였다. 하지만 이곳 역시 강대국의 정치적 전장터로 전쟁을 막지는 못한다. 인류의 집단 지성이 발휘된다면 전쟁 없는 평화의 공동체가 유지될 것이다. 합목적적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최후의 보루가 현재로서는 부재한 것 같다.

우리 한반도는 전 국토가 전쟁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곳이다. 한국인만큼 전쟁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은 민족도 드물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1950년의 한국전쟁은 평화를 지향하는 ‘반전反戰사상’으로 승화되기보다, 서로를 증오하는 ‘반공反共사상’을 확산하고 고착화하는 도구로 소모되었다.

특히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의 경험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 가는 지금, 우리는 ‘중전’이 아닌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 75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에 대한 만성적인 면역 효과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에 의존하는 평화에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군비 경쟁은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을 희생한 대가이며, 축적된 무기는 언젠가 스스로를 폭발시키고야 마는 치명적인 충동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식을 사지로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전쟁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타국의 전장에 우리 군인을 보내는 파병 역시 반대한다. 전쟁은 결코 책상 위에서 논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뼈가 찢겨 나가는 가장 절대적인 구체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종전은 휴전을 넘어 반전과 평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비무장화하는 그날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반전과 평화의 궁극적인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남북이 하나가 되고 동서가 서로 어깨동무할 것이다.

오월문학가 백무산 <5월문학상> 수상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	384
2026년 5·18문학상 본상 심사평	386
2026년 5·18문학상 본상 수상소감	389
백무산 시인의 오월문학상 식장 소감문	391
시인 백무산	393

본상

시인
백무산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 백무산

그때 나는 봉인된 기억 속 오래전 친구의
전화를 받았지, 스무살 적 기억을 풀고
세월 저편에서 건너오던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둡던 그 시절 질척한 수령이 아니라
태양 가득하던 짧았던 젊은 날의 파도 소리였어
너로 인해 새로운 과거를 얻었구나
전화를 끊고도 들뜬 심장의 여운이 되감겼지

--네가 살아온 시간 동안 나도 그렇게
살아남았던 것이 고마워
잘 살아주어서 네가 나인 양 자랑스러워
문자를 보내면서 고마운 건
너보다도 너로 인해 한결 괜찮아진 나였던 건
마치 네가 나를 대신 살아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로 인해 희미하게 알게 되네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조금씩 살아주기도 한다는 걸
서툴고 어리석고 나를 모르는 나니까
어디선가 조금씩 나를 불러주고 대신 살아주어

간신히 내가 나로 살아 있는지도 몰라

그뿐 아니지, 지나쳐 보던 산들과 저물녘 강과
새벽안개와 겨울 바다도
구름 속 저 달도 나를 살아주지
내게 없는 내 기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

때로는 비열한 자들이 나를 살아주기도 하지
세상을 그들이 제멋대로 끌고 가버리니까
조소와 냉소와 악담으로 나를 살아버리기도 하지
우리를 대신해서 악의적으로 살아주기도 하지



■ 2026년 5·18문학상 본상 심사평

나를 살아가는 이들의 이름으로

- 백무산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창비, 2025)

올해 5·18문학상 본심에는 시집 다섯 권과 소설집 세 권이 후보작으로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5·18이 과거 완료형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작동하는 역사적 현재임을 선제하고, 그 현재성을 지금-여기의 문제의식과 어떻게 교직해 내는가에 심사의 방점을 두었다. 소설 부문에서는 세대와 분단, 이념 착종을 낫선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작업과, 인간과 비인간의 세계를 가로지르며 역사·생태의 지층을 서사화하는 작업이 밀도 있게 논의되었다. 시 부문에서는 상실의 시대를 가로지르며 경계와 대립을 되묻는 시선, 노동과 일상의 감각으로 공동체를 재사유하는 언어, 생태 위기 앞에서 발화의 자리를 재편하는 시도가 고르게 주목되었다.

오랜 숙의 끝에 심사위원들은 올해 5·18문학상 수상작으로 백무산 시집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창비, 2025)를 선정하였다.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끈 지점은 무엇보다 역사성과 생태주의가 한 호흡 안에서 길항하며 맞물린다는 데 있다. 한평생 노동과 삶의 현장을 언어화해 온 시인은 투쟁의 기억이 개별 주체의 완결된 서사로 봉인되는 일을 끝내 거절한다. 표제가 시사하듯 '나'의 삶은 '나'에게 귀속되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 살아가고 있는 부수한 타자들, 즉 역사의 격랑 속에서 발화의 기회를 얻

지 못한 이들, 노동의 현장에서 소진된 몸들, 동시대 생태적 파국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비인간 존재들의 기적으로 재구성된다. 소외된 존재가 대상화된 타자로 머물지 않고 오히려 시의 주체로 발화하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이 시집의 어법은, 증언의 문법과 생명의 화법을 분리하지 않는 시력(詩歷)의 내공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성취다. 기술 문명의 그늘 속에서 인간성의 잔해를 꺼안음으로써 역사에 대한 책임과 생태적 위기에 대한 응답이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동일한 윤리적 지평 위에 놓여 있음을, 이 시집은 구호가 아닌 육화된 언어로 증명한다. 인권과 평화, 평등과 나눔이라는 5·18의 정신이 특정한 역사적 호명을 경유하지 않고도 동시대 삶의 결 전체로 재이월될 수 있음을 이 시집은 담담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지점은 이러한 사유가 비장하고 비판적인 어조로만 전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인은 투쟁과 대립과 풍자의 언어에 머물지 않고 해학과 아이러니를 통과하는 어법으로 현실의 결을 매만지는 동시에 이성과 야성의 관습적 구분을 해체한다. 사회적 모순을 전면에서 세우기보다 일상의 결 속에 스며들게 하는 이 유연함과 통찰력은, 노동시의 계보가 이 시대의 언어로 어떻게 다시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답변을 보여준다. 높은 시적 완성도와 동시대를 향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서로 부딪치지 않고 함께 빛나는 드문 성취가 여기에 있다.

백무산의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는 5·18이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는 시대적 요청임을 상기시키며, 그 요청이 노동과 생명의 현재적 문제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묵직하게 보여준

다. 올해의 5·18문학상 본상이 이 시집에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5·18문학상 본상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김남일

심사위원 김해자

심사위원 최진석

2026년 5·18문학상 본상 수상소감 백무산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광주 5·18이 아니었으면, 지금에 나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은 개인의 의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서른 살 이전까지 한 번도 광주에 와보지 못했고, 80년 이후에도 자주 오지 못한 광주는 제가 사는 곳과 동서로 먼 거리에 있기도 하고 특별한 연고 관계를 가진 사람도 없었지만, 80년 이후 나의 뇌리에는 광주가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슨 대단한 도덕적 결심이나 역사적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향과 사회적 삶을 결정짓는 일에 5·18의 충격과 항쟁의 정신이 언제 어디서나 거울상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현장 노동자였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더더욱 광주 5·18은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5·18은 우리 현대사의 좌표 한가운데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6월 항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같은 사회 민주화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건들도 그간에 광주항쟁의 정신 계승 노력이 없었다면 것처럼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광주항쟁은 항쟁 이후뿐 아니라 항쟁 이전의 역사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방 이후 전개된 대구에서 시작된 10월 항쟁과 여순사건, 그리고 제주도 4·3항쟁의 역사를 새롭게 복원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폭도에 의한 반란으로 기록되면서 역사적 사

건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매도되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광주항쟁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투쟁의 역사로 맥락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가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동학농민혁명도 재조명되면서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확장했습니다.

광주항쟁은 우리 시대의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민중문화, 민중문학, 민중예술이라는 개념도 5월 정신 계승 노력 가운데서 창조된 미학적 경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시의 출발도 광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를 발표한 지면도 “민중시”라는 무크지인데,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5월시 동인’들에 의해 창간된 문예지입니다. 그 동인을 이끌던 이영진 시인이 저의 시를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었고 처음 발표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문학에 선배도 스승도 없었다고 여겼으나, 문학적 경향도 등단 과정에도 광주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에 광주항쟁의 정신을 명시하려던 시도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89년 무렵에 발표했던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일부만 기억하고 있는 시 구절로 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지도를 펴 보자, 광주는 어디에 있는가?

광주는 전라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광주는 이제 광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

백무산 시인의 오월문학상 식장 소감문

역량 있는 젊은 작가 시인이 받아야 하는데, 제가 받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청에 일찍 와서 그것도 한 번 둘러 더 봤는데, 전 시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중심 타이틀이 “5월이 오면 우리는 다시 80년 5월이 된다.” 였는데요.

제가 어쨌건 5·18의 이름으로 그 참혹한 현장, 그 한복판에서 이 꽃다발을 받고 또 박수받고 상을 받는다는 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 두 개의 장면을 어떻게 하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언어가 아직도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쭉 그 세월을 살아왔고 또 지켜봤지마는 어느 순간에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사이에 그 격차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곤란의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작은 영상 가운데서 임현영 선생의 얘기 중에서 광주 5·18을 얘기할 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보다는 ‘광주 항쟁’이라는 이름을 자신은 즐겨 사용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무의식중에 5·18을 얘기할 때는 항상 광주 항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87년 이후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미 많은 정치인이 이미 그런 관념을 만

들어 내버려서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어느 정도 고정된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여전히 “시의 정신은 항쟁의 정신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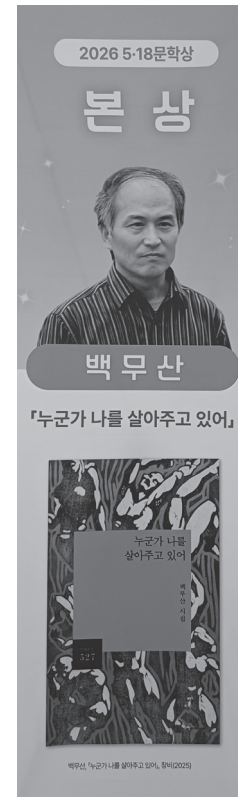
사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상을 받지만은 5·18은 제 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에 제가 25살이었고 현장 노동자였는데, 한 2년 뒤에야 광주에 진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시를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5·18과 함께 시인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항상 광주를 생각하면, “광주가 나의 어느 한 부분을 만들어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광주 5·18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점에서 5·18은 분명 나의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광주에 간다고 생각하면 이 가슴이 뛰는데, 그 가슴은 현재의 가슴이 아니라 청춘의 가슴, 아주 젊은 시절의 그 가슴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일부러 마련해 주시고 또 저 자신에게 다시 이 청춘의 가슴을 확인시켜 준 선생님들과 또 광주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2026.05.23.

시인 백무산



1955년 경상북도 영천군 (현, 영천시)에서 태어났다. 1974년에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 노동자로서 입사해 노동하다가 1984년 『민중시』 제1집에 「지옥선」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노동해방문학》 편집위원을 지냈고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당한 적이 있다.

1984년에 등단하고서 대기업 공장 노동자 출신 시인으로서 크게 관심받아 왔고 혁명가이자 시인인 박노해 등과 함께 1980년대 노동을 주제로 시를 전문으로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힌다. 보통과 다르게 시집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딛고」(노동문학사, 1990)는 1988년 말에서 1989년 초까지 4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울산 현대중공업 대파업 투쟁을 완

결된 장시 한 편으로서 엮어 내어 주목받아 노동계급의 투쟁을 바른대로 읊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백무산은 199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하면서 노동자가 단순히 생활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자본의 폭력성을 대상으로 한 근원이 되는 비판이나 생태 문제로 관심의 폭을 넓히면서 자본의 가치를 넘어서 사람의 근원에 천착한 바를 시에 담아내고 있다.

울산작가회의 2026년 전반기 행사

2026년 2월 울산 작가회의 총회

- 일시: 2026년 2월 13일
- 장소: 나눔과 섬김의 집 2층



3월 확대운영회의

- 일시: 2026년 3월 30일
- 장소: 나눔과 섬김의 집 2층



4월 임시 총회

- 일시: 2026년 4월 10일
- 장소: 나눔과 섬김의 집 2층
- 안건 : 규약, 규정 개정



김연민 시인 사진 초대전

- 일시: 2026년 4월 12일
- 제목: 서라벌의 빛
- 장소: 경주 경주 수오재



김윤삼 시인 산문집 『무늬 뒤의 무늬』 북 토크쇼

- 일시: 2026년 4월 17일 4시
- 장소: 카페 온



윤창영 시인 시집 『오늘 꽃 몇 송이 피웠나요』 출판 기념회

- 일시: 2026년 5월 10일
- 장소: 카페 온



5월 민예 아카데미 강의

- 일시: 2026년 5월 11일
- 제목: 현실반영 문학예술의 과거 현재 미래
- 강사: 최병해 회장
- 장소: 울산교육청 다산홀
- 참석대상: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작가 참석 15분)



광주 5월문학제 참여 및 공연


- 일시 : 2026년 5월 23~24일(1박 2일)
- 울산작가 공연 주제: 울산시민이 본 광주
5·18민주화 운동의 어제 오늘 내일
- 장소 : 나눔과 섬김의 집 2층



울산작가회의 회원


	<p>강현숙 경남 함안 출생 2013년 《시안》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물소의 춤』 seabird1125@hanmail.net</p>
	<p>박구영 경남 고성 출생. 2008년 詩의 웅덩이에 발을 헛디딤. 구정물 줄시집 두어권 현재) 암혈도暗穴道에 누워 가쁜 숨을 쉬는 중 wd902@naver.com</p>
	<p>구명자 경기도 파주 출생 2019년 《시선》 등단 시집 『하늘물고기』, 울산하나문학 동인 mjnine58@hanmail.net</p>
	<p>구태연 전남 여수 출생 2021년 《시에》 등단</p>
	<p>권랑 울산 출생 시집 『어떤 시선들을 바라보다』</p>

	<p>김근태 울산 장생포 출생 2024년 꽃가람 시 순수문학 등단 jxdis999@naver.com</p>
	<p>김덕곤 부산 출생 2019년 《문학청춘》(봄호) 등단 시집 『빨간 詩』(2017) mineabba@hanmail.net</p>
	<p>김민호 경남 양산 출생 2010년 《시에》 등단 시집 『참, 눈부시다』 외 1권</p>
	<p>김시민 경남 합천 출생 1994년 《부산 mbc 아동문학대상》 등단 서덕출 문학상 등 수상 동시집 『금메달이 뜬다』 외 1권 출간</p> <p><i>수종각주 괴물밥이 칼하리</i></p>
	<p>김윤삼 경주 감포 출생 2020년 《시사문단》(7월호) 등단. 2023년 아르코 문학 나눔 선정. 시집 『붉은색 옷을 입고 간다』 외 1권 dasomnu@hanmail.net</p> <p><i>생동집 무늬들의 무늬</i></p>
	<p>김연민 울산대학교 교수, 울산경제진흥원 원장 역임 『스캐치업 입문』 등 ymk5656@gmail.com</p>




김종원
 울산 출생
 1986년 《시인》 등단
 시집 『아득하게 그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디카시집 『어머니 손등』 등 *박기능*
 jwon1913@nate.com


김태수
 경북 성주 출생
 시집 『복소리』 외 6권
 시창작지도서 『삶에 밀착한 시 쓰기』



나정욱
 충남 보령 출생
 1990년 《한민족문학》으로 작품활동
 2025년 울산작가상 수상
 시집 『노래야 먼지야 모래야』 등 *박기능*
 nhapooh@hanmail.net




노효지
 울산 출생
 2003년 《시와 반시》 등단
 시집 『구름에게 전화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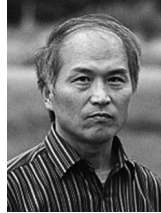


도순태
 경북 경산 출생
 2009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
 2019년 울산작가상 수상
 시집 『난쟁이 행성』(2019)
 sehi-sehi@hanmail.net


박기능
 2013년 《무등일보》 단편소설 등단
 단편소설집 『타임피싱』, 장편소설 『시간의 춤』, 수필집 『이허와 저 저의 밤』



박종관
 충북 충주 출생
 1993년 《부산일보》 산문문예 소설 당선
 작품집 『길은 살아 있다』, 『제3지대』 등
 김용익 문학상 수상




백무산
 경북 영천 출생
 1984년 《민중시》 작품 활동,
 시집 『이렇게 하신한 나절의 어항에』 외 다수
 imagine49@hanmail.net




서경
 경남 남해 출생
 2013년 신라문학대상 시 부문 당선
 skiss72@hanmail.net

손옥희(출향 회원)
 울산 출생
 민족문학사상 등단
 ok60816@daum.net



손중균(손화람)
 경주 출생
 2025 울산작가 신인상 시 등단
 angg20@hanmail.net



송은숙
 대전 출생
 2004년 《시사사》 시 등단
 2017년 《시에》 수필 등단
 시집 『열두 개의 심장이 있다』, 산문집 『십일월』 등


*만해문학회 등 박기능 수상
 두권이 나를
 심아주길
 앞의*




엄하경
부산 출생
2003년 《시사사》 신인상
시집 『내 안의 무늬』(2019)
amk6001@hanmail.net




오영애
울산 출생
《울산저널》에 작가 “서평” 연재
podo0907@naver.com




우덕상
경남 거창 출생
1990년 <경남아동문학회> 추천 시인
독시집 『족집게 선생님』, 동요집 『씨름』 등
제4회 울산아동문학상 수상




윤창영
울산 출생
2003년 《창조문예》 신인상 등단
시집 『기다림은 곡선이다』 외 다수
cyyoun01@hanmail.net




이규원
2005년 계간 《시평》 작품 활동




이노형
경북 군위 출생
2000년 《맥》 작품 활동
저서 『한국 전통 대중가요의 연구』(1994), 『민족자주적 문화사와 민족성 연구』(2005) 등
leenohy@naver.com




이병길
경남 안의 출생
1998년 《주변인과의》 작품 활동
저서 『통도사 무풍한송길을 걷다』, 『윤현진 평전』 등
gil586@naver.com




이소정
울산 언양 출생
부산일보(2020), 동아일보(2021) 소설 신춘문예 등단
2025년 제3회 연세-박은관 문학상 수상
소설집 『우리의 차와 미래의 문장들』, 장편소설 『우리들의 농경 사회』 등




이수진
전북 남원 출생
2017년 《창작2》 신인상, 2020년 김유정신인문학상 동화 당선
시집 『수상한 레시피』
tdesign71@naver.com



이숙희
경북 경주 출생
1986년 《한국여성시》등단
시집 『옥수수밭 옆집』, 『바라보다』, 『마가렛』, 『비워진 집』, 『검은 트랙 위 청개구리』 등
sh01828@nate.com



이인호
서울 출생
2015년 《주변인과 문학》 등단
시집 『이별 후에 동네 한 바퀴』(2020)
2022년 여순평화인권문학상 수상
lih2246@gmail.com




이제향
부산 출생
2004년 《시세계》 신인문학상 등단
시집 『안경 너머의 안녕』

『옥수수밭 옆집』
『바라보다』
『마가렛』
『비워진 집』
『검은 트랙 위 청개구리』


『이별 후에 동네 한 바퀴』
『안경 너머의 안녕』



이태영
 경남 진주 출생
 2023년 울산작가회의 신인상
 tyfriend@naver.com




이한열
 경남 마산 출생
 1997년 《시와 시론》 등단
 제16회 울산작가상 수상
 시집 『아내는 아직도 흥정하고 있다』 등
 rimlove38@naver.com




임경희
 2024년 《울산작가》 신인상(시부문) 수상




임윤
 경북 의성 출생
 2007년 계간 《시평》 등단
 시집 『지워진 길』 등
 limyun0606@hanmail.net




장상관
 경남 창원출생
 2008년 《문학선》 등단
 시집 『장심한 말들의 귀로』 등
 every-wave@hanmail.net




장여름(장하영)
 《문학고을》 수필 등단
 수필집 『내 인생의 침표』 등
 suesue70@naver.com




정석봉
 2010년 《시안》 등단




정성희
 경북 영천 출생
 2005년 《모던포엠》 등단
 시집 『사라진 말슴들』
 quddkfl315@hanmail.net




정소슬
 울산 출생
 2004년 계간 《주변인과 시》 작품 활동
 시집 『내 속에 너를 가두고』 등
 moreunduk@hanmail.net



정영혜
 경남 함안 출생
 산문집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선생님과 부모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조덕자
 경남 하동 출생
 1997년 《심상》 신인상 등단
 시집 『가구의 꿈』, 『지중해 불루같은』, 『길 모연』 등
 제1회 울산작가상 수상
 z0513@naver.com



조숙
 조치원 출생
 2000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
 시집 『금니』, 『유쾌하다』, 『문어의 사생활』, 글쓰기 안내서 『오늘은 글로 써요』 등
 sookcho05@naver.com

등

시평꽃은 왜 유쾌함이 피는가? 등

수필 등


수필집 『내 인생의 침표』, 『독서로 쓰는 내일』 등

시계상 함천출생


수필 등

제1회 울산작가상 수상

등




조유환
2024년 《울산작가》 신인상(시부문) 수상



조정숙
〈청마 백일장〉 시 우수상
2021년 작가회의 신인상
josk326027@hanmail.net



최경호
수필가
inpapa2002@hanmail.net



최병해
경주 출생
1992년 《창작과비평》 가을호 등단
1994년 《매일신문》 평론 신춘문에 당선
chbh1050@hanmail.net

최장락
울산 출생
1999년 《문학세계》 등단
시집 『그늘집』 외권


허후남
《문학세계》 시 당선

『시집 『갯마을집』
바깥의
노래는 부러워』

『와이키키
브라더스』



한정미
서울 출생
2024 《월간시인》 시니어 신춘문에 당선
cook9251@naver.com



황주경
경북 영천 출생
2005년 《문학21》 문학상, 2012년 《문학과 창작》 신인상 수상
시집 『장생포에서』(2019)
tm00191@hanmail.net

*100여 명의 회원 중에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은 회원은 사진 및 경력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울산작가

2026년 여름 · 제41호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발행인 최병해
편집고문 곽구영·도순태
편집주간 이병길
편집위원 오영애·서경·김시민·이수진·송은숙
편집출판 여백과행간
표제 손글씨 박윤규

발행처 울산작가회의
대표전화 052-296-4683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31, 3층
카페 <https://cafe.daum.net/ulsanjakga>

ISSN 2713-4261

가격 18,000 원

39 41

* 이 잡지의 일부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지원으로 출판되었습니다.